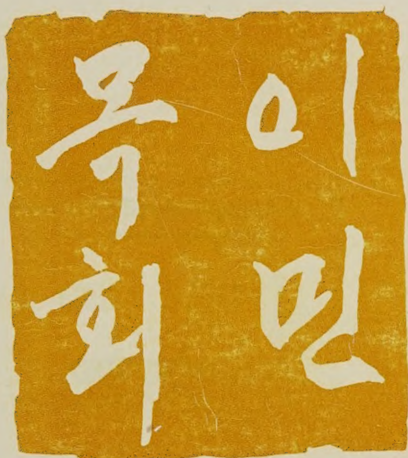
KOREAN AMERICAN MIN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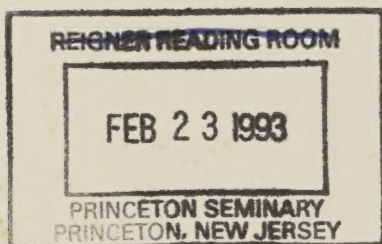


A Resourcebook

Edited by *Sang Hyun Lee*

Published by the Consulting Committee on Korean American Ministry,
The Program Agency, Presbyterian Church (U.S.A.)

Distributed by the Program for Asian American Theology and Ministr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KOREAN AMERICAN MINISTRY

이민 목회 자료

A Resourcebook

Edited by *Sang Hyun Lee*
이 상 현 엮음

Published by the Consulting Committee on Korean American Ministry,
The Program Agency, Presbyterian Church (U.S.A.)

Distributed by the Program for Asian
American Theology and Ministr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Cover Calligraphy by Sang Hyun Lee
Cover Design by Dae Bok Kim
Han Geul Printing Co. (212) 714-0309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머 릿 말

지금부터 약15년전부터 재미한인이민교회는 범이민자수와 더불어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민교회 초창기에는 물론 지난 15년의 급성장기간동안 이민교회는 놀랍게 많은 이민들에게 복음선교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봉사를 해왔다. 이러한 이민교회의 큰 업적과 봉사사업은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막대한 희생적 노력과 헌신이 없었드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민교회를 오늘까지 각별히 돌보시고 키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마땅할줄 안다.

이제 이민교회는 근 15년성장기간을 지내온 결과 여러면으로 정리와 반성의 시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성숙한 교회로서 특히 미국장로교단과 한가족이 된 우리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사명완수에 임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될 시기가 왔다고 믿는다.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사이에 놓인 우리의 특수 상황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할때가 왔다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많은 중대하며 긴급한 과제가 있다. 코리안-아메리칸의 상황 속에서의 크리스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코리안-아메리칸 장로교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교단의 선교사업에 동참하며 공헌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2세들을 위한 목회를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과제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

이민교회가 코리안-아메리칸 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또한 장로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온 성도들

의 신앙 및 지도력 훈련이 급선무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평교인 지도력 양성의 필요성을 의식하고, The Program Agency 에 속하는 한인목회자문위원에서서 1984년에 하나의 자료서적을 출판하기로 결의하였다. 자문위원회에서는 그 출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편집위원회위원장으로는 유호근 목사가 임명되고 그 책자의 편집인으로는 프린스톤 신학교의 이상현 교수가 선정되였다. 편집위원회에서 그 책자가 다루어야할 모든 분야와 제목을 결정하고 직접 집필할 분들을 또한 선정하여 위탁하였다. 책자의 목적은 한인이민교회 특히 미국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또한 창조적 목회방향에 대한 제안들을 마련하자는데 있었다.

1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2세들 또한 전교단의 많은 분들에게 유용성있게 하기 위하여 몇 종목들은 한글과 영어로 출판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와같은 목적을 가지고 편집위원회와 편집인이 최선을 다하여 여러가지 제한된 상황속에서 펴낸 책자가 바로 지금 손에 드신 이 책자이다. 다루어져야 될 것이 미쳐 못다루어진 것도 많을 것이며 그외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이 책자에 포함된 자료들이 이 책자를 출판하게된 그 근본적 목적을 어느정도는 성취하였다고 믿는 바이다.

본책자의 첫부분은 한국교회사 한국선교사 및 미국장로교내의 한인이민교회의 과거를 다루면서 우리의 "뿌리"를 살펴보는 논문들이다.

둘째부분은 코리안-아메리칸 이란 상황속에서의 우리교회의 특수한 사명을 성서적 또 신학적으로 고찰한 글들이다. 셋째 부분에 포함된 글들은 미국장로교의 구조와 절차, 평신도의 목회적 사명, 등 목회에 필요한 실제적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이민교회내에서의 기독교교육과 2세 교육에 관한 글들은 넷째부분에 같이 모았다.

한가지 여기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할 것은 본책자는 하나의 참고 혹은 자료서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모든 관점이나 내용이 반드시 미국장로교회나 한국이민교회의 공식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각 논물을 집필하신 분들의 개인적 견해 혹은 해석도 자유롭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본 책자를 사용하실때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님들께서 필요성과 형편에 가장 적합하고 유용하게 고려하여 사용하시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책자의 내용에 어떤 근본적 방향이나 객관성이 없는 것도 결코 아니다. 여기에 포함된 모든 자료와 논문들은 개혁주의신학 특히 미국장로교의 전통과 현재의 구조와 절차에 근본적인 각도에서 충실하다고 편집자와 편집위원회는 믿는 바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전통 또 문화와 미국의 현실 사이에서 전개되는 이민목회의 특수상황을 가급적 염두에 두고 각 집필자가 준비한 논문들이다.

이 책자가 출판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하였다. 바쁜 이민생활과 목회의 일정가운데서도 아끼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바치신 모든 집필자들과 편집위원회 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특히 이 책자를 계획하고 경제적 자원을 준비한 이 책자의 출판인인 The Program Agency 와 한인목회자문위원회에게 또한 감사를 드린다.

편집을 맡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편집위원회 위원장 유호근 목사님께 마음깊은 감사의 뜻을 기록하여 두는 바이다. 편집자인 본인이 여러가지 편집작업의 문제들을 당할때마다 유 목사님의 인내와 격려와 협조가 크나큰 힘이 되었었다. 이 책자를 출판하는 이순간까지 밀고오신 분은 바로 유목사님 이었다. 번역과 기타 원고정리에 도움을 주신 최갑종목사님과 한진희 전도사님과 여러면으로 도움을 제공한 프린스톤신학교행정부와 아시안-아메리칸 프로그램 서기에게 또한 감사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자를 준비하는 오랜기간 동안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은 아내에게 고마운 뜻을 기록하여 두는 바이다.

이 책자를 내어 놓는 뒤에는 하나의 굳고 깊은 신념이있다. 미국장로교에 속해 있는 우리 한인이민교회와 또 모든 미국에 있는 한인이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룩하려고 하시는 귀하신 뜻이 계신다는 믿음이다. 이 미비한 하나의 책자도 그 귀하신 뜻을 이땅위에 이룩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적은 도구로 써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머릿말을 대신한다.

1986년 가을
프린스톤에서
편집인 이상현

PREFACE

It was around the early 1970's that Korean American churches, along with Korean immigrant population in general, began to grow at a rapid pace. During this period of tremendous growth, as well as in earlier periods, the immigrant church has been not only the center of spiritual guidance and nourishment but also an indispensable source of cultural and communal support for a large segment of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 Much dedicated and sacrificial work of pastors and church leaders is responsible for what the immigrant church has been able to accomplish. We give thanks to God for God's continual sustenance and unfailing care.

Now, in the middle of 1980's, many Korean American churches are feeling settled enough to be more reflective about the nature of their mission in their newly adopted country. This is particularly true of our Korean American churches which have become part of an American host church, Presbyterian Church (U.S.A.). By joining a mainline denomination, we have clearly acknowledged the fact that our vocation as the churches of Jesus Christ is now to be carried out in the bicultural world of ours—a world which is at once Korean and also American. The challenges and questions which face us are many and urgent. We are asking: What does it mean to live and work as Christians in a Korean American situation? How can we become more effective partners with all other members of our denomination as well as other denominations? What are the unique contributions which we as Korean American Christians have been called to make to the church at large? How can we be more effective in our ministry with the highly acculturated second-generation youth?

In order to meet these and other challenges, a top priority task of Korean American churches is undoubtedly the equipping of all of their members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particular mission of their churches as well as in their ability to work toward achieving that mission. Realizing the urgent need for lay leadership training in Korean American churches, The Consulting Committee set aside the necessary funding for Program Agency, Presbyterian Church (U.S.A.), decided in 1984 to publish a resourcebook on Korean American Ministry. the Consulting Committee set aside the necessary funding for this project, and appointed the Editorial Committee, with the Reverend Joseph Ryu as the Chairperson. Prof. Sang Hyun Lee of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was asked to serve as the Editor of the book. The Editorial Committee then chose the relevant topics to be covered as well as the individuals who would write about them. The mandate was to produce a collection of articles which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creative ideas for the ministry of Korean American congregations. Some of the articles were to be in English as well as in Korean so that the book might serve as a useful resource for all members of the Church. The volume now in your hands is the result of the best efforts of the Editor and the Editorial Committee. Undoubtedly, one will find some important areas not covered or inadequately dealt with. Nevertheless, the materials herein contained, we believe, do meet the original goals for the project to a substantial degree.

The first group of articles present a sketch of "our roots," including a brief history of Korean American churches within Presbyterian Church (U.S.A.). The second group of essays deal with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vision for the particular nature of Korean American ministry in this country. The third and largest portion of the book contain articles dealing with more specific or "practical" concerns, including the highlights of the polity of our denomination, the function of the laity in the church's ministry, etc. The final section of the book ad-

dress the task of Christian education in our bicultural context.

It should be clearly understood that the articles included here are *resource materials* to be used as pastors and church leaders see fit. The ideas in this book are not presented as necessarily the *official* positions of our church. The authors were given the freedom to speak their own mind. It is the Editor's and the Editorial Committee's belief, however, that the ideas and information presented here are fundamentally faithful to the tradition, practice, and aspirations of the Reformed tradition and Presbyterian Church (U.S.A.). Furthermore, virtually all of the authors have strived to be sensitive to the particular context of Korean Americna ministry.

A word of appreciation should be recorded here for all the writers, as well as the members of the Editorial Committee, who have generously given their time and energy for this project. We are also deeply indebted to the Consulting Committee on Korean American Ministry and the staff of the Program Agency, who made this project possible and in whose name this book is published.

As the Editor, I would like to express a special word of appreciation to the Reverend Joseph Ryu, the Chairperson of the Editorial Committee. As the Editor faced many difficulties, delays, and other problems, Rev. Ryu has been unfailingly patient, helpful and encouraging. It is really he who has moved this project along to its completion. I am also grateful to Rev. Gap Jong Choi and Mr. Jin Hee Han for their assistance in translation and editorial work, as well as to the administrative staff of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including the secretarial staff in the office of the Asian American Program, for their assistance and helpfulness.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my wife for her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out the project.

We have put together this resourcebook with a firm conviction that God has important mission to accomplish through the Korean American ministry within Presbyterian Church,

(U.S.A.). It is our hope and prayer that God will work mightily even through this imperfect instrument to bring about the reign of God's own glory in this world.

September 1986
Princeton, New Jersey

Sang Hyun Lee

목　　차

제 1 부 : 우리의 뿌리

제 2 부 : 우리의 신앙과 소명

제 3 부 : 교회의 구조와 목회

제 4 부 : 교육적 목회

Table of Contents

PART ONE

Our Roots

PART TWO

Our Faith and Calling

PART THREE

The Structure and Ministry of the Church

PART FOUR

The Educational Ministry

제1부

PART ONE

우리의 뿌리
Our Roots

한국 장로교회사

민 경 배

I.

한국 역사의 가장 어려웠던 19세기 중엽. 1876년에 만주땅에서, 스코틀란드 장로교의 선교사에게서 두 사람의 한국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후에 세례를 받은 서상륜(徐相崙)을 비롯한 몇 사람의 한국인들과 함께 성서 번역의 방대한 사업을 착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882년 가을에, 가진 핵고끝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 간행할 수 있었다.

이런 역사의 시작은 네가지 중대한 의의를 뒷 날 남겨 놓았다. 하나는 한글의 재생(再生), 내지는 민족문화로서의 보편화이다. 최남선도 기독교의 이 성서번역사업이 아니었던들 한글의 민중언어 및 사상적 체계의 언어로서의 정착이 어려웠을 것이란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다음은 1885년 4월 부활절에 장로교의 처음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감리교의 아펜셀라가 인천(仁川)에 상륙한 날자를 언필칭, 오늘날 한국 기독교 100주년의 기산(起算)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때 이들 선교사들이 이미 우리나라말로 번역된 성서를 가지고 들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선교사상(宣教史上) 미증유의 사건이었다.

다음 셋째로는 서울이나 솔내(松川)에 한국 최초의 교회가 성립되었는데, 이들은 다 그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이들의 공동체였고, 따라서 선교사 입국 이전에 막강한 세력으로 이미 현존(現存)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서를 통해서 이미 전국에 매서인(賣書人)들을 통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입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초기 선교사들은 〈선교〉를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례적 목회(聖禮的 牧會)를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도록 돼 있다.

우리는 선교사들의 노고에 언제까지나 감사해야만 한다. 어떤 선교사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한 이들도 있었고 건강을 해치고 되돌아 간 이들이 허다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정신착란까지 일으킨 이들이 있었다. 그 옛날 낯선 땅, 위생시설이 빈약하고, 침식이 불편하던 곳에서 애쓰던 그들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세계사적 기적의 성장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가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이미 기초가 놓여지고 있었고 더구나,성서와 우리들의 손으로 번역도 하고 교회를 확립도 해 나갔다는 긍지를 결코 상실하여서는 안되리라 믿는다.

더구나 우리 교회사의 훌륭한 금자탑은 아세아에서의 굴지의 의회(議会) 대의 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의 체제를 발전시켜 막강한 민족 리더쉽을 산출하고, 아울러 애국 에너지의 동원(動員) 체제로서는 가장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유기적 조직체를 확보하였다는 것은, 이광수(李光洙)의 말에서 이미 지적이 되어 있다. 과거 1세기에 걸쳐 이런 규모의 일사불란한 민족 교육, 민주 훈련, 도덕 도야의 기관이 따로 없었다는 사실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된다. 자립, 자치, 자급의 네비우스 방법이 우리 장로교 초창기부터의 근본 정신이었고, 그것이 어느

교회보다도 강력한 토착 민족교회로의 급속한 구형(構形)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힘과 신앙은 1907년 독로회(獨老會)로서 〈대한 장로교회〉가 독립 발족하던 때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리고 카나다의 장로교, 호주의 빅토리아주(州) 장로교,이 네 장로교회가 교파의 차이 없는 단일 한국 장로교로 발족시킨 용단은 위대하였다. 그런 일치를 위해 바친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선교부 총무 로버트 · 스피어(R. Speer)의 노력은 더 없이 소중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독로회는 우리 땅의 신경(信経)과 정치(政治) 예배(禮拜) 모범을 채택하면서, 목사상(牧師像)의 정립, 각교회 옆에 학교를 세우라는 근원적 교육이념 , 그리고 제주도(濟州島), 시베리아, 만주, 심지어 하와이 및 동경(東京)에 대한 선교를 결의하였다. 그것을 우리 교회헌금으로 자급하였던 것이다.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두고, 아세아에서의 리더쉽을 전망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일들이 아니었다.

II.

한국교회가 실질상으로 정초(定礎)를 놓기 시작한 것은 1895년이다. 청일전쟁(清日戰爭) 후의 가공할만한 호열자의 만염으로 하로 7백여명이 죽어가던 참극이 휩쓸때, 그리고 가족들이라도 그 환자를 멀리 할 때, 교회는 십자가 표지를 가슴에 달고, 환자들을 돌보고, 죽은 이들을 깨끗이 목욕시켜 장사지내주었다. 이런 헌신적 사랑을 이 겨레가 일찌기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기독교가 지닌 이 깊은 사랑의 힘이 무엇일까. 우리 겨레는 묻고, 그리고 다들 앞 다투어 입신하였다. 동학도(東學徒)들까지도 그 지휘관급 인사가 입신하였을 정도였다. 손병희는 한때 조선 전체가 기독교국이 일단은 될 것이라 예언한 바도 있었다.

1895년은 저 참극의 민비시해(閔妃弑害)라는 사건이 겨레의 울분과 아픔을 천하 사방에서 불러 일으켰던 해이다. 민비는 〈도살〉되었고, 고종(高宗)은 〈불쌍할 정도〉로 전율하고 있었다. 그때 고종이 처음 외친 소리가 〈밖에 선교사들이 없는가〉였다. 기독교회가 내 옆에 있는가 라는 말이 아니었던가. 언더우드 부인은 그 때, 언더우드, 애비손(O. R. Avison), 헐버트(H. B. Hulbert)가 윤치호의 아버지 윤웅렬(尹雄烈) 과 함께 고종 옆으로 달려 갔고, 고종은 이들에게 〈악수를 해도 좋은가〉묻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 손을 꼭 잡았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때 고종의 유일한 방어(防禦)가 이 〈기독교인들뿐〉이었다고 단언하고 있었다.

겨레에 대한 끝없는 사랑,나라와 왕실에 대한 충성, 성의의 신리에 대한 헌신, 그것이 이 근대사의 한국 현장에 구현(俱現)될 때, 우리 겨레 마음 깊이에 복음에 대한 수용 자세는 광활하게 열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1905년부터는 노일전쟁(露日戰爭)의 여파로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장악이 점차 확실해져 갔고, 보호정치, 통감성치를 거쳐 1910년에 이르러서는 지난 15년을 끈 일제의 한국 침탈야욕이 현실화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었다.

이 어간에 교회는 애국과 독립의 지탱 에너지로 그 동력원(動力源)이 되어 갔다.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워졌고, 선천(宣川),정주(定州)는 이미 인구 비례에서 압도적인 수가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다. 주일이면 거리가 다 문닫고, 성경책을 끼지 않고 거리에 나선 자 있으면, 그는 어깨가 좁아 기를 못 필 지경이었다고, 이도오(伊藤博文)의 밀성역(密偵役)을 본 우찌다(內田民尹)란 자가 보고한 바 있었다. 평양 기독교 청년들은 서울에 결사대를 파견하였고, YMCA는 일진회(一進會)를 습격하였으며, 황해도에는 의병장(義兵將)중에 기독교인들이 여럿 참여하고 있었나.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고, 도처 교회마다 십자가 기(旗)와 태극기를 교게(交揭)하고 있었다. 그 때 태극기를 단 것은 보호란 뜻이었다. 세계 선교사가(宣教史家) 데니스(T. S. Dennis)는 한국교회의 가

장 현저한 특징이 그 애국심과 겨레에 대한 사랑이라 진단한 바 있었다. 스피어는 확실히 한국교회의 외형적 특징이 그 철저한 민족의식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기독교계 학교에서의 군사 훈련은 상식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강력한 군사 통치가 실시되던 마당에 이런 군사적, 시위적 민족운동이 교회에 끼칠 파괴적 영향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그것은 신앙 문제 이전에 소위 음모, 내란으로 일제가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더구나 실제 입교 동기 자체가 순수한 종교적 동기 보다는, 교회의 전국적 조직성, 그 선구자성, 그 민족 의식에 두고 교회의 문을 들어 섰던 이들이 결코 적지 아니하였다. 경건주의 유형의 신앙이 전통이었던 미국 선교사나 보수주의 한국 교회의 신학적 자세는 그 때 사회 선교적 역사 의식이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정치와 교회의 연결 논리가 불투명하였다. 그래서 1901년부터 벌써 교회는 「교회에서 정치 공론 못할 것이요」 결의한 일이 있었고, 1905년에는 한국 교회의 소위 정화작업을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산(元山)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성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 원죄, 사죄, 은총, 구원의 기쁨이란 소박한 신앙에로의 회귀(回歸)를 목표하는 대대적 사경(査經) 부흥회를 개최해 나갔다. 비정치화(非政治化)가 그 목적이었다. 교회 신앙의 종교적 동기 정립과 그 발전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1907년 평양의 대부흥에서 성취되고 있었다.

한국교회의 신앙 내연(内燃) 사회 외연(外延)의 신앙 형태가 이때에 원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립되고 정착된 셈이었다. 그리고 그런 형상을 가능하게 하였던 동력은 교회가 첫날부터 강조한 〈성서적 신앙〉이었다. 사경회 참석 인원은 교인의 수와 인세나 동률이었다. 오히려 더 많을 때가 있었다. 〈성경을 읽는 교회〉, 〈성경 상수가 닳도록 읽는 교회〉, 그것이 한국교회의 처음 유산이었다. 어떤 여인들은 장마당에 가듯 침구, 옷가시, 쌀들을 잔뜩 머리에 이고, 120리를 걸어 7－10일간의 사경회에 참석하고 겨울 농한기 어떤 때를 이용한 계

설 때문에 추위를 또 견디야 하는, 이중의 고난속에서도 이렇게 사경회는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Ⅲ.

일제의 한국통치는 물질 문명적, 외형적 진보라는 점이 그들 자본의 침투, 그리고 그들 상품의 시장 진출이란 성격으로 굳혀지면서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일제 헌법이 〈황실(皇室) 기축(機軸), 이란 권위적 정치 감각의 차이와 함께 기독교의 정신적 도덕적 근대화에의 방향 혁신과 정면 대결되는 정책이었다. 사실 이런 기류를 타고, 한국의 정신적 와해, 가치관의 변동, 전통 가족 관념의 동요, 여인들의 구직(求職)을 통한 사회 분위기의 변화, 물질주의적 사고 방식, 그리고 다윈주의(Darwinism)의 만연, 심지어 사회주의까지의 유입이 뒤따랐던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일제의 한국 통치가 이해되어져야 한다. 거기에서 비로소 한국 근대사에서의 우리 장로교회의 역사적 사명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105인 사건〉(1961)이라든가, 〈개정 사립학교 규칙〉, 제 2 차 대전의 경제적 공황에 따른 자본 압박의 식민지에서의 해소 방안이란 강경한 금융정책을 통하여 한국 농민의 핍절을 가중시키면서, 동시에 그 구조뒤에 서 있는 한국 교회의 파괴, 그리고 그것이 골격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 영감의 원천을 삭제할 계도(計圖)였다. 더구나 아편의 공개 투자 및 전매(專賣) 관리라는 근대국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몰도덕적 시책을 통해서 한국인의 얼과 넋을 해체하려는 악랄한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

여기 1919년 3.1운동의 기독교 주도(主導)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민족의 교회로 굳혀진 우리 교회는 예언자적(豫言者的) 사명에 철저한 올바른 교회본의 신학을 발전

시켰다. 시대의 악을 묵인하지 못하고 신의(神意)의 소재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제 정치의 군인 독재를 생리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 예언자적 교회는 우선 민족의 해방을 외치면서 도덕적 혁명을 소리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섭리의 〈희망〉을 부식(扶植) 시켰다.

엄동설한 찬 바람에
네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영혼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 바람에
회생키를 바라노라.

3.1운동이 일어나던 해 가을에 홍난파와 김현준이 지은 〈봉선화〉의 3절 노래이다. 이 두 사람은 다 장로들이었다.

〈희망〉을 선포하여 겨레의 존엄, 정의의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던 교회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 우리는 10%의 참여에 불과하였지만 일제 진압에서는 그 피해를 80%나 받고 있었다. 일제의 눈에는 교회가 이 운동의 정점(頂點)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정의와 진리, 신앙의 힘은 그대로 현존해서 악과 불의의 세력에 도전으로 〈현상화〉하는 것이다.

1919년 5월 8일 현재 기소 피고인의 비율은 기독교가 전체의 25% 차지하였고 장로교는 전체의 18%란 높은 인원이 희생되고 있었다. 이것은 천도교의 비율과 동률의 것이었다. 물론 장로교회만의 경우가 그렇다. 겨레에게 희망을 주고, 외칠 곳을 장만해 주며, 그로 인해 위대한 희생의 제물을 바친 한국의 장로교회는 그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교세 회복에 다시 10년을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1920년대 한국은 심각한 사회 변화를 경과하고 있었다. 1918년에 이미 우리 교회는 시대가 〈산업혁명〉의 격류에 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감각의 사회 의식을 갖춘 선교의 자세에 임하려 하였다. 총회에 농촌부를 신설하고(1928),

그해의 예루살렘의 국제 선교 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nference)가 한국농촌 문제를 크게 다루어 부루너(E. S. Brunner)교수의 The Rural Korea를 간행하며, YMCA의 농촌 협동조합 운동 등이 활발해지고, 예수교 연합공의회가 사회신경(社會信經)을 채택(1932)한다든가, 교회의 사회 선교는 급격한 전환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교회의 방향 설정은 여러 형태의 교회내 종교 운동을 동시에 야기시켰다.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야말로 한국교회 신학과 신앙의 불 붙은듯한 양성기(釀成期)였다. 전통적인 신앙에 대한 도전이 서울지역 교회 중심으로 평양의 교권(教權) 기능에 도전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고, 분파(分派)운동이 황해도, 전라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났으며, '성서 조선'과 같은 무교회주의계 활동, 신비주의적 경건의 신령주의 운동이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원산(元山)에도 은둔적 신비주의 순수 운동이 계속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증유의 연합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1920－1930년대는 실로 한국교회의 가장 왕성한 종교 운동기였다. 그것은 다양하였지만 항일(抗日)과 복음주의적 신앙 의식에서는 대개 일치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일제는 1931년부터 이러한 교회 운동을 민족운동이란 차원에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장로교회는 연합공의회(N. C. C.)의 정책을 장로교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하여 이를 탈퇴한 것이 공교롭게도 같은 해여서 교회의 약체화는 가속되고 있었다. 일제는 1936년의 군부 구데타를 통해 팟쇼 군사 정권에 장악되었고 계속해 중일전쟁(中日戰爭)을 일으키면서 한국의 병참기지적 중요성 때문에 한국 민족의 황민화(皇民化)를 서둘러갔다. 그래서 신사 참배가 강요되어 총회가 1938년 신사 참배를 국민 의례라 하여 가결하게 하면서 농촌부를 폐지시키고, 종교 단체법(1939)를 통해 극렬한 기독교 탄압에 나섰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형극의 길을 갔다. 더러는 순교로,

더러는 괴로운 전향(轉向)으로 각각 교회는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다. 2백여 교회가 문을 닫고 2천여 신도가 투옥되었으며, 50여의 교역자가 순교의 면류관을 썼다. 한국내의 교회들은 1945년 종전 한 수일 전에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朝鮮教團)에 전부, 교파의 구별없이 예속해 들어가야 했다. 구세군, 침례교, 안식교회는 그 종말사상 때문에 이미 해체당하고 있었다. 영광과 표본의 교회는 흔적이 없어지는 듯하였다. 하지만 심판자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를 변화시켰다. 그 때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간섭의 손길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때가 다시 없었을 것이다.

Ⅳ.

해방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다. 감격에 찬 흥분은 가시지를 않았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들의 공동체이고, 그것은 〈흠임 없는 개인〉의 교회상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북한의 교회가 공산당들에게 시달려 다시 수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신사 참배의 속죄 문제로 반목을 하여 분파작용이 교회를 상처입히기 시작하더니 필경 6.25직전까지 총회석상에서 불상사가 속출하였다. 다들 〈성회(聖會)〉의 모욕을 가슴아파하는데도 교회는 계속 분쟁에 시달리다가 결국 6.25사변을 맞았던 것이다.

6.25사변이 준 교회에 대한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장로교회만 해도 150여 교회가 파괴되었고 납치된 교역자들이 177명이었다. 그러나 전라북도 옥구(沃溝)의 원당(元堂)교회는 75명의 교인중 73명이 참살당한 사실을 본다면 교회의 피해상의 통계란 것이 사실 무의미할 만큼 그 피해가 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비극 속에서도 교회 분열은 쉬지않고 계속되었

다. 예장과 기장의 분열은 1953년에 가서 결국 불가피하게 되었고, 고려파와 예수교파와의 분열 역시 1952년에 단행되고 말았다. 그리고 1959년에 가서는 다시 소위 합동파가 통합파와의 분열이 교회의 이미지 쇄신에 씻지 못할 흔적을 남겼다. 각각 신학의 진보, 경건의 보수, 에큐메니즘의 이해 차이에서 분열이 왔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실상 더 깊은 비신학적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회의 몰역사적 행태 때문에, 신앙과 구원의 절실한 갈망을 갖고 교회에 들어 온 이들의 좌절과 실망이 컸고, 따라서 그런 전란의 깨진 심령과 실제 부모, 자식, 부부지간의 파탄과 상실을 경험한 재난의 영혼들에게 호소하는, 소종파적 경험적 신앙의 섹트 윤리 집단이 왕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회의 불실과 몰역사성의 불미를 고발하는 사회현상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역사적 사명의 미완에서 정지하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발전과 성장은 보장된 셈이었고, 따라서 소종파 섹트의 발전은 교회의 진실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던 것이다.

교회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권과의 괴리를 느끼기 시작했고, 따라서 심각한 자기 반성의 고비를 강요당한 셈이었다. 그 분열의 상처도 기독교와 교회들의 입장에서 다시 자성(自省)하고 사회 부조리, 부정, 모순에 대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확인하면서 교회 일치의 절실한 요청이 교회 도처에서 아우성치듯 들려 왔다. 크리스챤·아카데미는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적시 응답하여 대화(對話)의 광장을 마련하여 화해역(和解役)의 중간집단이란 사명의식을 확대해 나갔고, 장로교는 통합파가 W. C. C에 가입하고 N. C. C를 통한 연합 모색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W. C. C 계의 연합운동을 의식하고 있는 보수층에서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내지는 I. C. C 계의 연합전선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 다 이 일치의 필요성을 시인하고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 나열이 (민족

교회 보시의 혁신의 노정은 아직 요원하고 멀기만 한 것 같다.

교회는 일치를 위한 일치 운동에서보다는 사회선교와 복음 전도에서 오히려 필연적인 일치삶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강력한 교세를 가지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 선교라든가 농촌 선교, 그리고 인권 운동, 그리고 전도 운동, 교회 확장 운동에서 실로 놀랄만한 공헌들을 하였다. 교세의 경이적인 확장은 그 원인이 반드시 일률적이 아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거기에 비로소 교회 선교의 성취가 기약된다. 우리 현대 교회의 위대한 성취의 근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이러한 피차 다양한 동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때에 비로소 민족 단일 기독교회의 성립도 기약될 수가 있다.

한국의 장로교는 항상 다른 교회에 비해 역사적으로 3배 가량의 강세를 지켜 왔다. 예언자적 사명을 메시야주의 민족 구원으로 동원한 것도 우리 교회였고, 현실 감각보다는 항상 높은 차원에 그 구조적 동기를 가지고 현실에 도전하는 강력한 정신을 유산으로 가져 왔다. 우리는 일제에 타협 못해 숱한 순교자를 내었고, 학교는 그들 요구를 받아 드릴 수 없어 스스로 폐교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성〉이란 신앙에 철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내려온 다른 하나의 고귀한 유산은 뚜렷한 윤리 의식, 도덕적 훈련이다. 우리 교회는 그 엄격한 치리(治理)로 교회를 개혁해 왔고 사회를 정화시키며, 파괴적인 퇴폐풍조를 배제해서 거대한 양심의 힘으로 살아 남아 세계를 구원의 제사장 소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산의 계승은 우리들 모든 장로교인들의 책임이요, 그 후계(後繼) 역시 우리의 사명이다. 하지만 이광수의 말처럼 〈기독교회가 조선 문명사에 큰 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의무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었고, 그것

이 자연 겨레와 세계에 대한 공헌으로 나타났다는 이 신앙의 깊은 비밀을 계승해야 할것이다.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n History

Kyung Bae Min

In the middle of the nineteenth century, which was a most difficult time in Korean history, two Koreans were baptized by a Scottish Presbyterian missionary in the land of Manchuria. That was in 1876. They, then, embarked on the enormous task of Bible translation with several Koreans, including Sang Ryun Soh, who were baptized later. With much hard work, the Gospel of Luke and the Acts of the Apostles were finally translated and published into the Korean language in the fall of 1882.

This beginning left four important legacies for the future. One was the lifting up of the Korean language ("Han-Geul") and its universalization as part of national culture. Nam Sun Choi also assessed that the establishment of Han-Geul as people's language would have been difficult without this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the vernacular language.

The second was the fact that the first Presbyterian missionary H.G. Underwood and the Methodist Appenzella were able to begin their work in Korea with the Bible that had already been translated. This was an unprecedented event in

the history of the Christian missions. Their arrival at Incheon on Easter Sunday in April, 1885 is usually considered as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mission to Korea, one hundredth anniversary of which we celebrate this year.

Third, the first Korean churches were formed in Seoul and Solae, and these were the community of believers who were converted by reading that very version of the Bible. Thus there was a strong Christian community in Korean even before the arrival of missionaries.

Finally, numerous people were introduced to Christianity through the book sellers who distributed the Bible throughout the country. This means that the ministry of early missionaries was more liturgical than "missionizing."

W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labor and sacrifices of the early missionaries, however. Some missionaries even committed suicide due to extreme hardships. Many went back to their own country because of health problem, and others suffered from mental stress. But, because of the self-sacrificing efforts of the missionaries who labored at the time when the sanitary system was poor, and in the land where clothings and foods were strange, the historic, miraculous growth of the church became possible.

But I do believe that we must not fail to be proud of the fact that we were already laying foundations for the Protestant church on our own, and also of the fact that we translated the Bible ourselves and established a church based on the Bible.

Furthermore, as Kwang Soo Lee pointed out, the brilliant monument of our church history is the development of a polit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is respected in Asia, and has exerted an enormous leadership on the nation. With this democratic system, we have also secured an organic structure of the most extensive scale that helped to mobilize Korean people's patriotic energy. The Nevius method of self-independence, self-government, and self-support is the fundamental spirit of the Korean Presbyterianism from the

beginning, and has facilitated the formation and rapid growth of the latter as an indigenous national church.

These strengths were manifest from the year of 1907, when the Korean Presbyterian Chruch was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presbytery. To form one Korean Presbyterian Church with no denominational division was a great decision by America's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the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Canadian Presbyterian Church, and 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State of Victoria of New Zealand. Critically important for this prevention of division were the efforts of Robert Speer, the Secretary of Foreign Mission Board of the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This independent presbytery chose its own faith statements, polity, and form of worship, and committed itself to the implementation of a proper notion of the office of a pastor. It proposed the construction of a school beside each church as an expression of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eduction, and passed a resolution on missions to Che-ju Island, Siberia, Manchuria, and even to Hawaii and Tokyo. This was a thoroughly self-supported missionary work.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missionaries from abroad expected to see Koreans themselves take charge of the leadership of the church in the near future.

II

It was in 1895 that Korean church really began to lay its cornerstone. When the tragic disaster of cholera was raging after the Sino-Japanese War, with the death toll reaching over seven hundred per day, and when even close relatives stayed away from the victims, Korean Christians with the cross sign on their chest took care of the patients and buried the dead after bathing them clean. Such devotion and love made a great impression on Korean people. What is the power of this profound love in Christians? Asked the people, and many of them

were moved and accepted Christianity eagerly. Even a leader of the students of Tong-hak movement accepted the Christian faith, and Byung Hee Sohn predicted that the whole Cho-sun will become a Christian nation at least for a period.

The year of 1895 witnessed the tragic event of the assassination of Queen Min. This caused resentment and pain throughout the nation. Queen Min was "murdered", and King Koh-jong was trembling "pitiably." King Koh-jong's first cry was, "Is there any missionary out there?" Wasn't it a cry asking whether the Christian church was beside him? Mrs. Underwood reports that, when her husband, O.R. Avison, and H.B. Hulbert ran to King Koh-jong with Eung-Ryul Yun, the father of Chi-Ho Yun, King Koh-jong said to them, "May I shake hands with you?" and held their hands firm with tearful eyes. And she states that it was only "these Christians" who provided King Koh-jong with protection and assistance.

The early Christians' unlimited love for people, loyalty to nation and royal court, and commitment to justice and truth all helped to convince other Koreans to be open to the power of the Gospel.

From 1905 the Japanese imperialistic control over Korea became effective as an aftermath of the Russo-Japanese War. In 1910 the Japanese intention to invade Korea that waited for the past fifteen years finally came to reality through the protective rule and the rule of the country by a Japanese governor.

During this period the church became the source of moral encouragement for Korean people's movement of independence. Pyung-yang was called the Jerusalem of the Orient, and the overwhelming portion of the population was converted to Christianity in Sun-cheon and Jung-joo. Uzzida, a spy of Ito-o, reported that all the stores along the streets were closed on the Lord's Days, and that any person who walked out to the street without the Bible under his or her shoulder got "narrow shoulders,"—that is, a posture of shame. Christian youths

of Pyung-yang dispatched the "do-or-die" squad to Seoul; YMCA leadership for the patriotic fighters in Hwang-hae province. The church was the place for tearful prayers; every church in town was hoisting in turn both Christian flag and Tae-keug-gi, our national flag. Only the Christian church dared to hoist the national flag in face of possible persecution. It was the assessment of T.S. Dennis, a world mission historian, that patriotism and love for the people were the most remarkable distinctive feature of the Korean church. He also states that the external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church for sure was the thorough-going national consciousness. Military training at the Christian schools was a commonplace.

But all too destructive was the effect on churches of these military national movements and of the protesting demonstrations against the Japanese regime. The Japanese regime tried to label these activities as "conspiracy" and "civil war" rather than as activities motivated by religious concerns. Many Koreans joined the church not because of purely religious motives, but because they were attracted by the nationwide structure of the church, its forward-looking spirit and national consciousness.

Because American missionaries and conservative Korean churches with their conservative and "pietistic" bent did not yet have a strong social-consciousness, they could not come up with a clear postur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politics. For this reason, already in 1901, they decided on "No political talk in the church." In 1905, the so-called "purification process" of the Korean church was inevitable. Beginning at Wonsan, this movement encouraged reading the portions of the Scriptures that emphasize the communal aspect of church, and gave rise to extensive revival meetings with a strong emphasis on Bible study. Their goal was to return to the pristine faith, stressing the doctrines of the original sin, forgiveness, grace, and the joy of salvation. It was

geared against political involvement. It was directed toward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spiritual dimension in the life of the church. The Great Revival of Pyung-yang in 1907 gave an important impetus to this movement.

It was at this time that the Korean church's tradition of "faith inside and society outside" was established in principle and was systematically settled. The dynamic that enabled such configuration was the "biblical faith" that the church emphasized from the beginning. The size of the revival meeting was always the same as that of the congregation. Sometimes, the former was bigger than the latter. "The church that reads the Bible," or "the church that reads the Bible until it wears out!" This was the first heritage of the Korean church. Some Christian women, as if they were on business trips, carried sleeping bags, clothings, and other necessary provisions, and would sometimes walk 30 miles to attend revival meetings that sometimes lasted seven to ten days. Because these revival meetings often tried to make the most of the winter-break in rural areas, they had to occur in a cold weather. It was in spite of such hardships that the revival movement grew in strength.

III.

The Japanese rule over Korea began to show its effect through the invasion by the Japanese capital and through the domination of the market by Japanese products. This was the policy that was completely opposed to the direction of the Christian church which would promote humanistic and ethical values. The Japanese constitution represented a political agenda with "an imperialistic aristocratic structure." All these circumstances were accompanied eventually by a radical change in Korean society brought about by the disturbances in the traditional idea of family, the change of social milieu due to

women's search for employment, a materialistic way of life, the spread of Darwinism, and even the infusion of socialism.

The Japanese rule over Korea should be understood against this background. For it was in this context that the historic task of our Presbyterian church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was made manifest. The Japanese regime wanted to destroy the Korean church and to remove the source of the inspiration for nationalistic spirit at its core. The Japanese tried to achieve this goal by means of "the event of 105 persons" (1911), the revised regulations for the private schools, and a strict financial policy that sought to use Korea to find a solution to the capital shortage in Japan. The last measure resulted in a scarcity of farmers in Korea. Moreover, the regime was carrying out a cruel plan to disintegrate the spirit and soul of Koreans by means of such inhuman policies as open investment, the monopoly of opium, etc.

Here i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leadership of the Korean Christianity for the March 1 Movement of 1919. The Korean chruch that was solidified as a national church developed a theology with a strong ecclesiology with an emphasis upon its prophetic task. The church could not overlook the evils of the times, and felt constrained to point to what the will of God was. The prophetic church which could not by nature tolerate the military autocracy of the totalitarian regime proclaimed the liveration of the people, and demanded a moral revolution. The church helped to implant the "hope" of providence for the future:

> Though the freezing wind of winter
> May make you disappear today,
> Here is still your spirit
> Dreaming a peaceful dream.
> So I wish you to come back to life
> With the breeze of the balmy spring.

This is the third line of "Pong-sun-wha" (a touch-me-not flower) composed by Nan Pa Hong and Hyun Joon Kim in the fall of the year of the March 1 Movement. Both of them were elders in the church.

The church that was confident about the dignity of our people and the final victory of justice, has left a great heritage. Although only 10 percent of the participants in the March 1 Movement were Christians, 80 per cent of these Christians were inflicted with suffering of some sort. For in the eyes of the Japanese, Korean Christians made up the core of this movement. The power of justice, truth, and faith is a living power, and finds empirical expressions as the church challenges the powers of evil and injustice.

As of May 8, 1919, the twenty-five percent of those who were indicted were Christians, Presbyterians making up the 18 percent. This proportion was the same as that of the Chun-do-kyo. Presbyterians made up the largest proportion among all Christian participants who were indicted.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which provided hope for our people and a vehicle of outcry, and thereby offered a great sacrifice, suffered so great a damage that it took another ten difficult years to recover its denominational strength.

In 1920's Korea was going through a serious social change. Already in 1918, our church judged that the time was drifting with turbulent currents of "industrial revolution." and attempted to take the stance of mission with a social consciousness. It created within the General Assembly the Rural Department (1928). As International Missionary Conference at Jerusalem in the same year dealt extensively with the problems of the Korean rural community, the church published *The Rural Korea* written by Prof. E.S. Brunner. The YMCA movement for co-operative societies at the rural community was accelerated, and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adopted the Social Creed (1932). Thus,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church's social mission went through a rapid change.

This direction of the church also gave rise to various religious movements within the church. It was 1920's and 1930's that marked the glowing heydays of the Korean church's theology and faith. A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forms of faith was issued to the ecclesiastical authorities of Pyung-yang, and its core group was the churches in Seoul area. The separatist movements came to scene sporadically over the areas of Hwang-hae Province and Jeon-ra Province. Anti-ecclesiasticisms, like that of "the biblical Cho-sun" and spiritualistic movements of mystic pietism, were also growing. In Won-san, the monastic, puristic, and mystic movement continued. On the other hand, the unprecedented union movement was being propelled dynamically. The 1920s and 1930s were indeed the period of the most active religious movement of the Korean church. It took various forms, and was generally consistent with anti-Japanese struggle and evangelistic religious consciousness.

However, the Japanese began to suppress this ecclesiastical movement from 1934 on, considering it a form of nationalism. It happened to be in the same year that the Presbyterian church withdrew its membership from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This accelerated the weakening of the church. When the Japanese regime was taken over by the fascistic military regime that took power through a military coup in 1936 and proceeded to start a war with China, it hurried to transform the Korean people into imperial citizens because of the strategic importance of Korea. For this reason the worship of Shinto was imposed. The General Assembly of 1938 decided to consider the Shinto worship a national ceremony, and closed the Rural Department, and the Japanese set about a severe oppression of Christianity through the law of religious organizations (1939).

A lot of Christians took the way of the cross. Many who objected to the Shinto worship were martyred, and others apostatized. Anyway the churches were deeply hurt. More

than two hundred churches were closed; more than two thousand believers were imprisoned, and more than fifty ministers were crowned with martyrdom. All the churches in Korea were forc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Cho-sun denomination of the Japanese Christian Church regardless of its original denomination. The Salvation Army, the Baptists, and the Seventh Day Adventist churches were already being disintegrated because of their eschatological stance. The church as a glorious model seemed to be losing its trace. However, the great hand of God the Judge changed history. There would be no time in which the living God's hand of direct intervention will be experienced ever again in such a way.

IV.

The Day of Independence (August 15, 1945), when Korea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was an amazing historical event which made us see the appearance of God with our own eyes. The excitement over this event was indeed overwhelming.

But church is a community of human beings, and this fact left no other choice than a theological clarification of the understanding of the church as ever in need of reform. When the churches in North Korea were tested by the Communists and were subjected to persecution, our churches in the South began to hold grudges against each other on the issue of atoning the past sins of Shinto worship. Various forms of division began to hurt the church, and as a result disastrous events continued to take place at General Assemblies until just before the Korean War. Everyone found painful the profanation of the 'holy meeting'. Then, as the church continued to be tested by continuous divisio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The damages of the Korean War upon the church were indeed far-reaching. In the case of Presbyterian churches, more than 150 churches were destroyed, and 177 ministers were abducted. When we consider the Won-dang church at Ok-koo in Jeon-ra Northern Province where 73 out of the 75 membership were slain, we can see the degree of the suffering experienced by Christians.

But the division of churches continued without ceasing even in the midst of such a tragedy. In 1953 the division of the Yaejang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nd Kijang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was unavoidable, and the division between Koryo and Christian factions was carried out in 1952. In 1959 the division of so-called Hapdong and Tonghap further injured the image of the church. The division was caused by a difference in their understandings of orthodoxy in theology, preservation of piety, and ecumenism. There were also non-theological factors working behind the scene.

Because of this divisiveness of the churches, many who came to church with a sincere and strong desire for faith and salvation were sometimes disappointed, and sectarian groups began to emerge in large numbers. They appealed to the people who were heart-broken by the war and who experienced the breakup and loss of family. They were callenging the church to examine its insincerity and lack of relevance. This showed that, as long as the church was not faithful in its work of mission,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sectarian groups was as good as ensured, and that the development of non-mainline sects was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steadiness of the church.

Since the beginning of 1970s, the church began to feel an alienation from the ruling power, and was forced into a crisis of serious self-reflection. As it reflected upon itself, it reconsidered the hurts of division from Christological and ecclesiastical perspectives and reaffirmed the missionary task of the church in the midst of such social injustice, alienation and

confusion. There was a serious need for a clear expression of church unity. As a timely response to the need of the time, the Christian Academy in Seoul provided an occasion to talk about it, expanding on the meaning of the church's call to be a reconciliating and mediating body. And on the part of the Presbyterian church, the Tonghap joine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ook a step further in search of unity through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Now the conservative circles that are suspicious of the ecumnical activities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joined "Christian Leadership Council" or the unified frontier of the I.C.C. Nobody is unaware of the necessity of this unity and of the fact that it is essential to the Christian faith. But it seems that the way to a single "national church" is very far and long.

The church can create a sense of unity through its social mission and proclamation of the Gospel rather than through a movement of unity for its own sake. Since the beginning of 1920s the Presbyterian Church with a powerful denominational strength has made indeed amazing contributions to industrial mission, mission to minitary personnel, human rights movement, evangelistic activities, and church growth movement.
ly due to a single cause. The cause is diverse and complex. Here the accomplishment of mission of the church is promised. We must acknowledge that the great accomplishment of our modern church is ultimatel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ho works through various and diverse human instruments. It is not until we realize this that the establishment of a united national Christian church can be promised.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has always maintained its strength which is historically about three times as big as the other denominations. It has always been deeply involved in evangelism, missionary outreach, and theological reflection. It was our church that provided a key leadership in the pro-

phetic mission toward national independence. It has maintained the heritage of a strong attention to the Christian responsibilities in this world without compromising the transcendent dimension of the Christian faith. Numerous martyrs who could not compromise with the Japanese rule came from our church. Our church has tried to hold fast to the principle of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Another precious heritage which our church has handed down to us is the emphasis upon clear ethical consciousness and Christian moral training. Our church has tried to reform the church by means of its strict discipline. This heritage transmits a great responsibility to us, all the Presbyterians. According to Kwang Soo Lee, "the Christianity has been a great benefactor for the history of Cho-sun civilization." But our first task has been always to give glory to God. And we should cherish the profound mystery that it is precisely this God-centered faith and discipleship which enabled the Korean church to make important contributions to Korean civilization and to the wider world.

한국 선교 100년 약사

마 삼 락 (Samuel Hugh Moffett)

한국의 효과적 복음화를 위하여 최초로 기여한 사람들은 한국인 자신들이었다. 예수회 종군신부 세스뻬데스 (Ces- pedes, 1592)와 독일 경건주의 선교사 카알 구츨라프 (Karl Gutzlaff, 1832)와 1866년도 평양에서 순교한 웨일즈의 조합교회 선교사 R. J. 토마스(Thomas) 목사 등의 외국인에 의한 초기의 신구교 선교는 지속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보다 일찌기 A. D. 635년 중국에 이른 페르시아 네스토리안의 선교사가 한국에 다다랐다는 데는 역사적 증거가 없다.

〈천주교의 선교시기(1784-1884)〉

천주교는 유학자 이 승훈이 북경의 천주교 선교사를 찾아 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1784년 고국에 복음을 가져오므로써 비로소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는 선교사가 "은자의 나라"에 들어 올 수 있기 십년전의

일이다.

그는 중국에 파송된 저 위대한 17세기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쓴 책을 하나 발견한 친구들에게서 파송을 받았다. 이 승훈은 자기가 받아들인 신앙을 불완전하게 밖에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이 신앙을 열심히 전파하였다.

십년 후 1794년에 북경의 주교는 자라나는 교회를 보다 잘 교육시키기 위하여 중국인 신부 주 문모를 보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온 첫번째 외국인 선교사였다. 세스뻬데스라는 외국인 신부가 16세기에 잠깐 다녀간 것이 사실이지만 엄격히 말해서 세스뻬데스는 한국 사람들에게 파송된 선교사는 아니었다. 그는 히데요시의 일본 침략군과 동반한 신부였다. 주 문모의 초기 제자 중에는 경기 지방의 광주 정씨 집안과 같은 당대 가장 유명한 유교 집안에 속한 이들이 있었다. 실학파의 선구 정 다산과 그의 동생 정 약종 둘 다 새로운 신앙에 호감을 가졌다. 그러나 유교의 보수파들은 이를 역적행위로 비난하였다. 1801년 핍박에서 주 문모와 정 약종 둘 다 순교를 당하였다. 정 약종보다 더 유명한 형 다산이 정작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

그무렵 서양인 신부로는 아무도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최초로 삐에르 모방 (Pierre Maubant) 신부가 1835년 압록강을 건너 성벽 하수구를 통하여 의주로 몰래 잠입하였다. 모방 신부는 1839년에 순교하였다. 마침내 큰 박해가 1866년 섭정 대원군 하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아마 이천 명이나 되는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였다. 그러나 거의 백년에 걸친 핍박에도 불구하고 1882년 한국이 마침내 외부세계에 문호를 개방하였을 때 한국에는 약 17,000명이나 되는 천주교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의 시작(1832-1893)〉

천주교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개신교인들에게도 일어났다. 개신교의 최초 상주 선교사가 입국하기 만 일년전에 만주에 있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들로부터 전도를 받은 상인 서 상륜은 자기 고향땅에 돌아와 최초의 개신교신자 모임을 형성하였다.

그보다 일찌기 1832년에 중국으로 파송된 독일 선교사 카알 구츨라프(Karl Gutzlaff) 목사가 한국의 서해안의 도시를 탐험한 적이 있었으며 이어서 1865년 웨일즈 조합교회 목사 로버트 J. 토마스가 처음으로 한국에 폭넓은 신교 선교를 시도하려고 하였다. 그 해에는 한달간 한국에 다녀와서 약간의 언어만을 배우고 돌아갔다가 다음해 불운의 제너럴 셔어만 호로 돌아왔는데, 이 배가 평양에서 습격을 받아 불에 타고 탑승사 선원이 살해되었다. 이때 토마스 목사가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몇 권의 중국어 성경을 건네줄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시도 중 그 어떤 것도 영구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서 상륜이야말로 선구적 개신교 전도자였다. 그는 만주에서 존 로스(John Ross) 와 존 맥킨타이어(John MacIntyre)를 도와 성경의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하였으며, 1883년 상당한 모험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성경을 들여왔다. 옹진 반도의 그의 집이 이 나라의 최초의 신교 "가성교회"였다.

최초의 상주 신교 외국인 선교사는 일년 후 1884년에 입국하였다. 이 사람이 그때 9월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출된 장로교 의사 호레이스 알렌(Horace Allen) 박사였다. 그의 의술은 왕자의 생명을 구하였고, 공공의 전도는 아직 금지되었지만 그는 보상으로 1885년 병원(현재 세브란스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이것이 최초로 한국에 세워진, 합법적으로 인정된 기독교 단체였다.

최초의 개신교 목사들이 곧 뒤이어 1885년 4월에 도착하

였는데 장로교의 호레이스 G. 언더우드(Underwood)와 감리교의 헨리 G. 아펜젤러(Appenzeller)가 곧 이들이다. 언더우드는 1886년에 한국 안에서 최초로 한국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1887년 서울에 최초의 개신교 교회(현재 새문안교회)를 조직하였다. 몇주 후 아펜젤러는 현재 정동교회의 자리에 최초의 감리교 공중예배를 인도하였다. 그는 이미 1886년에 한국 최초의 기독교 학교로 배재학당을 조직하였다. 그 초기 학생 중에는 후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씨도 들어있었다. 기독교의 적극적인 진전으로 1887년 감리교의 스크랜톤(Mrs. Scranton)여사에 의하여 한국 최초의 여학교로 이화학당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비록 복음에 대한 조건적인 문호는 열리게 되었지만 마포 삼열(Samuel A. Moffett)이 1892-3년 북녘땅에 상주하기까지는 (Treaty Ports 를 제외한 지역은) 국내는 아직도 상주 선교는 봉쇄되어 있었다. 평양은 곧 기독교 팽창의 중심이 되었다.

〈한국교회의 성장(1894-1910)〉

한국의 개신교 성장이 당시의 기독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관의 진보를 시작한 것은 약 1895년부터 저 서북부에서이다. 이것은 1907-08년 한국 대부흥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한국의 개신교 신도수는 1890년의 약 200명에서 1905년에 5만, 그리고 1909년에는 20만 이상으로 도약하였다. 물론 등록교인 수는 훨씬 적었는데, 그 이유는 입교표준이 개신자에게 보통 일년 내지 2년 이상의 예비교육을 요구하는 아주 엄격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한국교회를 성장하게 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이는 이것이 이 당시의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체제의 붕괴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일본의 군사적 영향이 중국의 영향을 대체하였으며 민비는 살해되었고 500년 역사의 이씨

왕조가 붕괴하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종전의 기반이 해체되면서 유교와 불교 등 한국의 옛 종교에 대한 신뢰가 줄고 보다 원시적인 토속신앙은 특권을 잃기 시작하였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확고한 소망과 영원한 기반을 약속해 주는 신앙에 대한 때가 무르익은 것으로 보였다.

어떤 이들은 개인적 안락보다는 국가재건의 소망 때문에 새 신앙을 찾았다. 기독교 학교들은 문화적으로 혁명적일 정도로 이질적이었다. 이들은 최초로 여학생을 받고 수학과 과학, 음악, 심지어 체육 등 서구 학문의 흥미로운 새 분야를 도입하였다.

또한 중요한 일은 장로교인들이 교회의 토착화를 위한 성공적 선교전략으로 독립적인 민족교회의 자치, 자급, 자신 전도의 지도력을 요청한 "삼자"의 방안인 네비우스 방법을 채택한 일이다. 이는 광범위하게 조직된 성경공부 모임에 의한 모든 신자를 위한 성경공부의 강조로 시작되었다. 1901년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에 조직되어 목회를 위한 전문적 훈련을 시작하였다.

한국 교회 조직의 시초는 아주 초교파적이었으며 이 또한 초기 성장에 공헌하였다. 네 가지 다른 장로교 선교부(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와 카나다 장로교)는 자기의 본국의 구분을 버리고 함께 힘을 합쳐 한국에 유일한 하나의 장로교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일찌기 1889년 그들은 후에 장로교 공의회로 불리우게 된 상호 선교 협동의 선교 기구를 설립하였다. 이는 자라나는 한국의 기독교 공동체가 전국적인 한국교회를 구성할 수 있을 날을 기다리며 실로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교단으로 시성하지 않기로 한 임시적 "개척교회"로서 제한된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1892년까지 선교협동을 위한 열심은 신조의 경계를 넘어서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한반도를 비경쟁적 지역적 영향권으로 분할하기로 하는 한 협정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일찌기 1889년 각 선교부는 문서와 전도사역을 위하여 그들의

재능과 재원을 모았으며 현재 대한 기독교 서회의 전신인 대한 문서선교회(Korean Religous Tract Society)를 구성하였다. 학교와 병원 일에서도 장로교가 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한국 최초의 학교인 유니온 기독교대학 (Union Christian College), 즉 숭실대학(현재 숭실대학)을 1905년에 설립하는 데에 감리교가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 때와 같이 개신교 선교협동이 교파의 벽을 넘어섰다. 1904년 알렌 박사의 국립병원의 성장으로 구성된 세브란스 병원과 조선 기독교 대학(1915)은 둘 다 초교파적 협력사업이었으며 이 둘은 현재의 연세대학으로 합병되었다.

연합의 열기가 무르익었던 때는 1905-6년이었는데, 이때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대한 기독교회라고 불리울 단일의 대한민족 교회" 설립을 위한 준비로 단일 개신교 교단 형성을 지향하기 위하여 당시 한국에 활동 중이던 6개 주요 선교부를 복음주의 선교부 통합 공의회에 참여시켰다. 이것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목표이었으나, 그때부터 우호적 협력이 각 교단 사이에 이루어져 그후에도 계속되었다.

장로교 신학교가 7명의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한 1907년, 한국 목사와 장로의 수가 선교사의 수를 처음으로 능가하였을 때 선교부는 교회를 한국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함께 하나의 통합된 장로교를 구성하였다. 새 교회는 신학교의 창시자요 학장인 마포 삼열 선교사를 첫번째 노회의 초대 노회장으로 추대하였다.

그동안 호주 장로교(1889), 독립침례교(1889), 성공회(1890), 미국 남장로교(1892), 미국 남감리교(1896), 가나다 장로교(1898), 제칠일 안식교(1903) 등 다른 개신교 선교부가 선구자적인 북장로교와 감리교의 본을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1907년 동양선교회(현재의 국제 O.M.S. 선교회)의 어네스트 A. 킬번(Armest A. Kilbourne)과 찰스 카우만(Charles Cowmans) 집안이 전도집회를 위하여 한국에 왔는데 이 전도집회에서부터 한국의 세번째로 큰 신교교단인 성결교가

성장하였다. 1908년에는 구세군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초대 교회성장의 극치를 장식한 것은 1907-08년의 대부흥이었다. 그 뛰어난 지도자가 바로 초대 7인 한국 목사 중 하나로 안수받은 장로교의 전도자요 성경선생인 길 선주 목사이다. 그것은 성결케 하는, 또 하나되게 하는 부흥이었다. 사람들은 지난 죄를 회개하고 묵은 삶못을 수정하고 교파의 구분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한국사람들이 후에 선교사들에게 한 말을 빌면 "여러분 중 어떤 이는 요한 칼빈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또 여러분 중 어떤 이는 요한 웨슬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음으로 신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1907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읍니다." 선교사와 한국인 모두 교회 성장의 제일차적 요인이 성령의 역사와, 신실한 성경공부와, 기독교 복음전파에 선두를 선 한국 평신도의 복음적 열심에 있다고 본다.

〈압박의 시대(1910-1960)〉

그러나 1910년 결국 한일합병이 된 후 얼마동안, 일제의 지속적 탄압으로 교회성장은 현저히 저하되었다. 일제는 1912년의 조작된 음모재판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을 연루시키려고 하였고 한국 귀족과 감리교 교육자 윤 치호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을 투옥시켰다. 교회는 일제가 통제할 수 없었던 유일한 조직체였다. 정치적 압박은 그 수적 성장에 심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 내적 활력과 조직은 강화되었고 나라 안에서 그 인기와 특권은 전체적으로 크게 증진되었다.

1907년에 자치적 한국노회를 조직한 장로교인들은 다른 노회들을 늘리고 1912년 총회를 조직하고 한국의 선구적

장로교 목사 호레이스 G. 언더우드를 초대 총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북감리교인들은 1908년에, 남감리 교인들은 1918년에 한국 연회를 각각 조직하였으나 1930년에 이르러 두 연회가 독자적으로 "순수한 기독교, 진실한 감리교, 정말로 한국적"인 대한 감리교로 연합되었다. 그 이듬해인 1931년 한국 감리교는 그 첫번째 한국인 감독 양주삼 목사 하에서 14명의 미국 선교사에 이어 한국에 최초로 여성을 목사로 안수하였다.

1912년 한국 복음주의 선교부 통합 공의회는 불미스러운 교파 경쟁을 피하고 그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그 명칭을 개신교 복음주의 선교부 통합 공의회로 바꾸었다. 한국 교단의 수가 증가되면서 1919년 교회 및 선교부 통합공의회가 조직되었고 1929년 전국 교회 연합 공의회(N.C. C.)로 다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이는 마침내 대한 교회 연합공의회(K. N. C.C.)가 되면서, 구성원의 자격을 민족교단에 제한하고 선교단체들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통치의 압박으로 한반도 기독교 발전은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 기독교 학교가 그 일차적 영향을 받았다. 종교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점점더 정부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되었다. 1919년 한국인의 애국정신과 기독교의 자유에 대한 열정이 합하여 현대에서 가장 감명적인 국가 독립을 위한 비폭력 민중항거가 일어났다. 대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이는 당시 국민의 오직 3%가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였다.

1930년대에 다시 교회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강압을 느끼게 되었다. 제국을 아시아 전역의 정복을 위한 전투체재로 단합시키기 위하여 일제는 일본 종교인 신사참배를 모든 제국 시민에게 강요하려고 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이에 반대하여 심한 처벌을 받았고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였다. 모든 선교사들이 1941년 말까지 축출당하였다.

한국인들은 1945년 일본의 패배와 나라의 해방을 말할수

할 수 없는 감격으로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환희는 남북한의 임의적 분단, 그리고 1950년의 난격적인 공산주의 침략에 의해 단절되었다. 북한에서 교회는 멸절당하거나 지하로 밀려났다. 남한에서는 교회가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하였지만, 1950년대는 비극적 교회분열의 시대였다. 아마도 그 혼란한 시대의 정치적·사회적 불안의 결과로 한국 개신교의 거의 모든 주요 교단이 분열의 괴로움을 당하였다.

〈전후복구(1960-)〉

그러나 분열과 전쟁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선도와 성장의 힘을 한번도 잃지 않았다. 처음부터 한국 기독교인들은 먼저 자기 민족에게 또 세계에 선교와 전도를 해 온 사람들이다. 1907년 최초의 한국 장로교 목사가 된 7인 중 하나가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또 시베리아 선교(1909)와 일본 선교(1909)와 만주 선교(1910)를 시작하였다. 그 다음 한국 기독교인들은 1910년 감리교에서, 1912년 또 장로교에서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선교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태국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아라비아에서 로스엔젤레스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되면서 전세계가 한국 교회의 선교지가 되었다.

세계 기독교 선교는 현재 한국에서는 완전히 쌍방통행의 운동이다. 한국이 자체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반면, 남침례교, 복음주의연합선교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와 여러 오순절 교파, 나사렛교, 미주리 루터교와 여러 다른 교파 등 새로운 외국인 선교단체가 전후 무수히 한국에 들어왔다. 1984년 한국선교 기도 달력은 한반도 이남에 일하고 있는 56개의 각종 개신교 선교단체를 나열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성장은 세계 기독교 선교를 관찰하고 있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경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40년

이후 10년마다 개신교 공동체는 그 신도수를 배가하는 데에에 이르고 있다. 1940년 보고된 개신교 신도수는 37만 밖에 되지 않았다. 1981년 문화 공보부는 한국 기독교인 수를 9,076,000 (개신교 7,637,000와 천주교 1,439,000)으로 보고하였다. 통일교나 전도관 등과 같은 이단종파를 제외시키면 개신교도의 수는 6,800,000에 아주 근접한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인의 실제 수가 얼마이든지 급속 성장은 새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외적 핍박하에서 그토록 용감히 견디왔던 것과 같이 내적 풍요의 권력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한국 기독교 역사는 한국 교회가 이를 이겨나갈 것이라고 증언한다.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 기독교는 제3세계의 최대최강의 기독교 공동체 중 하나이다. 그만큼 복음적 생활과 선교에서 한국 기독교의 책임은 더욱더 중차대한 것이다.

1984년 8월
프린스톤에서
사무엘 H. 마펫

(숭전대-박물관 목록에서 증보 개정)

Missions to Korea: A Brief Summary

Samuel Hugh Moffett

Koreans themselves were the first effective evangelists to their own country. Earlier foreign missions, both Catholic and Protestant, left no lasting results, notably those of De Cespedes, a Jesuit chaplain (1592), Karl Gutzlaff, a German pietist (1832), and R.J. Thomas, a Welsh Congregationalist, who was martyred in Pyongyang in 1866. There is no proof in history that the more ancient Nestorian missions from Persia which reached China as early as 635 AD ever had contact with Korea.

The Catholic Century (1784-1884)

Catholicism took root in Korea only after a Confucian scholar, Yi Seung-Hoon, sought out Catholic missionaries in Peking and was baptized as Peter Lee to carry the gospel back to his homeland in 1784, ten years before a missionary was able to penetrate the "Hermit Kingdom". He had been sent by a group of friends who had discovered a copy of a book by Matthew Ricci, the great 17th century Jesuit missionary to China. Yi only imperfectly understood the faith he had embraced but passed it on with zeal.

Ten years later, in 1794, the bishop in Peking sent a Chinese priest, James Chu, to better instruct the growing church. He was the first foreign missionary in Korea. It is true that one foreign priest, De Cespedes, had come briefly in the 16th century but De Cespedes was not, strictly speaking, a missionary to Koreans. He was a chaplain with the invading Japanese troops of Hideyoshi. Among Chu's early followers were members of one of the most famous Confucian families in the land, the Chung family of Kwangju, in Kyonggi province. Chung Ta-San, a leader of the Silhak school, and his younger brother, Chung Yak-Jong, were both attracted to the new faith. But Confucian conservatives denounced it as treasonable. In the persecution of 1801 both James Chu and Chung Yak-Jong suffered martyrdom.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more famous older brother ever actually became a Christian.

Still no western priest had reached Korea as a missionary. The first was Father Pierre Maubant who crossed the Yalu and crawled secretly into the city of Euiju through a sewer drain in the wall in 1835. Father Maubant was martyred in 1839. The last great persecution was in 1866 under the Regent, the Tae-won-gun, when perhaps as many as two thousand Catholic believers died for the faith. But despite almost a hundred years of harassment and persecution, in 1882 when Korea finally began to open its doors to the outer world there may have been as many as 17,000 Catholics in Korea.

Protestant Beginnings (1832-1893)

As with the Catholics so also with the Protestants. It was a Korean merchant, Suh (or So) Sang-Yun, converted by Scottish missionaries in Manchuria, who gathered the first group of Protestant believers together in his home village a whole year before the first resident Protestant missionaries were able to enter the country. Earlier, in 1832, a German

missionary to China, the Reb. Karl Gutzlaff, had explored some of Korea's western islands. And in 1865 the Rev. Robert J. Thomas, a Welsh Congregationalist was the first to attempt an extended Protestant mission in Korea. He came that year for a month, learned a little of the language, and returned the next year on the ill-fated General Sherman which was attacked, burned and all aboard killed at Pyongyang. It is said that he managed to hand some Chinese Scriptures to the man who killed him.

But neither of these early attempts produced permanent results. Suh Sang-Yun was the pioneer Protestant evangelist. He had helped John Ross and John Macintyre in Manchuria translate Scripture portions into Korean, and then in 1883 brought the Scriptures at considerable risk into Korea. His own home in the Ongjin peninsula was the first Protestant "house church" in the land.

The first resident Protestant foreign missionary came a year later, in 1884. He was Horace Allen, M.D., a Presbyterian physician who transferred from China to Seoul, Korea, in September of that year. His medical skill saved the life of a royal prince and though public evangelism was still prohibited he received as his reward permission to open a hospital in 1885 (now Severance Hospital), the first legally recognized Christian institution in Korea.

The first Protestant clergymen followed soon after, arriving in April 1885; Horace G. Underwood, a Presbyterian, and Henry G. Appenzeller, a Methodist. Underwood performed the first baptism of a Korean inside Korea in 1886 and organized the first Protestant church (now Saemoonan Church) in 1887, in Seoul. A few weeks later Appenzeller held the first Methodist public service in what is now the Chungdong Church. He had already organized Korea's first Christian school, Paichai Academy, in 1886. It numbered among its early students Syngman Rhee, later to become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 dramatic Chris-

tian breakthrough was the opening of Korea's first school for girls, Ewha Academy, by the Methodist, Mrs. Scranton, in 1887.

But though the treaty ports had thus been opened to the gospel, the interior was still closed to missionary residence until Samuel A. Moffett moved permanently into North Korea in 1892-3. Pyongyang soon became the center of Christian expansion.

The Rise of the Korean Church (1894-1910)

It was up in the northeast, beginning about 1895, that Protestant chuch growth in Korea began a spectacular advance unmatched in the Christian world of that time. It reached a climax in the Great Korean Revival of 1907-08. The number of Protestant adherents in Korea leaped from a couple of hundred in 1890 to 50,000 in 1905 and to more than 200,000 in 1909. Communicant membership, of course, was much lower, for admission standards were very strict usually requiring a year or more of supervised preparation for new converts.

What made the Korean church grow? Some attribute it to the crumbling of Korean political and social institutions in this period. Japanese military influence supplanted the Chinese. Queen Min was murdered. The 500-year-old Yi dynasty fell, and Korea became a colony. As the old foundations disintegrated, confidence in Korea's old religions, Confucianism and Buddhism, waned and the more primitive native faiths began to lose prestige. To many Koreans it seemed that the time was ripe for a faith that promised solid hope and eternal foundations.

Some turned to the new faith not as much for personal comfort as for hope of national renewal. Christian schools were culturally revolutionary and different. They were the first to enroll girls and to introduce exciting new fields of western learning such as mathematics and science, music, and even athletics.

Also important was the adoption by Presbyterians of a successful missionary strategy for church planting, the Nevius, or "three-self" plan, which called for self-governing, self-supporting and self-propagating leadership of an autonomous national church. It began with emphasis on Bible study for all believers in widely organized Bible classes. In 1901 the first seminary was organized in Pyongyang for specialized training for the ministry.

The beginnings of church organization in Korea were emphatically ecumenical, and this too contributed to the early growth. The four different Presbyterian missions (northern and southern U.S.A., Australian and Canadian) agreed to drop their home-base divisions and join together to form only on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For this purpose, as early as 1889 they established a missionary organization of inter-mission cooperation that came to be called the Presbyterian Council. It was to function in a limited way as a temporary "mission church" which quite purposefully chose not to call itself a denomination, waiting for the day when the growing Korean community of Christians could form a nation-wide Korean church.

By 1892 enthusiasm for missionary cooperation overleaped confessional boundaries and brought Methodists and Presbyterians into a comity agreement to divide the peninsula into non-competitive geographical spheres of influence. And as early as 1889 the missions had pooled their talents and resources for literary and translation work and had formed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now the Korean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In schools and hospitals, as well, Protestant missionary cooperation overcame denominational barriers, as when Presbyterians welcomed Methodist participation in the foundation of Union Christian College (Soongsil, now Soongjun University) in 1905, the first school in Korea to grant college degrees. Severance Medical Hospital, formed in 1904 as an outgrowth of Dr.

Allen's Royal Hospital, and Chosen Christian College (1915), were both ecumenically cooperative ventures and are now combined as Yonsei University.

The high tide to union was the year 1905-6 when Presbyterian and Methodist missionaries, preparing for the establishment of "one Korean National Church, to be called the Church of Christ in Korea," brought the six major missions then at work in Korea into a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to aim toward the formation of a single national Protestant denomination. It was a goal never realized, but friendly cooperation continued among the separate denominations that began to form from that time on.

In 1907 when the Presbyterian seminary graduated its first class of seven men, and for the first time the number of Korean ministers and elders outnumbered the missionaries, the mission turned over the church to the Koreans and together they formed a united, independent Korean Presbyterian Church. The new church courteously elected a missionary, S.A. Moffett, founder and president of the seminary, as the first moderator of the first Presbytery.

Meanwhile other Protestant missions had entered Korea in the wake of the pioneering northern Presbyterians and Methodists: Australian Presbyterians (1889), Independent Baptists (1889), the Church of England (1890), southern Presbyterians, U.S. (1892), Southern Methodists, U.S. (1896), Canadian Presbyterians (1898), and Seventh Day Adventists (1903). In 1907 Ernest A. Kilbourne and the Charles Cowmans of the Oriental Missionary Society (now OMS International) came to Korea for evangelistic meetings out of which grew Korea's third largest Protestant denomination, the Korean Evangelical Church. The Salvation Army entered in 1908.

But more than anything else it was the great revival of 1907-08 that capped the climax of that early church growth.

The outstanding leader was the Presbyterian evangelist and Bible teacher, the Rev. Kil Sun-Ju, who had just been ordained as one of the first seven Korean ministers. It was a cleansing, uniting revival. People confessed past sins and made right old wrongs and reached out across denominational divisions. As Koreans said afterward to the missionaries, "Some of you go back to John Calvin, and some of you to John Wesley, but we can go back no farther than 1907 when we first really knew the Lord Jesus Christ." Both missionaries and Koreans gave primary credit for growth in the church to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o faithful study of the Bible and to the evangelistic enthusiasm of Korean laymen and laywomen as the cutting edge of Christian outreach.

The Years of Pressure (1910-1960)

For a while, however, after the final Japanese annexation in 1910, constant government harassment slowed the growth of the church perceptibly. A trumped-up conspiracy trial in 1912 tried to implicate the foreign missionaries and jailed scores of Korean Christians, including the Korean nobleman and Methodist educator, Yun Tchi-Ho. The Church was one structure that the Japanese could not control. Political pressure did affect its numerical growth. But its inner life and organization strengthened and its popularity and prestige in the nation as a whole was greatly advanced.

The Presbyterians who had formed an autonomous Korean presbytery in 1907, added other presbyteries and organized a General Assembly in 1912, electing Horace G. Underwood, the pioneer Presbyterian clergyman in Korea as the first Assembly moderator. Northern Methodists formed a Korea Conference in 1908, and the Southern Methodists in 1918, but it was not until 1930 that the two conferences became independently Korean and united as the Korean Methodist Church "genuinely Christian, truly Methodist

and really Korean." In the next year, 1931, the Korean Methodists, under their first Korean bishop, Ryang Ju-Sam, were the first to ordain women to the ministry in Korea, beginning with fourteen American missionaries.

In 1912 the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enlarged its function of avoiding unseemly denominational competition and changed its name to 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As more Korean denominations were organized, the Federal Council of Churches and Missions was formed in 1919, changing its name again in 1929 to 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 (NCC), and eventually to 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KNCC), thus narrowing membership to national church denominations and excluding missions and parachurch organizations.

But the imposition of Japanese colonial rule seriously checked Christian advance in the peninsula. Its first effects were felt in the Christian schools. The teaching of religion and the Bible was increasingly limited by the government. In 1919 Korean patriotism and Christian passion for freedom combined to touch off one of the most moving non-violent mass demonstrations for national independence in modern times. Of the 33 men who signed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6 were Christians. This was almost half of the total, though only 3% of the country was then Christian.

Again in the 1930's the church felt the hard hand of Japanese colonial pressures. In an effort to bind the empire into a fighting force for the conquest of all Asia, the Japanese tried to force the national religion, Shinto worship, on all subjects of the emperor. When Christians objected they were severely punished, sometimes martyred. All missionaries were forced out by the end of 1941.

Koreans greeted the defeat of Japan and the liberation of their country in 1945 with delirious joy. But they rejoicing was cut short by the arbitrary division of the peninsula,

north and south, and the pulverizing communist invasion of 1950. In the north the church was wiped out or driven underground. In the south church growth once again soared upward. But the 1950s was a decade of tragic church division. Perhaps as a result of the military and social instability of those troubled times almost every major Korean Protestant denomination was racked by schisms.

Post-War Recovery (1960-   )

But through divisions, wars and persecutions the Korean churches have never lost their capacity to witness and to grow. From the beginning Korean Christians have been reaching out in mission, first to their own people, and then to the world. One of the first seven Koreans ordained to the Presbyterian ministry in 1907 was sent as a missionary to Cheju Island, and missions to Siberia (1909), Japan (1909) and Manchuria (1910) followed. Then the Methodists in 1910 and the Presbyterians in 1912 undertook Korean missions to the Chinese in China. After World War II the whole world became a mission field for Korea's churches as their missionaries spread from Thailand to Ethiopia and from Arabia to Los Angeles.

The world Christian mission is now fully a two-way movement in Korea. As Korea sent out its own missionaries, new foreign mission groups entered Korea after the war in great numbers: Southern Baptists, 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a number of Pentecostal bodies, Nazarenes, Missouri Lutherans and many others. The 1984 Prayer Calendar of Missions in Korea lists 56 different Protestant missions at work in the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Meanwhile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never ceases to amaze observers of the world Christian mission. In every decade since 1940 the Protestant community has come close to doubling its membership. In 1940 there were only 370,000

Protestant adherents reported. In 1981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reported 9,076,000 Korean Christians (7,637,000 Protestants and 1,439,000 Roman Catholics). If heterodox groups like the Unification Church and the Olive Tree Cult are excluded, the Protestant figure is nearer 6,800,000.

But whatever the actual number of Korean Christians may be, rapid growth creates new problems. Will Korea's Christians be able to survive the temptations of internal affluence and power as they have stood so bravely under external persecution? If their history under God is any guide, they will. But this much, at least is without doubt; they stand as one of the largest and strongest Christian communities in the third world. So much the more demanding are their responsibilities in Christian life and mission.

Samuel Hugh Moffett
Princeton, New Jersey
August, 1984.
(Enlarged and revised from Soongjun Univ. Museum Catalogue)

재미 한인 교회

유 효 근

재미 동양인 사회에서 특히 중국인과 한국인을 상대로 하여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다. 중국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식당을 열고 한국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재미 한인 교회가 교포사회와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저자는 북미합중국 장로교회의 한국 선교 백주년을 보람있게 기념하자는 의도에서 재미 한인 교회의 발전, 재미 한인 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대미 한언 교회가 취하여야할 방향을 이 지면을 통하여 평론코저 한다.

I. 재미한인교회의 발전

재미 한인 교회의 발전은 세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가지의 시기를 통하여 어떤 역사

적인 사건이 한인들로 하여금 미국으로 많이 이민 오게 하였기 때문이다.

첫 시기는 1900년 부터 1944년 동안을 말한다. 이 시기에 재미 한인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세워진 재미 한인 교회는 호노루루에 세워진 한인 감리 교회로 이는 1903년에 홍 성하 목사의 지도로 한인 전도회로 시작이 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미 한인 교회가 한동안 많았을때는 39개의 교회들이 하와이에 있었고 8개의 교회들이 미국본토에 있었다고 한다. ① 워싱톤디시에 있는 한인 감리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재미 한인교회들은 1925년 전에 세워졌다.

이 시기에 재미 한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는 1903년 부터 1905년 사이에 우리 교포들이 많은 숫자로 처음으로 하와이에 이민 오게 된 것으로 계기가 되였다. 이 삼년 사이에 7,226명 즉 6,048명의 남자, 637명의 여자 그리고 541명의 아이들이 이민으로 왔다고 보고되어있다. ② 이들은 당시 한국에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선교사의 알선으로 하와이의 설탕농장에 일하러 왔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약 2,000명은 그후 미국본토로 건너가 철로 공사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③ 1910년 부터 1924년 사이에 소위 사진 신부로 1,1000명의 한국 여성들이 즉 951명은 하와이로 115 명은 미국본토로 이민하였다. ④ 그리고 1910 년에 본국이 일본제국주의 정부에 의하여 일본과 합병되자 약 900명의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미국에 건너왔다. ⑤ 그들은 대부분이 재미 한인 교회들과 보국의 독립운동을 위한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이 시기에 세워진 교회로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다 :

1) 호노루루 한인 감리교회 (창설 1903년) ;
2) 호노루루 한인 감독교회 (창설 1905 년) ;

3) 호노루루 한인 기독교회 (창설 1908년);
4) 나성 한인 감리교회 (창설 1904년);
5) 상항 한인 감리교회(창설 1906년);
6) 나성 한인 장로교회(창설 1906년);
7) 리드리 한인 장로교회 (창설 1919년);
8) 뉴욕 한인 감리교회 (창설 1921년);
9) 쉬카고 한인 감리교회 (창설 1924년);
10) 워싱톤 디시 한인 감리교회 (창설 1942년);

둘째 시기로 재미 한인교회의 발전은 1945년 부터 1964년 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 한인들로 하여금 미국에 많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계기는 1945년에 한국의 해방이며 특별히 1950년 부터 1953년 사이에 일어난 한국동란 이다. 한국의 해방은 한국의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국에 유학할 수 있게 하였고 한국동란은 많은 숫자의 고아들로 하여금 양자로 그리고 많은 수의 한국 여성들이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에 이민올 수 있게 되였다.

이 시기에 재미 한인 교회는 점점 늘어나는 한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발전되였다. 1946년 부터 1950년 사이에 미국에 들어온 한인 유학생들의 통계는 알려져 있지않다. 그러나 1951년 부터 1960년 사이에 6,231명 그리고 1961년 부터 1964년 사이에 7,796명의 한인들이 미국에 들어왔다고 미국 이민귀화국은 보고한다. 이처럼 증가하는 한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그때까지 한인 교회가 없었든 보스톤과 필라델피아 그리고 디트로이트 도시에는 한인교회가 새로 세워지게 되엿고 쉬카고, 나성, 뉴욕 그리고 와싱톤 디시 에는 한인 교회가 하나씩 더 세워지게 되였다.

셋째 시기로 재미 한인 교회의 발전은 1965년 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 재미 한인 교회는 양적으로 급속도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이민과 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 이 1965년에 개

정되여 그때까지 어떤 특수민족에게만 허락되였든 할당제도를 취소하고 아무 민족에게나 이민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인들이 해마다 백명밖에 이민으로 들어올 수 없었든것이 이법이 개정된 후 1965년 부터 1974년 즉 10년 사이에 통계를 보면 십일만 천 팔백 팔십팔명의 한인들이 이민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였다. 1975년 부터 1982년 까지의 통계를 보면 연평균 이만 오천명 이상의 한인들이 미국에 이민으로 들어온다고 이민귀화국은 보고 한다.

1974년에 미국 연합 장로교회에 소속된 한인 장로교 협의회는 재미 한인 교회의 목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본토 안에 재미 한인 교회의 통계는 293으로 목사의 수는 523명으로 보고되였다. 이와 같은 통계는 95프로 이상의 재미 한인 교회가 1965년 부터 1974년 즉 10년 사이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 이글을 쓰고 있는 현재로는 약 1200개의 한인 교회들이 미국본토에서 활동하고 있음이 추측된다.

Ⅱ. 재미한인교회에 대한 기대

위에 기술된 재미 한인 교회의 발전상황은 두가지의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는 재미 한인 사회가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미 중국인과 일본인 사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으로 1903년 부터 1905년 사이에 처음으로 한인들이 집단 이민을 하여 정착하게된 하와이의 호놀루루를 위시하여 그후 한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마다 한인회나 상조회 보다도 기독교회가 먼저 조직이 되여 단체생활의 중심처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재미 한인교회의 증가는 한인교포의 인구증가와 정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에 의하면 재

미한인교회는 교포인구의 500내지 700 명을 상대로 하여 하나씩 늘어 가고있다. 이 두가지의 사실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이는 한인교포들이 미국에 이민으로 와서 살면서 한인교회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볼때 미국사람들은 교회를 흔히 친구나 이웃을 만나보는 하나의 장소로 기대하고 찾아오는데 비하여 한인교포들은 재미한인교회를 그들이 가족의 연장, 그렇치 않으면 그들의 가까운 친구처럼 기대하고 찾아온다.

한인교포들이 한인교회에 대하여 이처럼 특별한 기대를 갖게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한국의 근대사를 들여다 볼때 한인교회가 왜정의 식민지 정책으로 부터 모국을 독립시키며 해방이후 모국을 근대화 시키는데 선견적인 지도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여러 사회단체들 중에서 교회만이 필요시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재미한인사회의 역사를 들여다 볼때 1903년 부터 1944년 동안 나라없는 백성으로 미국에 이민으로 와서 살게되였을때 그들은 그당시 미국의 국법으로 기본인권의 보장없이 동양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할때 이를 극복하면서 살아야할 형편에 있었다. 이기간에 재미 한인교회는 정신적, 신앙적으로는 물론 사회적, 육체적으로도 교포들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모국의 해방과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지도자들을 제공하여 주었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4년 사이에 많은 한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재미한인교회는 그들로 하여금 학업에 성공하여 고국에 돌아가 지도자로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여 정신적, 신앙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제공하여 주었다.

1965년에 미국의 이민과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 이 개정되어 동양사람들도 구라파 계통의 사람들 처럼 차별없이 이민올 수 있게 되었다. 위에 일부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상당한 수의 한인들이 미국에 이민으로 들어온다. 1965년 이후에 미국에 이민 온 한인

교포들은 1903년 부터 1944년 사이에 이민온 교포들과 비교하면 세 가지의 다른 점을 들 수가 있다.

첫째로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미국에 이민온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 왔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이민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 수는 있는데 미국에 와서 더 잘살아 보자는 뜻에서 자의로 이민하였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기본인권이 소수민족에게까지 국법으로 보장된 후에 미국에 이민오게 되였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1965년 이후에 온 교포들은 언어, 문화 그리고 가치관이 전혀 다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민으로 다시 삶을 개척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상한 용기와 노력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새 삶을 개척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까지 일을 하여야 할 형편 그리고 모국에서 유지할 수 있었든 사회의 신분 즉 학교선생, 교수 또는 변호사등의 신분을 많은 교포들이 미국에서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교육과 경력에 맞지 않는 일에 종사하여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형편등은 교포들로 하여금 번번히 궁지에 빠지게 하므로 사회적 조정을 요구하게된다.

교포들은 미국에서 이민의 신세로 여러모의 난관을 당면할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속하는 사람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한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대로 미국은 국법으로 소수민족에게 대한 기본인권을 보장하여 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수민족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세는 법률적인 면에서 보다도 사회적인 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한다. 교포들은 일단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종, 색깔, 언어, 습관 그리고 가치관에 있어서 미국의 대다수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다름을 인식할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과 동등하게 행세를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될때 좌절감을 갖게되며 심지어는 저열감 까지 갖게된다. 경제적으로 교포들이 그들이 실력을 동등한 입장에서 보여주지 못할때, 정치적으로

결정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의 삶과 운명에 영향을 주는 결정문제 까지 제대로 그 권한을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행사하지 못할때, 심리적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대다수의 사람들 처럼 그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 못하였을 때, 그리고 정신적으로 미국사회의 어떤 부정된것을 보고도 이를 지적하며 시정할 수 없을때, 교포들은 재미한인교회를 찾아 교회가 영신적, 신앙적인 면은 물론 심리 사회적인 면에서도 그들이 미국사회에서 과도기를 극복하여 생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좀더 보람있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합문화로 구성된 미국사회의 수류에 들어가 한인계통의 미국시민으로 이왕이면 손색없이 떳떳하게 살아보자는 것이다.

Ⅲ. 재미한인교회의 방향

현재 약 1200의 한인교회들이 미국안에 산재하고 있다.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어떤 교파와 전혀 관련없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교회들이다. 둘째는 한국 민족만을 중심으로 지역적 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노회와 총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교회들이다. 그리고 셋째는 미국의 어떤 교파에 가입하여 미국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활동하는 교회들이다.

이 세가지 그룹의 한인교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신 목적을 올바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교포들을 제대로 인도하며 지도하는지를 평론하고자 한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제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의 차별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양쪽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시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는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러주고 있다.

> 성도들은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피차간의 영적 교화를 도모하며 그들의 여러가지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도와주기 위해 하나의 거룩한 교제와 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에서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XXVI, 2).

여기에서 주목을 끄는것은 지리와 [illegible] 차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여 성도의 교제를 넓게하라는 것이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취급하고 이를 무형적인 것과 유형적인 것으로 구별하여 무형적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로만 구성되고, 유형적 교회는 역사내에 현존하는 교회로서 전세계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한다.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은 보통 구원을 받으며, 교회와의 일치는 성도들의 성장과 봉사에 절대 필요하다.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밝혀주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가 쓴 "신앙과 역사"에 의하면 하나님은 전세계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를 이땅위에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도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역사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반항을 극복하고 때가 되면 그분의 나라를 성취하신다는 것이다.

위에 기재된 성서적 그리고 신학적인 기사는 재미 한인교회로 하여금 그들의 태도와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한다. 우리 교포들이 그들의 선조의 땅을 자의로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리고 낯설은 미국에 와서 산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의 우연이라고 보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포들을 여러가지의 다른 인종들이 모여 사는 미국땅에 불러서 그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음은 세계적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의 교제를 넓혀 다른 인종계통의 기독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위에 건설하도록 이용하시는 것이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때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계통의 사람들과 성도의 교제를 가지며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포신자들은 물론 다른 미국신자들도 주저함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점에서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할 사실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뜻과 섭리를 따라가고자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한인교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의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같이 일하도록 하시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장로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실을 하나의 예로서 아래에 들고자 한다.

1972년에 당시의 미국연합장로교회에 속하고 있는 중국, 일본, 비율빈, 대만과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연합장로교회의 교단 활동에 있어서 아세아 계통의 사람들도 선교의 동역자로 백인들을 위시한 다른 인종들과 같이 똑같이 교회치리에 참여하여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세아 장로교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그후 1975년에 아세아 장로교협의회의 일원으로 조직된 한인 장로교 협의회는 다른 아세아 계통의 형제들의 협조를 얻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재미교포 교회들이 미국연합장로교회에 가입하여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187회 총회에 제출하였다. 고맙

게도 그 총회는 이 건의서를 채택하여 총회장으로 하여금 미국인들과 한국인들 가운데 저명한 지도자들을 임명하여 재미한인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래에 기재된 세가지의 안건을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추천하도록 하였다.

(1) 미국 연합 장로교회의 조직체제 안에 한인노회를 받아줄 수 있는지의 가능성;
(2) 재미교포교회의 문제와 필요로 하는 것;
(3) 재미 교포교회 목사의 문제와 필요로 하는 것;

그 특별위원회는 1976년에 그 당시 이미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세 미주노회 즉 서부, 중부 그리고 동부 노회의 노회장 대표들과 협의를 시작하여 우선 원칙적으로 이 세 미주노회들을 받아주기로 노력할 것을 결정하고 그 당시 한국 예수교 장로교회와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양총회장을 모시고 합의를 보았다. 그후 두 해 동안 미주노회의 대표들과 행정적인 면과 과도적인 성격을 협의하였으나 과도적인 성격 즉 15년후에 지역노회에 통합하는데 대하여 세 미주노회들이 행동일치의 결단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입문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둘째와 셋째의 안건 즉 재미 교포교회의 문제와 필요 그리고 재미교포교회 목사의 문제의 필요에 대해서 연구를 마치고 1978년에 있었든 190회 총회에 재미한인교회의 발전을 위한 열 한 개의 추천을 건의하게 되었다. 그 총회는 열 한 (11) 개의 추천을 채택하여 물심양면으로 재미한인교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선교의 동역자로 같이 참여함으로 백년동안 쌓아온 미국연합장로교회의 선교의 열매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됨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전교회와 기관에 호소하였다.

지면상 열 한 개의 채택된 추천들을 다 기재하지 못하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다섯개만 아래에 기재키로 한다.

(1) 미국연합장로교회는 재미한인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에 기재된 세가지 분야에 총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한다.

(ㄱ) 목사와 평신도의 지도력 양성;

(ㄴ) 청소년을 위한 종교교육 교재개발; 그리고

(ㄷ) 교회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2) 총회의 Program Agency 는 재미한인교회를 위한 목회협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되는 예산을 조달한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ㄱ) 정책 추천을 계발하여 총회기관, 대회 그리고 노회로 하여금 고려토록 한다.

(ㄴ) 재미 한인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력 양성, 종교교육 교재 그리고 교회발전과 사회봉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조달하도록 방안을 세운다.

(ㄷ) 설명과 지시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 미국연합장로교회 안에서 재미교포교인들과 다른 미국인들이 선교의 사명을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돕도록 한다.

(ㄹ) 재미 한인교회의 목회직무를 위한 프로그램과 조직에 관하여 대회와 노회와 상담한다.

(3) 총회는 상당한 수의 교포인구를 갖고 있는 대회들로 하여금 재미 한인교회 발전을 위하여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언어와 문화에 익숙된 한인직원을 채용하도록 권한다.

(4) 재미 한인 교회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회들과 노회들은 재미 한인 교회들이 교회치리 기구 안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의 행정부서를 사체 안에서나 그렇치 않으면 다른 치리기구와 합작하여 조직하도록 한다.

그 행정부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ㄱ) 재미 한인교회들 상호간에 협조를 격려한다.

(ㄴ) 재미 한인교회 목회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ㄷ) 특별한 프로그램과 선교를 이행한다.

(ㄹ) 재미 한인교회 목회를 위한 문제와 필요한 것을 설명한다.

(ㅁ) 전체교회의 사업을 설명하며 지지를 도모한다.

(5) 한국에수교 장로교회와 미국 연합장로교회 사이에 헌법에 관계된 차이점은 총회 서기에게 문의토록 한다.

미국 연합장로교회 총회는 1978년에 이 열한개의 추천을 채택하고 총회의 Program Agency 는 곧 재미한인교회를 위한 목회협회위원회를 일곱명의 한인 그리고 여덟명의 미국인 지도자들로 임명하여 설치하고 위에 이미 기재된 임무를 이행시키고 있다. 이 목회협의위원회는 먼저 지역적으로 재미한인교회의 조속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국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한인직원의 채용을 급선무로 결정하고 총회 선교정책위원회와 대회 대표들과 협상하여 네 지역으로 분단하여 즉 서부, 중부, 동부 그리고 남부에 재미 한인교회를 위한 지역 상담자(Consultant) 들을 채용하게 하고 그들은 1980년 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 상담자는 주로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대회와 노회들을 상대로 하여 재미한인교회들의 발전을 위한 산파역활을 하고 있다.

미국 연합장로교회 안에 한인노회를 설치하자는 안건이 다시 남가주에 집중된 20여개의 교포교회들이 집단으로 남가주 대회에 1982년에 건의하여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이 안을 제출한 교포교회들이 10년이라는 잠정적인 기간을 전제로 하고 조직함을 수락하므로 대회는 1983년에 이를 채택하고 그해에 모인 195차 총회에 건의하여 잠정적인 노회설치를 허락받게 되였다. 이 한인노회의 설치 목적은

재미 교포교회들과 목사들로 하여금 자아개발과 자아결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현 북미합중국 상보교회의 체세안에서 가져오는 변천과 적응을 여유있게 하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그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대회와 노회의 체제안에서 한인목회선교 위원회를 설치시켜 대회와 노회를 대신하여 한인교회들이 집단으로 자아개발과 자아 결정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위에 상술된 예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스스로 다른 인종계통의 기독교인들을 그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우리 재미 교포교회들을 세계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원하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교포들을 미국이라는 낯설은 땅에 부르시고 다른 인종계통의 기독인들을 통하여 이처럼 아량을 보여주실때 우리 교포 기독인들은 이 사실을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의미에서 따로 고립된 교회로서 행동하는것 보다 이미 이 땅에 조직되고 활약하는 교단에 참여하여 다른 인종의 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포교회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 모국의 선교 백주년을 맞이하는 이마당에서 과거 백년동안 우리들은 미국을 위시하여 다른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왔다. 이제부터는 세계 교회의 일원으로 미국의 교단을 통하여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신앙적인 면으로 도와줄 때가 왔다고 본다. 고로 다음 백년은 적어도 공헌의 시기와 기회로 생각하고 새로운 역사의 상면을 모색하는 재미 한인회가 되어 시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제2부

PART TWO

우리의 신앙과 소명

Our Faith and Calling

순례자의 신앙
(이민신학 서설)

이 상 현

서 론

우리는 순례자의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국을 떠나 이방에서 거주하는 나그네의 길로 부르셨던 것같이 우리도 부르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걷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나의 문화, 하나의 국가를 초월하여 큰 꿈을 가지고 인류를 위하여 공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도성」을 이땅에서 추구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조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결코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터전은 넓어진 것이다. 이제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례자의 길로 부르고 계신다.

물론, 우리가 여러가지 인간적인 이유로 도미한 것은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좀더 안정된 생활을 해보려고, 혹은 좀더 좋은 교육을 받아보려고 온 것이다.

이민의 동기가 무엇이던지 와서 살다보면 이곳 생활의 깊은, 궁극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같다. 이 미국이란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야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이방인으로서의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에게서 부터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답하신다. 자기가 광야에서의 시험과 십자가의 고통이라도 자기 생애에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 길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함께 주신 것이라고 믿고 받아드리라고.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의 부활의 힘을 믿고 그가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도 올 것을 바라보고 광야에서의 삶을 걸어가라고 가르치신다. 우리의 조국이나 미국보다도 더 완전한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그의 왕국을 바라보는 순례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인으로 또 미국 시민으로 살아야하는 이 형편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국인이며 또 미국 시민이라는 것도 기뻐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양문화 중간에 사는데는 고독이 있고 혼돈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이 순례자의 길인 것이다. 그리고 순례자는 성스러운 소명을 추구하는 긍지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참을 수 있다.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에 충성하며 살아야 하겠다. 아브라함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하겠다. 이러한 순종하는 삶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새생활을 체험하신 부활의 구주께서 늘 동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근본적인 신앙의 비전이며,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전해야할 기쁜소식(복음)인 것이다. 이제 이 신앙의 내용을 간추려 나열하며 생각해 보자.

가. 미국에서의 우리의 형편

한가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순례자들은 외국땅에서 외국인으로서 낯설은 사람들로서의 생활을 이겨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광야에서의 어려운 삶을 걸어가야 하며 우리의 광야의 경험은 바로 우리의 미국사회 안에서의 변두리성인 것이다.

(1) 우리의 변두리성(주변성)

우리가 걷고 있는 미국이란 광야는 어떠한 길인가? 학자들은 백인이 아닌 모든 유색인종의 이민자들은 미국사회 안에서 주변성에 놓여 있는 사람과 같다고 말한다. 한국인으로서 또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두 문화권 사이에서의 삶이라는 것이다. 「경계선상」의 인생인 것이다.

이러한 「변두리」에서의 형편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의 문화권에 갇혀서 사는 사람보다는 창조성 있는 개척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창조성이 있는 형편은 또한 불안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어떤 하나의 문화권에만 속하지 않고 개방된 형편이란 안정감 있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경계선상」에서의 인생이란 안락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다.

우리의 변두리성이란 양문화권 사이에 놓여 있는 「경계선상」의 형편 뿐만은 아니다. 거기다가 미국사회의 인종차별이란 현실 때문에 겪어야 하는, 완전히 용납되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는 처지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사회에서 우리는

「영구적」인 나그네라고 느낄 때가 많은 것이다. 「경계선상」에 있을 뿐 아니라 중심에서 내버림받아 「성박」에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만큼 자유를 누리고 또 많은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나라는 없을지도 모른다. 많은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만큼 문제가 없이 사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색인종에게 대한 미국 주류 사회(백인들)의 태도는 아직까지 차별과 차거움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유색인종에게 대하여 느끼는 그 「거리」란 표현화는 안된다 하더라도 때때로 그들의 눈초리에서, 말투속에서, 또는 억양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의 변두리성이란 무시해도 좋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종종 당해야하고 여러 면으로 겪어야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성 가장 깊은 곳에 아픔을 주는 일인 것이다. 사람이란 인정과 용납을 받지않고 살 수 없다. 사람이란 사회적 동물이다. 주어진 하나의 사회 안에서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존경을 받지않고는 인간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가 없는 법이다. 자기자신에 대한 긍지가 없고는 역사에 참여하는 창조적 인간으로도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힐 때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인종 차별의 태도는 TV나 Mass Media에 나타나는 동양인에 대한 그릇된 image에서도 현저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특별히 주시해야할 점은 이러한 변두리성은 우리 2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주류사회와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차별대우 혹은 변두리성을 더욱 심각히 느낀다고 한다. 우리의 2세들은 여기서 공립학교를 나가는 이상 미국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깊이 들어간 그 백인의 사회가 그들을 완전히 용납하지 않을 때 느끼는 우리 2세 젊은이들의 소외감 혹은 격리감이란 우리 부모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이다. 미국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어른들은 그만큼 변두리성을 적게 느낄 것이고, 2세들의 형편을 이해하는데는

커다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형편은 첫째 양문화권 사이에 놓여 있는 경계선상이란 변두리의 형편이며, 둘째로 미국의 주류인구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힘드는 「밖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서의 변두리성이다.

(2) 변두리성이라는 광야에서 당하는 시험

불안한 상태에 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누구나 그러한 지경을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 안에 사는 한국 이민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속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부인하고 한국인으로서만 살려고 노력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 한국적인 것만 강조하고 몸은 미국에 있으나 마음은 한국에 항상 있으므로 변두리성의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이다. 법적으로는 이민하였으나 실제는 아직 이민하기를 거절하는 태도이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깊이 미국화된 2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자연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기 쉽다.

그반면, 우리는 한국적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미국인으로만 살려고 하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 역시 미국이란 광야의 길을, 한국사람이며 또 미국시민이란 변두리 인간의 삶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회피하려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한다. 유한한 무엇을 우상화하여 인생의 목적을 삼으며 혹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쾌락에 잠겨 세상을 잊어버리려는 등, 이 모든 것이 다 회피의 길이다. 그러나 회피의 방도는 결국 헛된 수고이며 실망만이 기다릴 뿐이다. 우리가 한국인이며 미국시민이라는 형편에 한쪽만을 강조하려는 회피의 길을 취하게 되면 우리들 자신들 간의 관계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는 다른 인종들과의 관계까지도 점점 멀어져 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우리가 한국인이며 미국시민이라는 독특한 형편을 긍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변두리성이라는 광야를 대담하게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리하여 우리의 독특한 현실속에 잠재해 있는 창조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만나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 이민자들의 신앙

성서에 나타난 신앙의 가장 근본적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보라함은 집을 떠나 순례자의 길에 오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복종하였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해방해 주셨다는 말씀을 믿었다. 예레미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땅에 잡혀간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오게된 이 사실이 하나님의 뜻안에서 된 것으로 믿어야 될 것이다. 우리의 나그네된, 변두리적인 처지에 놓이게 된 이 사실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위치와 입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에 건설하는 일에 봉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믿음이 미국안에서의 우리 형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네가지로 답할 수 있다. 1) 우리의 변두리적 경계선상의 형편은 순례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을 의미한다. 2) 우리의 근본적 주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즉 「참된 고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데 있다. 3) 우리의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며 귀하게 간직하고 기뻐하여야 할 것이다. 4) 미국이라는 땅으로 불림을 받은 우리는 이곳에 순례자로 정착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사는, 좀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이땅에 이룩하는데 공헌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1) 나그네 인생

성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순례자들 처럼 우리도 집을 떠나 이방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
>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니라.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 : 8 ~10, 13~16)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은, 아늑한 고향을 떠날 각오가 없이는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하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도 절대적으로 속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순례자는 천막을 치고 나그네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계선상에 선 사람만이 아늑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양국 문화권 사이에

서 살아야 하는 나그네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귀중한 창조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에 여러 곳으로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같다고도 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1 : 1 ~ 2)

변두리 인간은, 나그네는,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권력이 없는 그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이유인 것이다. 권력 없는 우리를 「질그릇」같이 사용하셔서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하려 함이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한다. (고린도후서 4 : 7) 인간의 힘에 대한 자존심이 깨끗이 씻겨져서 겸손함을 배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들은 다 권력이 없는 변두리 인간들이었다. 아브라함, 모세, 예언자들, 세례 요한이 다 그랬고 그뿐 아니라 나사렛 예수께서도 어떻게 보면 변두리 인간이었다. 그들은 그때 자기들 사회에서 다 권력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약함」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강함」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자유와 겸손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유와 겸손으로 가득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들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변두리성」을, 「가난함」을 자기 자신도 지셨다는 성서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2 : 6 ~ 7)고 가르치고 있다.

인간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는 또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태 8 : 20) 과연 우리는 「이방인」, 「변두리 인간」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례자가 되신 하나님, 이민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영원의 영역을 떠나시고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죄의 세계에 「이민」 오셨다고 할 수 있다.

「가난」, 「변두리성」이란 것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닐지는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충성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거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겠다.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이방인의 인생을 가야할 용기를 가져야겠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자.

>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
> (고린도후서 4 : 8 ~10)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속에 있는 한국인으로 살 것이다. 변두리성의 처지에서 살 것이다. 아니 기뻐할 것이다. 우리 자신에 혹은 변두리성 자체에 무슨 궁극적인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데 있다. 이 거룩한 소명이 우리의 인격의 바탕이 되어야한다. 그 굳건한 토대, 변할 수 없는 정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혼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 양쪽 문화에 다 속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중요한 사명을 다 하기에 힘쓰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인이며 또 미국시민이라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이다.

(2) 순례자의 주체성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제 3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이룩해 가려면, 우선 확고한 정신적 주체성이 필요하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나그네」 혹은 「주변 인간」 이지만, 우리는 이제 사회학적 주체성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크리스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신적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 같이 「나그네와 행인같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다 (9 ~12절). 우리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궁극적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참된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향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내세의 실재인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실현화하신 인간역사 속의 사실이기도 하다.

우리는 「순례자」라는 말을 염세주의적 혹은 탈역사주의적으로 사용할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 또는 「우리의 참된 고향」을 건설하는데 등한시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순례자가 바라보는 「참된 고향」 을 일방적으로 인간역사 안에 이룩할 수 있는 하나의 유토피아로 본다면 거기도 위험성이 있다.

우리의 「참된 고향」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역사 속에 있는 어떤 현실도 다 초월하는 절대성을 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두가지 위험성을 다 피해야할 것이다. 염세주의도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또 인간의 유토피아를 「하나님

의 나라」로 동일시하는 이데올르기에 빠져서도 안될 것이다.

즉 우리는 인간역사를 초월하는 「궁극적 고향」을 희망하며 추구하는 동시에, 또한 인간역사 속에 부분적이나마 그 「고향」을 현실화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민교회가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의 「궁극적고향」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민교회는 그 「궁극적 고향」 을 부분적으로나마 현실화하여 이민온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느끼고 살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인간화된 이민들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참된 고향」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재인간화가 될수 있는 「오아시스」라는 말이다.

특히 백인사회와 1세 이민들로부터 이중적으로 소외당하는 우리 2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와 「참된 고향」을 부분적으로나마 맛보게 해주는 것이 이민교회의 중대한 책임이다.

(3) 잊어선 안될 한국인의 뿌리

우리는 미국이란 광야로 부름받은 순례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할 것인가? 순례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뿌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찌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기억함으로 자기들의 현재의 의미를 알았던 것이다. 과거의 것이나 과거의 내용과 가치를 알아야 미래를 향한 과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한국의 과거를 찾는 순례의 길에 올라야 하겠다.

우리의 민족성을 되찾아 간직한다는 것은 성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민족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통털어 막연히 「인간」이라고만 부를 수는 없다. 누구나 독특한 배경과 민족성을 지니고 살게 마련이다. 그런고로 우리가 한국사람, 한국을 배경으로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성의 일면인 것이다. 우리의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잊어버린다든지 멸시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겠다. 우리의 뿌리를 멸시하는 것은 죄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민족의 과거를 보존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으로서의 과거를 찾는다는 것이 우리의 성스러운 책임인 또 한가지 이유가 있다. 한국의 과거도 역사의 한 부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역사의 주인이신 것같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전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한국의 과거의 주인이기도 하신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한국 역사에도 참여하셨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의 구세주는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결정적으로 나타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성령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나사렛 예수 안에 진정으로 완전하게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은 영원하신 것이며 오늘날까지도 끊임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벌써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시하셨고,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계속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에게 대한 충성은 우리로하여금 한국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어떤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다. 한국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한국의 과거, 한국의 문화의 전체를 벗어 팽개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한국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되며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뜻에 비추어 한국 문화를 평가, 비평해야 하는 동시에 그 속에 무엇이건 참되고 선한 것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 이민교회에서 여러가지 아름다운 한국적 가치관, 풍속을 보존하고 가르쳐야 한다. 효, 정, 예의 등의 동양적인 미덕을 버리지 말고 강조해야 할 것이다. 추석같은 명절을 교회 안에서 지키기도 하며 어린이들에게 한국말도 계속 가르쳐야 하겠다. 한국의 저명한 사상가들의 이름들을 우리교회의 설교에 불려지기도 하고 모든 순교자들과 선구자들의 이름을 포함하는 한국 기독교의 찬란한 역사를 우리 미주 한인교회에서 가르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민교회에서 우리의 민족적, 문화적 뿌리를 보존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종교적 혹은 구원에 관계된 중요성을 띄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민족성이 이 미국사회에서 가끔 멸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민족성을 우리 이민교회는 재긍정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재인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사회에서 상처가 난 한국인들의 자아의식을 교회는 되살려 주고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비인간화된 우리 인격들이 교회내에서 재인간화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이민교회가 한국적이란 민족성을 띄고있다는 것은 구원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명시하여야 할 것이 있다. 민족성이란 하나의 유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민족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결코 우상화되어 절대적인 무엇이 되지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아이덴티티)는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 받고 이제는 순례의 길에 올랐다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국적인 것, 한국의 과거만을 절대시하여 현재 미국땅에서 닥쳐오는 기독인으로서의 책임을 등한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이다. 한인 이민교회는 한인들의 모든 공동체에게 우리의 민족성의 유한성을 말해줄 예언자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람들 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동시에, 우리가 공헌할 더 큰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줄 책임이 있다. 우리가 순례자라면 아

늑한 한인사회에만 있지말고 더 나은 본향「하나님의 도성」을 항상 추구하며 계속 전진하여야 할 줄 안다.

(4) 이민은 순례자의 길

위에서 본대로 몸은 미국안에 와 있어도 진정한 의미로의 이민자들로서의 생활은 아직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으로 건너올 때는 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모험을 했던 것이다. 도착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하고 보면 이 나라의 현실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외국으로 이민한다는것은 변두리성의 처지에 뛰어드는 것이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받아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이민의 문턱에서 서성거리며 우유부단한 생활을 할 때가 많다.

이민생활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을 아직 결정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민 1세들이 이렇게 주저하는 동안 벌써 깊이 미국화된 2세들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이민의 참 뜻이 무엇인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다. 이민은 성스러운 순례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넓은 의미로 보면 이민이란 모든 인류의 운명인 것이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즉 그 말은 국가나 문화같은 주어진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말이다. 자기가 태어난 그 국가나 문화밖을 내다 볼 줄 모르는 좁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 삶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모두 적어도 정신적으로나마 이민자로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창조주가 준 숙명이다.

한걸음 더 나가서 모든 문화, 모든 국가, 전 우주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땅으로 이민간다는 것은 성스러운 순례자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시편95 : 3 ~ 5

다시 말하자면 이 미국 땅도 하나님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땅에 마음놓고 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기억한다. 그들은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도 없는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지조차 의심하였다. 하나님이 안계신다면, 어떻게 그곳에 거주하겠는가?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한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29 : 4 ~ 7)

바벨론이 그렇듯이, 미국의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조국인 한국에 계신 하나님이 미국에도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뒤에 두고온 사랑하는 조국 한국만 그리워하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미국땅에서도 살고 일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도 「집을 짓고」「전원을 만들고」「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 미국사회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평안할 것을 힘쓰고」 또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사회로 정말 이민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서 선교하며 살아야 한다.

물론 미국땅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인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사회의 현 상태를 그대로 다 좋다고 받아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곳에서 좀더 나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거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다. 또 그 반면 이 안일한 곳에 자리를잡고 거주할 때에 안도감에 빠져 순례자로서의 소명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거짓의 안위로 우리를 꾀이려는 부요한 안락주의의 우상들의 장난에 속지 말아야한다. 한곳에 영주한다는 것은 항상 이러한 시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미국 자체를 우리가 우상화하고 우리에게 궁극적 행복과 안위를 주리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실망과 불안만이 닥아올 것이다. 이땅의 모든 물질적, 정신적 부요만이 우리에게 궁극적 성취를 줄 수 없다. 이땅과 모든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께만 신뢰를 두고 살 때만이 우리는 어디에 살던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나라에 이민하여 살때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충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눅 9:24)고 하셨다.

반면에 우리의 갈 곳은 내세의 천국이라고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등한시하는 방향으로 약속의 땅에 관하여 오해하면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땅을 갖고 고향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반면에 새로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땅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도 될 수는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의 표준에 의한 편한 생활, 혹은 권세와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절대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추구하며 미국에 영주한다면 허무와 낙망만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 것도 없는 형편에 빠질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안식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

속에만 두어야 한다. 이런 신앙으로 산다면 이땅에서 진실로 보람있고 알찬 일들을 하며 절망에 빠지지 않는 삶을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민의 종교적 의미를 기독론의 견지에서 찾아 보도록 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인류와 역사속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의하여 우리의 전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게 의하여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말은 전 우주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게 된다는 말이다. 니-버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역사의 전체가 우리의 역사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이국인이란 말은 없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전 세계에 걸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민을 가는 것이며,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인간 역사 전체를 우리의 역사로 기억하고 배우는 것이다."

(「계시의 의미」 p. 116)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인간들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 구원의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누구나 다 이민자이며 순례자이다. 이 길이 고향을 떠난 이방인으로서의 쓸쓸함을 경험하게 되는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순례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기쁘게 걸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미국이라는 광야를 향하여 이민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 광야에 달려들어가서 때때로 외로운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 2세들과 그곳에서 벌써 일하고 계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리스도는 벌써 오랫동안 미국 땅에서 역사하시고 계셨다. 그이와 손잡고 그의 일에 다 함께 종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가 미국사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민자들의 변두리성을 감지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낯선 자나 나그네로 대우 받으면서라도 살 각

오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조차 알지 못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아보라함 같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는가.

>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 13 : 12~13)

라고 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도 때때로 아늑한 우리의 이민사회를 떠나 우리에게 변두리성을 던져주는 그러나 더 큰 안계를 갖다 줄 수 있는, 미국의 사회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가끔이라도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야 하겠다. 미국사회안에 있는 모든 인종의 기독인들과 특히 변두리화되고 버림 받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모든 인류의 재인간화를 위하여 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생, 무엇이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야 한다.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어야 하겠다. 그러면 부활의 힘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그네됨을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 처럼 우리도 이 미국 광야에서 새삶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에 이룩하는 거룩한 성업에 봉사하는 여호와의 종들로서 충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나그네로 오신 그리스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한인 이민들의 가슴속에 살아 있어야하겠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

님의 부름을 받고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살면서 순례자의 소명을 다한 많은 선구자들의 모습들을 우리 한인 이민들에게 보여주는 작업이겠다. 우리의 궁극적 표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교훈, 죽음, 부활의 모습이다. 성서에 뚜렷이 나타나 있는대로 사회적으로 변두리성을 타고난 사람이 그 변두리성을 성스러운 순례의 길로 바꾸어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높이 들어 누구나 보게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변두리적 처지에서 사신 인간이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가 우리의 구주되심에는 두가지 면이 있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육신하여 계시하셨고 동시에 둘째의 아담 혹은 새로운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표시해 주셨다. 이 두면이 한 분의 인격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1) 변두리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할찐데 우리는 한인 이민들에게 우리와 같이 나그네가 되어 그 시대의 권력층에 속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는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갖지 않으셨던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처지를 달게 받아드리셨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변두리 인간의 처지를 거룩한 성업의 길로 사용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 있는대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구태여 노랑색은 아름답다라고 외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

리의 변두리성은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한 자기의 나그네됨을 다른 모든 나그네들과 가까이 하는 하나의 방도로 사용하셨다. 불쌍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과부들 심지어 죄인들도 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해주셨다. 그들에게 절대적 용납과 인격적 대우를하여 주셨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나그네 됨을 다른 모든 나그네 된 사람을 돕는 길로 삼으라고 가르치신다.

(2)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사랑과 자비를 표현하는데는 자신을 희생하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 십자가의 논리이다. 이런 점에서 고통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한인 이민들은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순례자로서의 고난속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참을 수가 있는 것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나그네 되심의 깊이를 말하고 있다. 십자가는 우리의 나그네 됨에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표시해 주고 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나그네 됨을 받아드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광야를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안락한 생활만을 동경하는 마음을 주저치 말고 버려야 할 것이다. 고난 자체를 결코 「로맨틱」하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고난 자체가 하나의 「선」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랑 때문에,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는 고난도 감수하셨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힘, 즉 세상에서는 약하다고 하는 자비의 힘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 주셨고, 우리의 형제이신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나그네 됨을 성스러운 소명의 길로 채택하며 살기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다.

(3)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무나 죽음에서 다시 일어섰던 것이 아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보다도 강한 자임을 보여주신 분은 변두리 인간이셨던 예수,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였던 예수 그리스도였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참된 힘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세력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그네로서 사시면서도 나타내셨던 자비와 사랑의 힘인 것을 알아야 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이민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부활의 신앙을 아는 한국 이민들은 지금은 비록 외롭고 험한 광야를 걸어가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생애에도 고달픈 이민생활에서도 힘을 얻고 언젠가는 광명의 새날을 맞이하는 부활의 날이 오리라는 가능성을 밝히 보게 되는 것이다.

(4)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한국 이민들이 미국사회에서 부닥치는 현실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만을 가지고 장래를 내다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처지에서 현실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해 나가려면 특별한 신앙의 힘이 없이는 안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역사의 종말은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뚜렷이 증거해야 한다. 그래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순례자들이 인류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해야 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광야를 걸을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 이민들의 교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를 따라 살고 일하기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그러한 공동체는 물론 여러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사회가 지닌 현실 때문에 같은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 이민 기독교인들이 부닥친 현실이 대체적으로 이 후자에 속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여러 인종이 함께 모인 교회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교회가 이상적일 수 있음을 시인하면서 여기서는 한인들이 모인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재미 한인교회의 근본적인 책임을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1. 선포하고 증거하는 공동체 (Kerygma)
2. 양육하고 봉사하는 공동체 (Koinonia)
3. 예언자적, 개척자적 공동체 (Diakonia)

(1) 선포하고 증거하는 공동체 (Kerygma)

한인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임무는 한국 이민들의 양문화에 걸쳐 있는 변두리성의 처지, 그 나그네의 형편은 순례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세지를 전하기 위하여서는 자아의식 훈련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보고 그대로 시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자아의식을 기르기 위하여 어떤 때는 사회의 흐름을 이기고 거역해 나가야 할 때가 많은 것이다. 극단적인 전통주의나, 현실을 회피하려는 일반 한인 사회의 경향과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조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이제는 미국사회에 속하여 사는 미국속에 있는 한국인이라는 현실을 그대로 주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소수 민족사회 안에서 소수단체로 역할해야 할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포와 증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외에도 나그네의 길을 순례자의 길로 걸은 많은 성인들의 이야기를 해야할 것이다. 아브라함, 모세, 룻, 에스더,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등 이방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성인들의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들려 주어야 하겠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이민자들 중에서도 모범적 인물들, 조국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국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창조적 공헌을 한 사람들의 업적을 칭송하고 우리 생애의 표본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의 메세지를 미국 기독교인들에게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백인미국교회들은 대개 같은 종류의 사람들만이 더욱 포근하게 모였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또 다른 면으로 좀 변두리

화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순례자가 되려면 그들도 광야의 생활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 나그네가 되어봄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그들도 다시 이민자가 되어보아야 한다. 다른 문화, 다른사람들의 역사도 공부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업적을 그 속에서도 찾아 음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변두리 인간들이 백인들 사이에도 많이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 의무가 있다.

(2) 양육하고 봉사하는 공동체 (Koinonia)

한인교회는 미국의 광야를 걷는 피곤한 이민들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다. 한인교회에서 만큼은 우리의 민족성이 존경되고 인정받는다. 거기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존엄성을 다시 찾게된다. 그러므로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성취한 사람들만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물론 그들이 여러가지 성취한 것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표준에 의하여 사람을 구별하는 경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이민교회는 흔히 고립되어 있고 혼돈되어 있는 우리의 2세들에게도 오아시스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들은 미국 사회, 문화속으로 가장 깊이 들어간 이민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게 자신들의 변두리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그들이 양쪽 문화에 속해 있음을 긍정적으로 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교회생활에서 항상 우리의 한국적인 면을 보존하고 긍정하는 동시에 또 미국의 현실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능한대로 영어와 우리말이 함께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조국의 장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동시에 미국사회에도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잊어서는 안될 것 하나는 금방 미국에 도착한 이민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봉사의 책임이다. 벌써 우리교회들이 부지런히 실시하고 그들에 대한 여러면의 봉사사업은 더욱 격려와 부축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교회는 임시조치하는, 피난처 같은 기관만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자비와 도움을 베푸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3) 예언자적, 개척자적인 공동사회로서의 교회

우리 한국 이민교회들은 소수민족 사회에서 소금의 직분을 다 해야한다. 우리의 교회들은 너무 민족중심주의나 편파주의, 또는 극단적인 국가주의로 빠지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료 이민자들을 한국 민족성의 테두리를 벗어나 넓은 광야의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들을 보다 넓은 미국땅에서의 가능성을 보고 자기들의 생활무대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 교인들이 보다 넓고 진정한 의미의 한국적 미국인(Korean-American)이 되어 동료 이민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이민교회들은 종종 미국백인교회에게 친교의 문을 열지않으면 안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소수민족 교회는 이민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그러나 민족중심주의를 지양하는 교회는 기독교 이상에도 맞지않을 뿐 아니라 우상화될 우려가 있다. 이민교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미 교회에서 얻은 지식과 힘을 바탕으로해서 민족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스러운 순례자로 불리움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손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민족성이란 우리의 구세주를 위한 봉사의 방편으로 삼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봉사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야만 우리 민족성의 참 아름다움과 그 가치가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몇해전에 어떤 한국신문에 이민 2세들을 위한 웅변대회에 관한 기사가 있었다. 영예의 일등 입상한 12세 소녀의 입상소감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미국에 사는것이 그렇게 편안치가 않다. 아마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도 역시 편안치가 않을 것같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언젠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를 희망한다." 12세 소녀의 너무나 정직하고 심각한 말이다. 우리는 모두 이 어린 소녀의 현실을 직시하고 담담히 대면하는 정직한 태도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 이 소녀는 미국사회에 깊숙히 들어가 자기의 이민자로서 당하는 변두리성을 감지하며 이민생활의 문제점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있다. 실상 우리 성인들도 모두가 이 소녀의 처지와 다를 것이 없다. 모두가 이 미국이라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의식하면서 우리의 2세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까지 언급해 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순례자로서의 이민자들이라는 의식을 불어 넣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 자신이 용기와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12세 소녀에게 보여줄 비젼이 있다. 그 비젼은 한·미 두사회와 두 문화의 경계선을 걸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성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변두리성을 가진 이방인의 삶을 통하여 이룩하시려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때에 우리는 보다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창조적이고 보다 의미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연합감리교 제자훈련국 출판부에서 1983년에 출판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책자에 본인이 대표 집

필하였던 글을 다시 수정 및 보충한 것임을 명시해 둔다. 또한 영어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은 아니나 내용은 다름이 없음을 밝혀둔다. 저자.)

Called To Be Pilgrims:

Toward an Asian-American Theology From the Korean Immigrant Perspective

Sang Hyun Lee

By faith Abraham obeyed when he was called to go out to a place which he was to receive as an inheritance; and he went out, not knowing where he was to go. By faith he sojourned in the land of promise, as in a foreign land, living in tents with Isaac and Jacob,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For he looked forward to the city which has foundations, whose builder and maker is God. . . . . .having acknowledged that they were strangers and exiles on the earth. For people who speak thus make it clear that they are seeking a homeland. If they had been thinking of that land from which they had gone out, they would have had opportunity to return. But as it is, they desire a better country, that is, a heavenly one. Therefore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for he has prepared for them a city. (Hebrews 11:8-10, 13-66.)

We are called to be a pilgrim people. Like Abraham we have been called by God to live in a wilderness "as in a foreign land," as "strangers and exiles," not feeling wholly at home where we are, nor being comfortable any more about returning to where we or our parents came from. We must not live merely as wandering, aimless nomads, however. We can be a

pilgrim people who are on a sacred journey. We have been freed from the hold of one culture or one society; we have been called "to go out" with visions for "a better country" which would be a true homeland not only for ourselves but for all humankind.

We (or our parents or grandparents) came here, of course, for various personal and very human reasons—for better education, for financial well-being, for greater career opportunities and the like. But we now find that we do not wholly control our circumstances by ourselves. We find ourselves in a wilderness, living as aliens and strangers. And the inescapable question arises from the depth of our being: What is the real meaning of our immigrant existence in America? What is the spiritual meaning of our alien status?

The biblical faith presents us here, I believe, with a clear vision—the vision of having been callled by God to live as pilgrims, as his special servants. Having left behind us the security of belonging to just one world, we are now free enough to dream bigger dreams and to see larger visions than we might have otherwise. In other words, our alien predicament is something we can turn into a sacred vocation—that is, into a vocation of the pioneers who introduce creative advances and imaginative changes into human society in order to do God's will here on this earth. Such servants of God lead the often uncomfortable life of sojourners, pilgrims. But their life is one of hope and faith because their purpose and their visions have an unshakable foundation, even God himself.

This is the central biblical vision, I believe, that we must by God's grace bring ourselves to see and to appropriate. What follows is a modest beginning in fulfilling the task of elaborating upon the content of this vision. Let it be clear at the outset that the specific context from which I write is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especially the first generation. For this reason, I do not and cannot pretend to speak for the experiences of all Asian-American communities.

However, there is, I believe, sufficient commonality between my own context and the contexts of other Asian-Americans so that the following theological reflections may properly be thought of as at least one possible approach to an Asian-American theology.

A. *Doing Theology in Asian-American Context*

1. The Wilderness of Marginality

This search for the meaning of our immigrant existence in America began as an urgent personal quest. And this quest emerged out of an awareness of my seemingly permament condition as an alien or stranger in this society.

My tacit awareness of all this received a painful but helpful clarification within the past several years. I learned that scholars in the field of minority studies had a theory and a name for my predicament, for the wilderness in which I was finding myself. A "marginal man," they called a person like myself. In a nutshell, a marginal person is one who is "in between" two cultures or societies without wholly belonging to either one. "He is poised in psychological uncertainty between two (or more) social worlds; reflecting in his soul the discords and harmonies, repulsions and attractions of these worlds, one of which is often 'dominant' over the other," wrote Everett Stonequist[1]. A marginal person, furthermore, is often rejected by the dominant group. "He emulates and strives to be accepted by a group of which he is not yet, or is only peripherally, a member."[2] In other words, he or she identifies with, or has internalized, the norms and ideals of the dominant group but is rejected by that group. So, in this

sense, a marginal person is not only "in between" or "on the boundary" but also "outside," or at the periphery of, the main group of a given society. One rule that is often emphasized by the proponents of the marginality theory is that the more a minority person identifies himself or herself with the main group, the more that person would feel marginalized.[3] He or she will feel more "in between" and also more rejected. The highly educated and the second and later generations, then, are potentially the most typically marginal persons.

Marginality in the sense of being "on the boundary" or "in between" (bi- or multi-cultural) is wilderness enough for anybody. But the element in marginality that clearly has the potentiality for being a de-humanizing power is the rejection by the main group. And this element is especially pernicious to the non-white minority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One Korean-American sociologist has written:

> *Non-white immigrants may attain a high degree of cultural assimilation (adoption of American life-style), but structural assimilation (equel life-chances) is virtually impossible unless the immutable independent variable, "race," becomes mutable through miscegenation or cognitive mutation of the WASP. Koreans are no exception to this Lebensschiksal.*[4]

A white European immigrant, in other words, would readily be accepted as "one of us" by the host society even if he hardly knows one word of English or a single fact about American history. But a non-white immigrant is automatically and almost permanently an outsider even if he or she is highly acculturated in the American way of life. With him or her, race sticks. Many in fact reach the shores of this land already quite westernized, some even with such names as John, Mary, and Samuel, and many of them with a deep

sense of attachment to many of America's values and ideals. Something more painful than disappointment, then, is felt when they discover that the world which is already a part of them does not find them fit for a full membership in it.

In this way, the problematic nature of the American wilderness for non-white persons begins to emerge into a clear view. The judgment expressed in the above quotation perhaps is too severe. But there is enough truth in it to make what it says a question of human and existential significance. One needs to belong. One needs to be able to place himself or herself, and be placed by others, in a way that is respected by the society in which he or she lives. To be human, one also needs to participate in the ongoing process of history, in the molding of the future. Will Asian immigrants ever be able to feel this sense of belonging in this country? If not, are they forfeiting their full humanity by staying here? Are they raising their children in a land where those children will never know the simple but basic joys of being just "one of us"?

Here we see the question that every non-white immigrant must face in the wilderness of marginality, and how one responds to it would be of existential significance to him or her and to every aspect of his or her life. Most of the time the tendency, we are told, is to escape, elude, and avoid. And ultra-nationalism and its opposite, excessive assimilation, are the chief means of escapism[5]. One tries unrealistically to return to his or her homeland while he or she is physically still here. That is, one tries to live only as an Asian, while the reality is both Asian and American. Or one tries, again unrealistically, to live only as an American, rejecting his or her ethnic roots which in the eyes to the white society are not respectable. Extreme nationalism, of course, is the more usual mode of escapism for the first generation to whom the memories of homeland are strong and vivid. Excessive assimilation, on the other hand, is often the tendency we find in some second-generation Asian-Americans.

So, we are back to the wilderness of American society. Marginality is a fact that cannot be avoided. And the question of how to live in it must be faced up to with all the seriousness as we can muster. Now, one thing we must understand as we deal with this question is that it is not simply a social, psychological or philosophical issue, but also a religious and theological one. This is so at least to those of us who embrace the assumption that human beings are essentially "religious" and cannot but ask the questions of ultimate nature. History of humankind teaches us that we are all having to face what Paul Tillich called "ontological anxiety" before the basic uncertainties of human existence, and that human beings have the inevitable predilection to succumb to the temptation to avoid or elude this anxiety. Our problems, then, run deep. The problem of how to live an honest, authentic life in the face of marginality without escaping is in the final analysis a religious issue. Where, and how, can we attain the grace and faith which can give us that essential existential courage with which we can honestly face up to our marginal existence?

2. Pilgrimage as Theological Paradigm

My suggestion is that the biblical notion of pilgrimage may be the concept with which we can most appropriately discern the theological meaning of our marginal existence, in both senses of its meaning.

Who is a pilgrim? Here we offer a working definition: A pilgrim is one who (1) lives with an ultimate loyalty to, and confidence in, the reign of God alone, (2) is willing both to leave the security of one's own home and also to sojourn even in a strange land if necessary, and (3) resists the temptation to idolize either leave-taking or sojourning, either homelessness or home. The pilgrim lives "lightly" with only a tent over his or her head, always willing to embrace the

dialectic of leaving and staying, of home-lessness and at-homeness, out of an unflinching trust in God alone[6].

Our proposal is to reinterpret our Asian-American existence (which I have called "the wilderness of marginality") with the help of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 existence as pilgrimage. Our marginality in the first sense (the bicultural existence) will be seen as possessing the creative potentiality of functioning as a spiritual wilderness which all pilgrims who leave the security of home in pursuit of the promise of God must be willing to enter. Our marginality in the second sense (dehumanization) will have to be seen as a situation that calls for an ethic of re-humanization—that is, a praxis for justice and reconciliation as an essential dimension of the sacred pilgrimage to which we have been called.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this present essay will not yet fully develop such an ethic but rather concentrate upon working out a rough sketch of what the overall picture of an Asian-American theological perspective with pilgrimage as the key hermeneutic motif would look like. The delineation of a more concrete ethic will remain as an important agenda for future work.

Two brief further remarks are necessary in regard to our starting assumptions. The first has to do with the potential applicability of the marginality-pilgrimage perspective to various human contexts other than the Asian-American. With this potentially universal note in the concept of marginality (and, thus, in the concept of pilgrimage), could our Asian-American theology strive to speak to at least some aspects of the condition of *all* human beings without completely losing our contextual concreteness? Tentative observations will be made in this regard at the end of this essay.

The other point to note here is our admittedly theocentric emphasis with the concomitant stress upon the sovereignty of God. We have spoken about pilgrimage as a vocation to which God has called us and is calling us. We start from the

presupposition that the God who is not the God of the past and also of the present cannot be the God of the future.[7] We believe that the questions, Why has God brought us into this American wilderness of marginality, and, What is his will for my present existence in this wilderness? are as important as the question, To what kind of future is God leading us? Further, the ultimate reference point for all Chritian reflection and praxis can only be the end which God himself has in mind for human history—an end which is never reducible to this or that human conception or embodiment. The meaning of the openness in our bicultural wilderness, we believe, can best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image of a Christian pilgrim, for whom Christian existence is essentially a never-ending process of being transformed into a life more consonant with God's will. We must of course never forget the critique which has been sometimes brought out against the perspective outlined here—namely, the charge that a God-centered theology can, though it does not have to, turn into an eternalistic, other-world-oriented worldview which breeds quietism. At the same time, however, we cannot do with a deity who is in any way less than the absolute and sovereign Lord of all human life and all human history.

B. The Faith of Pilgrims

Like Abraham, then, we too are in the wilderness. And our wilderness is called marginality. How shall we live, what shall we do, in this wilderness? To ask this is to raise the question, What does it mean for us to have faith, in our marginal situation? We shall now outline at least some aspects of an answer to this question, utilizing pilgrimage as our interpretive principle. In other words, we will try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our marginal existence with the faith of pilgrims as our model.

1. *Marginal Existence as An Opportunity for Pilgrimage*

A pilgrim is willing to leave the security of home and to enter the wilderness of homelessness in order to be open to the higher horizon of the purposes of God. Viewed in the light of this understanding of Christian existence, the religious meaning of our marginality (in the sense of bicultural existence) can only be this: that we are called to appropriate or use our marginal existence as the path of pilgrimage. The life in a wilderness seems to be a training ground for all those who are called to be God's special servants. Abraham went out from his home looking for "a better country," but God first led him to a life of wandering. The children of Israel did not move directly from their slavery in Egypt to the promised land but were first brought into a wilderness. Jesus himself began his own ministry by first entering a wilderness where he both lived through testings and trials and also experienced the nearness of God the Father.

This is *not* to say that all Asian immigrants are automatically pilgrims. Wilderness is a lonely place where one is constantly tempted to feel homeless, to lose trust, and to build idols. As we noted already, Asian immigrants are tempted to avoid or elude their wilderness of marginality through ethnocentric nationalism, mindless absorption into the American way of life, or other means. The human predilection for a life of security and ease overrides our better instincts and tempts us to shrug off our responsibility to follow the vocation of pilgrimage.

The possibility of appropriating the wilderness as our own can be plainly seen in the creative potentiality inherent in the nature of marginality. To go out from one's homeland and live on the cultural and social boundary line means to be freed from the dominance of one culture or one society. As the bearers of the image of God, human beings were never meant

to live totally enslaved by the confines of certain finite principles, e.g., one's nationality, cultural heritage, etc. Human beings can live only within their concrete contexts, but they are also able to transcend the natural givens, to dream higher dreams and see greater visions. Marginality, therefore, is like the night or desert where all of our little and petty concerns recede into the background and give way to our more ultimate concerns and more significant aspirations. This is why whenever God calls certain men and women to work as his creative coworkers, he takes them out of their life of security and thrusts them into the wide-open space of wilderness. He wants his servants to b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This is why when Jesus callled his disciples, they were asked to leave everything behind and follow him.

The creative potentiality of marginality has been pointed out by some recent social scientists. Arnold Toynbee, the renowned historian, has argued that marginal persons, having been thrown into the land of uncertainties, have to ask themselves who they are and what their life's meaning might be, and that as a result of such self-searching, they can emerge as persons of creative visions and energies[8].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is this sort of marginal persons who can advance human civilizations and cultures. Anthropologist Victor Turner calls marginality a "liminal situation," and points to its peculiar capacity to generate a genuine communion among human being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many feminist writers speak about the inevitability of an "experience of nothingness" for those women who reject the roles and values that have been defined for them by the male-oriented society. Only by living through this spiritual wilderness, argues Carol Christ, can women achieve an authentic sense of self and an authentic and new orientation in the world[9].

What does all this mean for us, the Asian-American Christians? Does it not point to the possibility that our journey

through the wilderness of bicultural marginality can help us achieve a clearer understanding of ourselves and of our place in the world as disciples of Christ? Does it not mean that we have been called to live as pilgrims in search of a more creative and authentic self-understanding and a more faithful Christian service.?

We should hasten to point out that to face up to our marginality in this way is to acknowledge our powerlessness when measured against those who are at the center of the American culture and society. We do not, of course, boast of our powerlessness; there is nothing in that circumstance itself which we would care to be proud about. Marginal powerlessness in itself is no virtue. But, as we have seen, it is precisely through the experience of marginal powerlessness that human beings may achieve a greater self-awareness and creativity. Perhaps it is for this reason that God often seems to choose those who are socially and politically powerless to serve as his special servants. When the boastful accomplishments of human powers and capacities shine and demand attention, the redeeming power of God remains hidden and unacknowledged. God chooses powerless persons. Those who would become instruments of God's will must necessarily undergo a kind of self-emptying and become "earthen vessels" so as to show that "the transcendent power belongs to God and not to us" (II Cor. 4:7). Most of the biblical figures who played some pivotal role in the divine history of redemption were marginal and powerless persons. Consider Abraham, Moses, the major and minor prophets, John the Baptist, Mary, Saint Paul, and even Jesus himself. All of them, as well as so many others in the Bible, were marginal people in their society, or took up marginality to carry out their God-given vocation, not wholly belonging to the power structure of the world in which they lived. Their marginality or powerlessness was used by them to make God's power transparent. They were free enough to live for the purposes of

God rather than for the values of a given society and culture. They were free enough to live as pilgrims in search of the kingdom of God.

So, we shall be what we are, Asian *and* American, and we shall celebrate what we are, not primarily because of any inherent value in us but rather because of our intrinsic purposiveness within God's scheme of things. In other words, the good news for Asian-Americans is that in being culturally marginalized and socially powerless, we have an opportunity to become pilgrims. We can synthesize what is good in the Asian and what is good in the American and forge something that is new[10]. And, as a people different from the dominant group in American society, we can work as creative agents of change who help make this society "a better country."

Some of my fellow Asian-Americans ask, How can anyone be both Asian and American? Would not such a two-sided existence on the boundary be confusing and thus debilitating? All that we have said so far has prepared us for a clear answer to this question. Our ultimate identity lies neither in our being Asian nor in our being American; it lies rather in our having been redeemed by God's electing and atoning grace in Jesus Christ. Our identity is that we are now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God's People." And nothing in creation can separate us from this identity. If this religious dimension of our identity is clearly established in our hearts and minds, then our existence on the cultural boundary does not have to dishearten us. Such an existence will remain somethings confusing and even lonely. But such is our wilderness, and, for pilgrims, a wilderness can be a liberating and broadening experience.

Thus, we are in the wilderness of marginality, called to go out on a journey of pilgrimage. What shall we do? Where shall we go? Ultimately, of course, our destination is the "city of God," and our task one of building a more humane and just society wherever we go. However, we cannot go on this journey as abstract human beings; we have to be concrete persons. And persons live caught up in time—that is, in a past, a present and a future. Without knowing the meaning of our past, we cannot participate in the making of history. Our pilgrimage, therefore, must take the form of a pilgrimage back to our Asian past and also the form of a pilgrimage forward to our Asian-American future.

All persons must take their own journeys back to their ethnic roots. This is true because ethnicity is a gift of God, and also a constitutive or essential element of being human. Nobody is just a general human being. One has to be of a particular ethnic origin. Our Asian past and heritage, therefore, is one of the ways in which God wants us to be human.

Ethnicity for us Asian immigrants in America, however, is of an especially critical importance because it is precisely on the basis of our race that we are often despised and rejected. In fact, our ethnic roots became somewhat invisible already when we were still in Asia. Under the influence of westernized Christianity, the Asian cultural past has been thought of as something that we must leave behind us. Now here in America, Korea's four-thousand-year-old history is almost totally invisible.

We can only be Korean-American pilgrims (or Chinese-American, Japanese-American, etc.); we cannot live and work as Asian-American pilgrims if we do not possess a positive appreciation of the meaningfulness and worth of our Asian past—including its culture and religion. All the cam-

paign to create a better public image of the Asian-American here in the United States will be superficial and in the end without substance if we do not make a sacred pilgrimage to our Asian roots and resurrect in our own souls a living image of our own past. And to do this means, above all, to re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ristian faith and the religious and cultural heritage of our own native cultures.

The missionary activity of the past was sometimes based upon the so-called exclusivist view that all other religions besides Christianity were wholly pagan, heathen, idolatrous, and sinful. To be converted to Christianity has meant, for Asians as well as for other non-western persons, the discarding of their own cultural ethos and thus part of their selfhood. It has meant being ashamed of having had a past, of having had a history, and thus of having been human beings. However, such a reductionist conception of evangelization is not true Christianity but rather an ideology based upon ethnocentrism, and a misunderstanding even of Christian orthodoxy itself[11]. The God of the Bible is not the God of one culture or of one history but of the whole world. Of course we cannot ever compromise the centrality and normativeness of the historical Jesus a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John 14:6). But that he is *the* way does not mean that there may not be other ways in which the eternal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has worked and is working. Indeed, if we truly believe in Jesus as *the* way, we should be diligent in locating and appreciating all of the other lesser or similar ways in which *the* way is manifested and duplicated. Thus, in the name of the eternal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and in the name of the eternal and universal Lordship of Christ, we must make a pilgrimage to all the Asian religious and cultural heritages, and celebrate and rejoice whenever and wherever we find the Logos manifested. So we are not advocating a religious pluralism according to which it does not matter what you believe. We are already committed to Christ as he was incar-

nated in Jesus of Nazareth. He is unwaveringly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Hebrews 12:2). What we are advocating is that in the name of the same Christ our Lord we must regain a new appreciation of whatever God's truth we may discover in our own cultural past. At long last, becoming a Christian should cease to be the humiliation for having had a past!

Thus, we as Asian-American pilgrims must know our own past and learn to respect it. We must gather from it whatever truths we find there which are consistent with God's revelation in Jesus and must use them in building "a better country" here on this American soil. Faith for us includes loyalty to Christ who is in our own Asian past, and the exercise of that faith is to go on a journey of pilgrimage to that past. To forget our Asian past is sin. To despise it is a rebellion against, an unfaithfulness to, the God of all histories and of all times.

It should be immediately added, however, that ethnicity, like all other finite principles, is not absolute and must not be worshipped. Ethnicity is a gift of God, but not God. This is why an ultra-nationalistic, separatist absorption within our own ethnic enclaves is an act of idolatry. Pilgrims of course know this. They are guided by their respect for where they came from. But they do not return to it but go on their journey toward the "city of God." Their ultimate destination transcends all "homelands" on this earth. And their vocation is the never-ceasing transformation of all cultures and traditions. The faith of pilgrims, therefore, is loyalty to the God in their ethnic roots, and not to the ethnic roots themselves.

3. Immigration as Pilgrimage

We have just seen that to live and work as authentic Asian-American pilgrims, we must know and respect where we came from. But it is obvious that we must also know where

we are and where we are going. In order to shape the future course of life and work in a way that is realistic and relevant, we cannot ignore the fact that we have immigrated to America and that an American future is just as much a part of our selfhood as is our Asian past. But why do we need to speak about something that is already a fact that everybody knows? Speaking particularly about th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we ask, Did we not all get the American visa and consciously immigrate to this country? Are we not here in America as immigrants? The fact of the matter is, however, that many of us have immigrated legally and physically but not in spirit and in mind. We know that to immigrate into America in spirit is to enter the land of marginality, to feel the pain of being on the boundary and even of experiencing rejection by the host society. There is a widespread tendency among us to avoid this wilderness by staying within our Koean ethnic enclaves and by nostalgically holding on to only things Korean and rejecting all things new and American. As already noted, this escapist refusal really to become immigrants is the cause of a serious and deepening alienatio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in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ies and families[12]. We are like the Hebrews who murmured against Moses about their hardships in the wilderness, saying, "What have you done to us, in bringing us out of Egypt?. . .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us to serve the Egyptians than to die in the wilderness" (Exodus 14:11-12). We are not saying that the homeland we left was Egypt. Our situation is not completely identical with that of the Hebrews. But we are like them in refusing to march through the wilderness with the faith that God is leading us on a pilgrimage. For this reason, we need to look at the meaning of immigration, and we shall affirm that to immigrate into other lands can be a sacred calling for Christians, for pilgrims.

(a) First of all, there is a sense in which all human beings,

even those who remain in their homelands, are called to emigrate to other lands simply by virtue of their being human. As we have noted already, human beings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hus are inherently incline to look beyond the horizon of their own society and of their own culture. Even those Koreans who are in Korea cannot help but be interested in other lands and other peoples. In this broad sense, they are all immigrants while living in their own country. No human being can live as a human being without becoming an immigrant in this sense.

(b) Secondly, there is only one God, and he has created and is creating everything; there is nothing that is not made by him. "In his hands are the depths of the earth; the heights of the mountains are his also. The sea is his, for he made it; and his hands formed the dry land" (Psalm 95:4-5). This would then imply that all lands, including this American continent, belong to him, and also that all his children should feel comfortable in staying in any part of this universe. Faith in this God, therefore, would mean that we, the Asian immigrants, should be able to live in any city, walk on any street, of this American nation, fully believing that this also can be our home. Is this not precisely what the prophet Jeremiah advised his Hebrew exiles in Babylonian captivity to do? In the book of Jeremiah are the following words:

> *These are the words of the letter which Jeremiah the prophet sent from Jerusalem to the elders of the exiles, and to the priests, the prophets, and all the people, whom Nebuchadnezzar had taken into exile from Jerusalem to Babylon. . .*
> *It said: "Thus says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Israel, to all the exiles whom I have sent into exile from Jerusalem to Babylon: Build houses and live in them; plant gardens and eat their produce. Take wives and have sons and daughters in marriage, that they may*

bear sons and daughters; multiply there, and do not decrease. But seek the welfare of the city where I have sent you into exile, and pray to the Lord on its behalf, for in its welfare you will find your welfare." (Jeremiah 29:1-7)

Like Babylon, this American land is also God's own. Therefore we are being told by Jeremiah that we should not always look back to the land where we were born but should "build houses," "plant gardens," and "bear sons and daughters" in this American land.

But did we not say before that pilgrims do not permanently settle at any one place but are always on the move looking forward to "a better country, that is, a heavenly one"? Did we not say that for a pilgrim there is no true homeland here on this earth? Is not a pilgrim the one who is freed from domination by any finite principle and is thereby always enabled to dream bigger dreams and have higher aspirations? We do not believe that Jeremiah is denying any of this. He is not recommending that we should settle here in America as if this were our absolute and ultimate destination. America, as it is today, is not yet the promised land for anyone. What he is insisting upon, however, is that, in spite of the presence of much human sin and rebellion, the American land is still intrinsically God's own creation, and that for this reason we can sojourn here for a while and pitch tents. What this means is that a pilgrim's detachment from this world must not be understood to mean the Platonic or the dualistic belittling of all that is this-worldly, temporal, and finite. A pilgrim is "detached" from this world only inasmuch as this world is full of sin; but a pilgrim, as a believer in God the Creator of the whole universe, is also the one who is willing to sojourn in this world to work for God's kingdom. So, a pilgrim has the faith to sojourn in any part of this

universe inasmuch as it is the good creation of God, but he or she also refuses to make any part of this world his final homeland inasmuch as he looks forward to the "city of God." A pilgrim believes that the true realization of God's will on earth still lies in the future, but also knows that in and through Christ's redemptive work the realization of God's will can, at least in part, happen already on this earth. We the Asian-American pilgrims, therefore, always look for something better than the present Asia or the present America, but, at the same time, we do not mind staying for a while either in our homeland or in this American land, for we know that they are all God's.

(c) There is yet another way the theological meaning of immigration can be shown—namely, in terms of the doctrines of Christ and of salvation. We cannot do any better here than to begin by quoting from H. Richard Niebuhr, who was himself a second-generation immigrant. He wrote in The Meaning of Revelation:

> *...He (Christ) is the man through whom the whole human history becomes our history. Now there is nothing that is alien to us. All wanderings of all the peoples, all the sins of men in all places become parts of our past through him.*
> *...Through Christ we become immigrants into the empire of God which extends over all the world and learn to remember the history of that empire, that is of men in all times and places, as our history.*[13]

Thus, to become one with Christ is to become loyal to that Christ who can be found to be at work in the life-stories of all human beings. Histories are not usually written, of course, as the histories of Christ's redemptive work. They are merely seen as the stories of the political, social, the economic lives of people. But the Christian understanding of history looks at

the deeper meaning of those histories. All histories are, in other words, the stories of how Christ is attempting—often being misunderstood and sometimes even being crucified—to bring about a reconciliation among human beings and God. Conversion to Christ, therefore, means a conversion in one's memories, an enlargement in one's own consciousness as a history-remembering and history-making being.

We, the Asian immigrants, could have expressed our identification with all the children of God even if we had stayed in our own countries. But by being here on this American continent, we have this special opportunity actually to live and work with the people of another land. We have, in other words, a special vocation—that is, the vocation of demonstrating in our own actual lives our supreme loyalty to the Christ of all nations as we courageously enter into the American world and identify ourselves with that Christ who is already here. We must, therefore, stop vacillating, doubting, and hestitating about whether we really should ever have immigrated into this foreign land. We must stop always looking only backward to our beloved homeland that we once left. We are pilgrims with a task. We must enter into this American society and join our Savior who has already been working here for a long time.

To immigrate seriously into America is, of course, asking for trouble. It is to be willing to become subjectively aware of the objective fact of our marginality. We cannot forget what the author of the Epistle to the Hebrews wrote:

> *So Jesus also suffered outside the gate in order to sanctify the people through his own blood. Therefore let us go forth to him outside the camp, bearing abuse for him. (Hebrews 13:12-13)*

We must at least sometimes go out from our comfortable Asian ethnic communities and churches into the marginal

wilderness of America. We must do this if we are going to be with Christ, for he is there "outside the camp." We must bear whatever abuse Christ himself bears in order to carry out our God-given tasks in this wilderness.

In the American wilderness, Christ and our children are not the only ones we will find. We will also find many Christians of all ethnic backgrounds (including black, hispanic, Native American, and Caucasian persons) who are themselves in some ways marginalized and alienated. We must join with them as well as with our own children here, and then go on to build a genuine human community on this American frontier.

C. Christological Models

The faith of the pilgrim, then, is the faith that must be evoked and nurtured in the lives of the Asian immigrants in America. To do this, however, we need to lift up the concrete images or models that possess creative and transformative power. We can refer to many of the biblical figures as models of marginalized pilgrims with a sacred calling, such as Abraham, Moses, Ruth, the prophets, and so on. But our normative Image or Model, and Savior, is Jesus the Christ who i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Hebrews 12:2). The critically important task that lies ahead of us is to present Jesus Christ to our Asian immigrants a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their pilgrim faith.*

1. Christ the Marginal Person

If we take seriously the doctrine of the Fourth Gospel that "the Word became flesh" in Jesus Christ, the Christ must be

presented to Asian immigrants as a marginal person who did not wholly belong to any existing culture or society and who was rejected by the power structure of his own society. We must present Jesus as he is described in the gospels—a politically and socially "powerless" person who used his "powerlessness" for the reign of God. We do not necessarily have to picture Jesus as wearing Asian dress or as having oriental physical features. But we must not fail to portray Jesus as the gospels portray him—that is, one who identified himself with and befriended the poor, the outcasts, and the marginalized. We do not have to insist that yellow is beautiful. But we must insist that what we do with marginality *can* be beautiful and sacred. And we will not be able to see God's purpose in our marginality until we see that the Son of God was a marginal person.

2. Christ the Crucified

The logic of the Cross is that the giving of love and forgiveness necessitates suffering—that is, the giving of oneself. In this way, even suffering attains meaning. The Asian immigrants as pilgrims need to see that God himself suffered and suffers with them. The life of a pilgrim requires that he give up himself—his security, his self-preoccupation, and his self-interest. To face one's marginality with honesty means that one leaves her homeland, goes out of her comfortable ethnic community, and goes into a foreign land. But the Cross of Christ has shown that to love and care is to give up oneself. It means believing in Jesus who said, "he who finds his life will lose it, and he who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Matthew 10:39). The Asian immigrants need to be shown that the Son of God was willing to lose his own life. Let me make one thing very clear: suffering as such is not a good thing. Suffering or being marginal must not be romanticized. But Christ was willing even to suffer for the purpose of his

love, for the purpose of justice.

3. Christ the Resurrected

It was not just anyone who rose from the dead. The one who proved himself to be stonger than death was the marginal Jesus who was socially and politically "powerless" but who used his "powerlessness" as the opportunity to dream God's dreams and as the challenge to build God's kingdom.

The issue is this: Whose power is the real power—the power of those who have the political and social status, or the power of the marginal pilgrims who struggle for a more just and humane society for this world? It was Jesus who was victorious over death. And this means that when we serve the cause of Christ, the Shalom, we, the marginal, have the real power because the real power belongs to Christ. And this power of God's love revealed in the resurrected Christ gives us the motivation to strive to build a world where no one shall be marginalized by others.

4. Christ the Eschatological Hope

The realities of the present day weigh heavily upon marginal persons. In terms of the way things are, the future certainly does not seem to belong to them. If they are to be motivated to live and work as creative agents of God's kingdom on earth, they need to believe in the *inevitability* of the final triumph of that kingdom. To live as pilgrims, marginal immigrants need to know that the final consummation of history belongs to Christ. They need to know that it is the same Christ who lived on earth as a marginal yet merciful and forgiving Servant who shall come again and consummate the establishment of God's kingdom on this earth.

D. The Task of the Church

The church, then, from our Asian immigrant perspective, is the community of those self-consciously marginal pilgrims with a sacred calling to follow Christ. Within this community, this pilgrim faith will have to be nurtured and practiced. What must the church, then, do to nurture and practice this faith?

1. *The Responsibilities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a) *Apostle (kerygma)*: We must proclaim the good news that in God's eyes we are his children, that we are now "God's people," redeemed through grace from all darkness and sin. We must announce in word and deed the good news that bi-cultural life "on the boundary" *can* be a sacred calling, and that we must make pilgrimages into both our Asian past and our American future. We must call upon our fellow Asian immigrants to meet this sacred challenge instead of avoiding it through either ultra-nationalism or excessive assimilation. To preach such a message, of course, may invite criticism from many sides. Some Korean immigrants, for example, will complain that the church is not Korean enough, while others will complain that it is not American enough. Within the larger Korean ethnic community, the true Korean church of Christ may indeed have to be a "minority" group. Thus, Korean-American churches may have to face a double marginalization—first by the American society and then again by the larger Korean ethnic community which often tends to be nationalistic to ethos. Still, empowered by our pilgrim faith, we must fulfill the prophetic role of criticizing ethnocentrism wherever we find it.

(b) *Pastor (koinonia)*: This nurturing function is a critically important role of our Asian-American churches. The first item on the agenda is to foster a sense of community among those Asian-American Christians who are aware of their marginality and to empower them with a sacred vocational consciousness. The awareness of a shared marginality will tend to create a sense of solidarity that could not be built only on the basis of our common national origin. Such persons may be rather small in number at first. But the health of our ethnic churches will indeed depend on them. Without them, for example, a communication with our second generation will not be possible.

All aspects of the life of the church should, as much as possible, show the respectability of both sides of our identity—Asian *and* American. Asian traditional customs and ideas should be preserved and encouraged. But attention should also be given to the American side of our selfhood. English should be spoken when appropriate. An awareness of the issues and problems of American society should be encouraged. All this should be done with the clear conviction that both sides of our identity can be respected and affirmed because our ultimate identity lies in something that transcends all nationality—namely, in our having been called to be "God's people" through God's electing and atoning grace in Jesus Christ. This means that beyond and above our attention to our racial identities we must instill and nurture in our fellow immigrants an unwavering faith in the indestructible love of God . The more ostensibly social dimension of our nurture and the more ostensibly religious are not in any way separable from each other. But still they are not reducible to either the one or the other.

The most urgent note that needs to be sounded in regard to the church's pastoral or nurturing function, however, has to do with the plight of the second generation. The marginality theory tells us that the immigrant youth may have a far

greater sense of marginality than any other group. The way things are right now, these young people feel rejected and alienated by both sides of their Asian-American identity. They are rejected by the white American society. By when they return to their Korean homes and to their Korean churches, they are often alienated against because their parents and elders disapprove of their "excessive" Americanization. These young people urgently need the nurturing ministri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ey need to be told that they, as Asian-American Christians, are part of God's Family. Churches should not be ashamed to be truly Asian-American, bi-cultural, so that they can show in deed that these Americanized Korean youth can be proud of their hyphenated identity.

(c) *Pioneer (diakonia)*: The pioneer function of our churches is to live the pilgrim faith in actual life so as to provide the world at large with an example of what a Christ-centered life can be. The Korean immigrant church's need to become actually Asian *and* American in character has already been discussed. What we need to highlight here is our church's responsibility to build a bridge of mutual support and encouragement with churches of other ethnic backgrounds. Since the Korean immigrants perceive themselves as being marginalized and even rejected by the Anglo-American society, they find it difficult to establish close ties with American congregations. As far as I know, most attempts at joint programs and meetings have had only a very limited success. But this should not discourage us. As indicated already, there are many Anglo-American Christians who feel alien in their own churches. They can be fellow pilgrims with us.

Also, our responsibility to cooperate with all Christians of all races in our common struggle for humanization and justice cannot be overemphasized. As strangers, we know the heart of the stranger.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help

build the true home where all peoples, women and men, will rejoice in God's love and in genuine human communion. In this struggle, we need to learn much from the Black, Hispanic, and Native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 as well as from many white American Christians who know they are pilgrims.

2. Some Implications for the White American Churches

The Asian-American theology cannot determine what the Christian theology within the white American context should be. Nevertheless, if what we have said so far is basically a Christian perspective, it should have some valid implications for American churches in general.

(a) Marginality as an opportunity for pilgrimage and service: We have interpreted marginality as possessing a potential for self-transcendence and creativity. We have affirmed that marginal persons are called by God to live and work as pilgrims toward "a better country." In this world that is governed so often by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Christians can only be "exiles and aliens," that is, pilgrims.

Much of American Christianity needs to become a little marginal—that is, to be liberated from the overpowering influence of the American culture. American churches must not be afraid to go "outside the camp" where Christ is—that is, into the wilderness of cultural and social "in-betweenness." American Christianity must become culturally "open" so that many sorts of persons can find a sense of community in it.

The hope for white American churches, then, lies in those faithful ones who are willing to be pilgrims. I know many white American Christians and their leaders who love Jesus of Nazareth in their hearts but feel like strangers in their own churches. I know many white Americans who feel diminished and powerless because of their social and economic status,

their profession, or their sex. These persons need to be told that their marginality though not a virtue in itself, can still be used for pilgrimage and for creative service. They need to be told that they can be beautiful people who live for the future as defined by Jesus Christ and not for the future as defined by the rich and the powerful.

(b) *The Pilgrimage to One's Ethnic Roots*: We interpreted ethnicity as one of the divinely appointed ways in which human beings are human beings. But we also pointed to its finitude. One implication of this, at least, is that the white American Christians must go on a journey to their particular ethnicity. Thinking of the caucasian ethnicity as one among many families of human beings rather than as the super race, may have many salutary results. Benjamin Reist has expressed the matter as follows:

> *One cannot think black or red at the same moment without doing violence to one or the other. And so the road to inexhaustible freedom for whites involves becoming neither black nor red, but white, for the first time. It involves becoming white as liberated into particularity, the particularity of being one component in the full mosaic that is humanity; becoming white in such a way that white cannot be white unless red and black are equally present in the historical space that is human liberation.*[14]

(c) *Immigration as Pilgrimage*: Finally, we have interpreted immigration into other cultures and histories as an integral part of one's conversion to Christ who is the Lord of all cultures and histories. It is often said that America is a land of immigrants;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most Americans have ceased to immigrate a long time ago. Just as in the case of many Korean immigrants, Americans too have the tendency to succumb to the temptation to limit the

horizons of their life to the comfortable world of their own culture and their own ethnicity. Is it not incredible that, in a land that boasts of being the land of immigrants, very few people are capable of, or interested in, speaking foreign languages? Is it not also noteworthy that a culture that at one time aspired to become the "melting pot" of all human traditions has largely dismissed as pagan and worthless many of the world's religious and cultural traditions?

The implication of the conception of Christian existence as pilgrimage would be that the white Christians, like Asian immigrants, have the responsibility to lead their people on an unending journey of pilgrimage to "a better country." And such a responsibility would certainly include the task of becoming spiritual immigrants into other cultures and traditions. The white Christians, like all others who would live as pilgrims, must find a way to let the Christ of the whole world become their Master and Lord even in their historical rememberings by learning to respect and honor him wherever the traces of his presence are found. Gleanings from such rememberings may indeed help all of us in achieving an every greater understanding of what God has been trying to tell us in Jesus Christ. In order to embark upon such a pilgrimage, the white American Christians, just as the Asian pilgrims, of course, must begin with their firm self-identity as "God's people"—that is, as the children of God who have been called by God's grace to live for Christ and to live in Christ. All Christian pilgrimages are grounded and have then ultimate goal in the Go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NOTES

[1]Everett V. Stoneguist, *The Marginal Man: A Study in Personality and Culture Conflict* (New York: Russell & Russell, 1937), p.8.

[2]Charles Marden and Gladys Meyer, *Minorities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1968), pp. 44-45.

[3]Stonequist. p. 139; Alan Kerchkoff and Thomas McCormick, :"Marginal Status and Marginal Personality," *Social Forces* 34 (October, 1977), pp. 48-55.

[4]Won Moo Hurh, "Comparative Study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S.: A Typological Study," in B.S. Kim, et al, editors, *Koreans in America*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lars in North America, 1977), p. 95.

[5]See Milton Gordon,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Ch. 5; Stonequist, pp. 120-200.

[6]This is a tentative working definition. J.B. Soucek, "Pilgrims and Sojourners: An Essay in Biblical Theology," *Communion Viatorum* I (1958, pp. 3-17; Victor Turner and Edith Turner, *Image and Pilgrimage in Christian Culture: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7]See Langdon Gilkey, *Reaping the Whirlwind: A Christian Interpretation of History* (New York: Seabury Press, 1976), pp. 226ff.

[8]See Stonequist, p. 219.

[9]Carol P. Christ, *Diving Deep and Surfacing: Women Writers on Spiritual Quest* (Boston: Beacon Press, 1980), p. 9-14.

[10]For a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possibility of a new "Korean-American ethnicity," see Won Moo Hurh, "Toward a New Community and Identity: The Korean-American Ethnicity, "Byongsuh Kim and Sang Hyun Lee, Editors, *The Korean Immigrant in America* (Montclair, NJ: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lars, 1980), pp. 1ff.

[11]See Tongshik Ryu, *The Christian Faith Encounters the Religions of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65), pp. 149-184); also, Kosuke Koyama, "Christianity Suffers from 'Teacher Complex,'" Gerald H. Anderson and Thomas F. Stransky, Editors, *Mission Trends No. 2: Evangelization* (New York: Paulist Press, 1975), pp. 70-75.

[12]See Eui-Young Yu, "Koreans in America: Social and Economic Adjustments," Byongsuh Kim and Sang Hyun Lee, *op cit*, pp. 75-98; also, Won Moo Hurh and Kwang Chung Kim,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 (Macomb, IL: Western Illinois University, 1980).

[13]H. Richard Niebuhr, *The Meaning of Revelation* (New York: Macmillan Co., 1962), p. 116.

[14]Benjamin Reist, *Theology in Red, White and Black*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5), p. 183.

성서 속의 이민

김 윤 국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서 속에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동하며 살아온 일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다음의 세가지 제목으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성서 속의 사람들

둘째. 히브리 민족의 이동

셋째. 이민생활의 원리

I. 성서 속의 사람

기독교인의 성서라면 구약 39권(천주교에서는 46권) 과 신약 27권을 말한다. 이 66권의 책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으시고 기르시고 훈련하시고 구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시으신 기록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기록이며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기록이고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종결 시키실 내용의 기록이다.

성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사실을 찾아 본다. 그러므로 성서는 하나님과 상관된 사람들의 생활 기록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짝을 얻어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면서 이웃과 사귀다가 죽는 이야기가 성서 속에 가득히 담겨 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수리아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간 이야기가 있고, 그의 후손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죽은 이야기가 있으며, 그의 후손들이 모세의 인도 하에 가나안 땅으로 거처를 옮기던 기록이 있다.

신약에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백성들의 병을 고치시고 이웃을 섬기다가 원수들에게 붙잡혀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셔서 만 백성의 구주가 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삼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찾아 다니면서 믿음의 높은 절정에 이르기도 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마16:23) 하는 책망을 받던 일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활의 방향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전하던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성서는 구약이나 신약의 구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던 옛 사람들의 생활을 기록해 주는 책이다.

Ⅱ. 히브리 민족의 이동

성서가 주로 기록해 주는 사람들은 히브리민족이다. 히브리사람이라는 말은 '이브리이'라는 히브리어로서 " 건너온 사람"의 뜻이 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사람이라고 하였는데(창 14:13) 그는 동방에 있는 곧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지중해연안의 가나안땅으로 온 사람이었다.(여호 24:2-3)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다.

히브리사람 중에서 후대에 유명해진 사람이 야곱이었고 그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으므로(창 32:28) 후대에 히브리사람들을 이스라엘사람이라고 불렀다.

또한 히브리사람들이 주전 11세기 말 가나안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나라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후부터는 그들을 이스라엘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민족을 가르키는 이름으로 히브리사람이나 이스라엘사람이나 유다사람은 모두 같은 백성을 말한다. 그런데 성서에는 주로 이 백성들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백성의 이름을 히브리사람이라고 통용하겠다.

인류역사의 흔적을 상고하면 히브리민족은 오늘 중동(中東) 이라고 알려진 지방에 거주하던 셈족의 한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성서가 기록해 주는 사람들은 주로 중동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대략 주전 2000년으로 부터 주후 150년 경에 살고 지나간 셈족의 일부 히브리민족이다.

구약성서의 책들은 모두 히브리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속에는 그들의 세계관과 생활양식과 신앙내용이 묘사되어 있다.

신약성서 27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외하면 모두 히브리사람들의 글이라고 생각된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사도가 "할례당"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골 4:10-14) 히브리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이 생각된다.

그렇게 보면 성서는 주로 히브리사람들에 관한 글이라 하

겠다. 연대로 말하면 대략 주전 2000년 아브라함시대로 부터 주후 150년 사도시대에 이르는 기간이다.

성서의 기록형식은 여러가지이다. 이야기가 있고 시가 있으며 편지가 있고 지혜문이 있으며 복음서가 있고 계시록이 있다. 이 여러 종류의 문학형식 속에 우리는 옛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취급하셨는가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 히브리사람들과 말씀하시던 성서를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성서가 기록해 주는 히브리사람들의 살림은 이동하는 생활이었다. 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한 고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으로 이동하며 이민생활을 하고 살았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모세의 인도아래 시내광야로 나왔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 갔다.

주전 11세기에 히브리민족은 다윗왕의 영도하에 통일 이스라엘을 세웠다가 주전 10세기에 나라가 둘로 갈리어졌고 주전 8세기에 북쪽 이스라엘사람들은 앗수르나라로 강제이송이 되었으며 주전 6세기 남국 유다백성들은 바벨론 으로 강제이송이 되었다.

주전 6세기 말엽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 옛 가나안땅으로 이동하였으며 주후 1세기 로마제국시대에 히브리민족은 로마의 넓은 판도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행 2:9-11 참조)

이렇게 볼 때에 성서가 기록해 준 히브리사람들의 살림은 한 곳에 정착함 없이 이동하는 생활이었다.

Ⅲ. 이민생활의 원리

한 고장에 정착함 없이 이동하며 살던 히브리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더하여 세상사리를 "나그네"와 같다고 생각하였다. "객"이나 "행인"같은 것이 인생살이라고 생각하였다.

창세기 49장 9절에 의하면 야곱이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이주한 후 애굽왕의 문안에 응하여 대답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하였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서 속에 나타나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란 본래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와서 얼마동안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나그네라고 표현하였다.

레위기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뜻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토지는 다 내(하나님의) 것임이라 너희는(사람들은) 나그네요"(레 25:23) 시편 시자는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시 39:12),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아오니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시 119:19),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시 119:54)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역대상 저자는 "주 앞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대상 29:25) 라고 쓰고 있다.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편지"(벧전 1:1-2) 하면서 권면하였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1).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옛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것을 증거함으로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 11:13-16)

이처럼 성서에 나타나는 히브리사람의 신앙내용 한가지는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이다. 인생은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나그네로 이 세상에 와서 얼마동안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이 세상 사람의 본향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 4:20)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

그러므로 성서에 나타나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세상의 고향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하는 인위적 조건들은 나그네생활에 필요한 잠정적 부수조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생활조건의 변화에 따라 같은 나라에서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을 큰 변동으로 느끼지 않았다. 도리어 그같은 잠정적이고 부수적인 생활조건은 형편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 오직 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된 것은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본향을 떠나 하늘의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서 합당하게 사는 일이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따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 (벧전 2:11-12) 하는 것이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에게는 민족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사회계급이라든가 거주지 같은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갈 3:28) 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나그네로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합당한 생활원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주전 7세기의 히브리 선지사 에

레미야의 글에서 나그네로 세상에 사는 신앙인의 생활원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주전 6세기에 가나안땅 남쪽에 자리잡고 있던 유다나라가 바벨론왕 느브갓네살(주전 605-562)의 침략을 받아 주전 587년에 멸망되었다. 이 일에 전후하여 바벨론 나라는 유다나라의 왕 여호야긴(주전 598-597)과 시드기야(주전597-587)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하 24:15, 25:7) 그 밖에 왕족과 귀족과 군인과 기술사와 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바벨론까지 끌어갔다(렘 52:28-30).

이에 따라 강제로 이민을 당한 히브리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외국의 포로가 된 신세를 슬퍼하며 자기들을 잡아간 원수 나라 바벨론에 대한 복수심으로 끓고 있었다. 그들은 그 당시 마음에 일어나는 슬픔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를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시 137:1-4).

그들은 그 당시 마음에 일어나는 복수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자손을 치소서…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시 137:7-9).

그런 슬픔과 복수심 속에 살던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의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편지 한 장이 왔다. 예레미야는 히브리인들에게 높히 존경을 받던 선지자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옳게 전해 주던 진실한 신앙 지도자이었다. 그러므로 히브리 포로들은 예레미야에게서 온 편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소식으로 믿고 있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렘 29:4).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써 보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렘 29:5-6).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브리 포로들에게 전하는 교훈은 바벨론에서 짐을 풀어 놓고 살라는 것이었다. 원수 바벨론 나라가 망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었다.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들을 낳아 결혼시키며 거기서 번성하기를 도모하라는 것이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렘 29:7).

히브리포로들은 원수 바벨론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동포로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멸망을 기다리지 말고 그들이 잘 되기를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평안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평안하여야 거기 사는 히브리포로들도 평안하리라는 말이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렘 29:11).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 오게 하리라"(렘 29:10).

이 예레미야의 편지 속에서 우리는 히브리 신앙인의 이민생활 원리를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그네와 같이 세상에 얼마동안 사는동안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짐을 풀어 놓고 살아야 된다. 그 땅의 원주민과 사귀고 그들과 형제같이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 원주민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된다. 그리하여 그 고장 사람들과 공존공영(共存共榮) 하여야 된다. 이것이 인생 나그네의 생활원리요 이민생활의 원리이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히브리 포로들을 교훈한 생활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교훈을 통하여 더욱 명료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 5:43-45)

이 만인동포(萬人同胞) 의 원리에 근거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하라" (마 28:19-2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1:8).

이 분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온 세계를 일터로 삼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나섰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 앞에는 인위적인 국경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었다. 그들 앞에는 오직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엡 4:5-6) 하는 신앙만이 뚜렷할 뿐이었다. 사람이 어디 살든지 어느 민족 사이에 살든지 나그네에 합당한 살림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성서 속에 묘사된 히브리 이민들의 생활

양식을 생각하였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사람을 지으시고 기르시고 구원하신 내용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성서 속에서 우리는 여러 모양의 인간생활을 찾아 본다.

성서가 묘사해 준 인간생활은 주로 중동지방에서 주전 2000년과 주후 150년 사이에 살고 지나간 히브리 민족이나 히브리사람들은 여러가지 연유로 인하여 한 고장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때와 형편을 따라 이리 저리 이동하며 살았다. 이 경험을 통하여 히브리사람들은 인생이 나그네라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인생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와서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이민 온 나그네라고 믿었다.

이런 이민의 생활원리는 나그네로 사는 고장에서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며 장가 시집가고 자녀를 낳아 길러서 출가시키며 사는 것이다. 그 고장의 원주민들과 사귀며 그들이 잘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고장의 평안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고장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 고장사람들이 원수라할찌라도 그들을 형제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백성의 아버지시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디서 어떤 백성들 사이에 살든지 하나님 나라인 본향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서가 가르치는 세상이민의 생활원리이다.

80년대 장로교 선교 방침*

J. 오스카 맥클라우드 (Oscar McClaud)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예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서 1:3-11

---

* 이 글은 남북장로교가 연합하기 전에 행해진 연설의 본문인고로 용어가 맞지 않는 점이 있으나 내용이 읽어볼 만한 글이기에 그대로 여기에 포함하였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편집인)

이날 저녁 강연을 위해 부탁받은 본대회 제목에 따르면 "미합중국 연합장로교의 선교방침"이라는 주제를 다루기로 되어 있었지만 저는 "은혜에 참예한 자들"이라는 부제를 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10차 연례 전국 한인 장로교 회의를 위하여 여기 모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이며, 제가 오늘 저녁 여기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초청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연합장로교의 선교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제하에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주로 프로그램 에이전시(Program Agency)의 직무에 관련된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제가 이날 저녁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한 사람의 흑인 장로교인으로 저의 특수한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겪고 있는 제반 관심사와 무언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재미 한인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는가를 살펴 볼 때 정말 참 잘 시작했다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80년대 선교에 대하여 프로그램 에이전시에서 정립되어 가고 있는 미래를 위한 잠정적 방침 중 몇가지를 여러분과 같은 모임에서 나누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기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과 저는 미국 사회 속에서 어떤 면에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이 인종적/민족적 소수라는 처지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와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데 대하여 저와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결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러분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도 받아드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압도적인 백인 문화·사회 안에서 살고있는 인종적/민족적 소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처지를 불리한 점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보일 수 있읍니다. 저는 소수민의 처지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 중에 속합니다.
이는 소수인에게 어떤 특혜, 특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독특한 기회와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이 나라와 사회에 다만 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수립하는 임무가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하는 책임 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 상현 박사는 한인 이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개념을 "문화적 주변성"으로 묘사하였읍니다: "한인 크리스챤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지니고 이 나라에 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삶이 이국인과 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적 소수민이라는 바로 그점에 봉사와 증거를 위한 가장 지대한 기회가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 안에서 한인 이민교회의 외인적 위치가 그들이 주님을 증거하게되는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함께 인종적/민속적 소수의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똑같이 살아 남고자 하는 본능과 욕구를 가지고 있읍니다. 흑인 장로교인들은 이것을 노예제도 하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에게서 배웠읍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노예제도의 체재하에서 죽어 갔지만, 그러나 수천명이 살아남았으며 그 결과 오늘날 이 나라에는 약 이천 오백만 내지 삼천만의 흑인이 살고 있읍니다. 여러분 역시 생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읍니다.
무슨 이유로 여러분이 모국 땅을 떠나 왔든 여러분 역시 생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어분은 어떤 이름없는 이런 저런 이유로 쇠약해져 살아지기 위해 여러분의 모국땅을 떠나온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

니다. 한인 장로교인들과 흑인 장로교인들은 생존하고자 하는 열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읍니다. 아니, 생존 그 이상의 것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메이플라워호 이전에 이곳에 온 그들을 선조로 두고 있는 한 사람의 흑인 미국인으로서, 그 선조들이 미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들판과 방앗간과 공장과 강 위에서 수고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의적으로 이 미국땅 해변을 선택하지 아니한 선조들을 두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재미한인들이 미국의 흑인들에게 있어서, 스페인계 미국인에게 있어서 또 미국 원주민에게 있어서, 그리고 미국에 먼저온 동양계 미국인에게 있어서 미국의 경험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시간을 들여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다른 소수민들의 미국 경험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되며 여러분 자신의 미국 경험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번영까지도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회에서의 여러분의 생존은 다른 소수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다른 소수민들에게 지금까지 일어 났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루어질 수도 없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수의 경험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이가 흑인도 동양인도 미국 원주민도 스페인계도 아니라면 그의 말을 믿지 말 것을 강조하고 싶읍니다.

재미한인들에게 이와 똑같이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국적 전통을 부인하지 않고도 이곳에 올 수 있게 되기 까지 이 나라의 다른 소수민들이 치른 댓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한국적인 것이 아름답다"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검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기 위하여 치른 댓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이들에게는 믿기 힘들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십 년 전만해도 백인 유럽의 것이 아니면 자기의 문화적 전통이나 신분을 자신있게

내세우는 데 대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 여러분과 저는 인종적/민족적 소수민으로서 미국을 미합중국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의와 만인에 대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야만 하는 미완성의 사명감을 함께 지녀야만 합니다. 지난 이십 년의 그 어떤 때보다 지금 우리 같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불의한 일들이 수는 도선에 맞서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빈곤과 불의와 차별과 내적 도덕적 타락을 은닉하기 위하여 종종 사용되는 대중 물질주의에 기만당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혀 상이한 두 개의 사회가 있읍니다. 곧 부유하고 풍요한 이들의 세상과 가난하고 빈곤에 찌든 이들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의 현재 정치적 기류가 이러한 차이점들을 더 두드러지게 하지 않나 매우 두렵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 이렇게 풍요하면서도 이렇게 빈곤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미합중국의 장기적 안보에 대한 제일 큰 위협이 바로 이러한 국내 상황일 것입니다. 이것은 소련이나 막스주의가 초래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덧붙여 두고 싶읍니다. 이 나라 스스로가 이러한 국내상황을 만들어내었읍니다.

저는 장차 재미한인들과 미국 흑인들이 상호 관심사, 특히 한인들과 흑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역사회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단순히 장로교보다는 더 폭넓은 차원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연합장로교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읍니다. 제가 1978년 샌디애고 총회를 떠나올 때는 재미한인을 위한 사역에 무슨 일이 전개될지 정말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 효근 목사와 기타 다른 이들의 안내와 조언에 큰 덕을 입었읍니다. 저는 유 호근 목사가 때때로 오해를 받

았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목사는 연합장로교에 대하여 헌신적이었으며 연합장로교가 기능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더 광범위한 한인장로교인들의 공동체에게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읍니다.

저는 이 교단 내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아 재미한인을 위한 사역에 힘쓴 네 분의 한국인 총무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감사를 표명하고 싶읍니다. 중서부지방 총무인 현순호 박사는 카버넌트 대회, 링컨 트레일스 대회, 레이크스 앤드 프레리스 대회, 미드 아메리카 대회 내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그의 사무실은 시카고 노회에 위치하고 있읍니다.

북동부 총무 신 성국 목사는 노쓰이스트 대회, 피에드몬트 대회, 트리니티 대회 내에서 일하고 있으며 뉴욕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읍니다.

남동부 총무 최 창욱 박사는 사우쓰 대회와 썬 대회와 남장로교 내에서 일하고 있으며 애틀란타의 남장로교 본부에 그 사무실을 두고 있읍니다.

서부 총무 김 용준 목사는 퍼시픽 대회, 알라스카/노쓰웨스트 대회, 록키 산맥 대회, 남가주 대회, 사우쓰웨스트 대회 내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사무실을 금문교 선교지역에 두고 있읍니다.

재미한인을 위한 사역에 대한 고문 위원회의 노고는 많은 치하를 받을 만한 것이 있읍니다. 특히 전 위원장 레이 보우든(Ray Bowden) 씨는 재미 한인을 위한 사역에 있어 본 교단의 지도적 역할을 하기에 그의 시간을 아끼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은 아직 앞에 남아 있읍니다. 곧 수많은 한인 장로교인들에게 연합장로교와 남장로교의 교단 안에 그들을 위한 자리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서로의 기대에 어긋나게 될 뿐 아니라 주님의 뜻을 거스리게 될까 두렵읍니다. 저는 자문 위원회의 새 위원장인 버트 탐(Bert Tom) 씨가 이

일을 잘 주도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연합장로교가, 특별히 프로그램 에이전시가 재미 한인 장로교인들이 미합중국 연합장로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한 훈련과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공급하여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잘 시작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제안을 듣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프로그램 에이전시는 금년 해외의 관련 교회들과 협의하기 위한 수차례의 모임을 가신 바 있습니다. 이 모임 중 하나를 한국의 장로교와 가졌읍니다. 미국 장로교와 호주 연합교회와 연합장로교와 한국의 장로교가 참가한 이 모임에서 아주 확실히 나타난 것은 한국의 장로교가 한민족 교회로 존속하는 데 있어서 보다 증가된 자치 감각의 모범을 보이고 또 실천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읍니다. 프로그램 에이전시의 대표들은 모든 문제를 탐구해 볼 자세로 한국에 갔었지만, 우리는 아마 네 협동교단 간에 또 하나의 3개년 협약이 있게 되리라 짐작했었읍니다. 그러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은, 한국 장로교가 연합 장로교와 같은 여러 교단들을 향한 선교사업을 위한 자체 내의 총회 세계선교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1개년 협약이었읍니다. 프로그램 에이전시는 한국의 이러한 새 선교방침을 환영합니다.

1982년 봄쯤 열리게 될 다음 모임에서 프로그램 에이전시는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미합중국 국내 선교에 있어서 연합장로교를 어떻게 도울지를 한국의 장로교회들과 토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한국의 장로교회들과 새로운 단계의 상호관계에 접어 드는 이때, 프로그램 에이전시는 동부 아시아를 위한 연결책으로 이 승만 박사를 자체 간사로 두는 축복을 받았읍니다. 이 박사는 그가 방문한 여러 곳에서 프로그램 에이전시와 연합장로교의 대표로 환영을 받았읍니다. 이 박사는 한인 장로교인들이 연합장로

교의 온전한 선교에 끼칠 수 있는 공헌의 한 예입니다.

제가 이미 말한 것에 덧붙여서—그중 몇 가지는 80년대를 위한 과제 중의 몇 가지를 차지하기도 하는데— 몇분 동안 프로그램 에이전시가 80년대에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방향에 대하여 하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제들이나 방침들은 교단이나 에이전시가 하는 모든 일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강조하게 될 몇가지 일들입니다.

1. 연합장로교가 하나의 교단으로 그 존속을 결정하고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서 연합장로교가 당면한 과제는 「상호의존하는 세계에서의 삶에 대한 폭넓은 복음적 이해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이 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곧 우리 연합장로교가 교인과 개교회와 각 치리 기구의 차원에 있어서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찰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확립시킬 때 연합장로교가 인종주의와 군국주의와 가중되는 빈곤의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뿐 아니라 전세계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연합장로교의 활동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프로그램 에이전시는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연합장로교의 일반회중에 가 보기만 하면 80년대에는 이 과제에 대하여 보다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너무도 많은 미국인들이 그 중에서도 너무도 많은 장로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계의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재미한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호의존하는 세계에서의 삶에 대한 폭넓은 복음적 이해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에 많은 공헌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2. 연합장로교가 그 특징을 살려나가면서 취하는 두번째 선교방침은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새로운 유형이 그리스도안에서의 새 삶으로 표현되는 세계에서의 전인적 인간상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당면과제는 연합 장로교가 어떻게 개개인이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관점 아래 사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교단이 국내와 국외에서 복음 증거에 중대한 역할을 계속 담당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위해 모든 사람에 대한 기독교공동체의 증거가 새롭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사회구조와 가치관에서부터 시작하여 미국 기독교인의 편에서 이러한 사역을 확대시켜야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계 각처에 그들 자신의 삶이 미합중국 정부의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 현대 사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연합장로교가 당면한 세번째 과제는,

「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자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과,

나. 정의와 자유와 인권을 추구하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선교전략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프로그램 에이전시는 연합장로교가 기독교 공동체를 넘어 세계에 선교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과 온전히 동심일체가 되는 길 뿐 아니라 복음의 수권적 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길을 포함합니다. 마태 25:31 이하를 참고하십시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능력있게 일합니다. 이 현실의 표상이 부활인데 첫째는 고난과 나아가서 종국적으로 십자가의 체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력한 이들을 자선의 새로운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확신과 기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이들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들의 주장을

밀어주고 힘을 불어 넣어주는 일을 자기 일로 삼고 있읍니다. 이러한 선교방침은 재미 한인장로교인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에 대한 여러분의 사역에서 재미 한인 기독교인들이 중대한 위치를 차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나라에 또 전세계에 걸쳐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분야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4. 연합장로교가 세계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선교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취하는 네번째 선교방침은 「다른 교회들과 함께 선교에 임하겠다는 것을 거듭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이러한 방침을 추구할 때 프로그램 에이전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다른이들과 전통적인 인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 이상의 어떤 자료를 공동부담할 것인가?
— 어떤 방법의 자금전달이 다른 교회의 자치성과 존엄성을 가장 존중하는 길인가?
— 급속히 증가되는 경비의 시대에 프로그램 에이전시의 직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재원이 사용될 수 있는가?
— 어느정도로 우리는 에큐메니칼 기관에 대한 지지를 계속할 것인가?

이러한 선교방침을 앞으로 추구할 때 프로그램 에이전시가 가지는 우선적 과제는 "연합장로교회와 그리고 각 협동교회나 기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선교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자체의 자치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선교방침은 앞에 말한 세 가지 방침과 마찬가지로 연합장로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제들은 오늘날의 모습의 우리 교회와 우리가 희망하는 모습의 우리 교회의 기본 성격과 연관된 일입니다. 연합장로교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침이 우리를 기독 교회답게 해주는 데 큰 몫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강조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곧 미국에 사는 인종적/민족적 소수민들이 서로 상호 유대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 한인 장로교인들은 흑인 장로교인들과 같이 순례자들입니다. 자기의 뿌리의 원적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하여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재미 한인 장로교인들에게 이러한 순례의 길은 지리적 의미가 있는 반면 흑인 장로교인들에게 이 순례의 길은 지리적 의미는 없지만 지대한 심리적·영적 의미가 있읍니다. 흑인 장로교인들은 교회와 사회와 역사에서 그들의 뿌리를 찾고 있읍니다. 한인 장로교인들은 새 땅에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한국의 뿌리를 결코 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흑인 장로교인들은 장로교의 역사와 선교의 주류를 떠나서는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복음 사역의 참으로 온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흑인 장로교인들은 미국에 사는 전 흑인 복음화의 일환이 되려는 사기를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재미한인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도전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재미 한인 기독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이 상현 박사의 말을 들어 봅시다.

"우리는 적어도 때때로 우리의 안락한 한인 공동체와 교회를 떠나 미국의 주변적 광야에 들어가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영문 밖에' 계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몸소 겪으시는 고초를 겪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십자가 옆에 굳게 서 있는다면 우리는 또한 그의 능력에, 그의 부활에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이란 광야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자녀만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그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주변화되고 유리된 많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미국인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 자녀

들뿐 아니라 그들과도 합류하여 이 미국의 프런티어 (American frontier) 에 참다운 인간적 공동체를 체험하고 그것을 계속 건설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 미국에 여러분의 도전과 저의 도전이 있읍니다. 연합장로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우리에게 연합장로교에 대하여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갖는 도전은 보다 큰 신앙공동체가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변할 수 없는 그 귀한 보물을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침체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떠날 수 있게 도와 주소서.
안락하기만 하려는 시험에서 건져 주시고,
오늘 주신 이 소명에 성실하게 힘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삶을 감사하게 깨우쳐 주소서.

MISSION DIRECT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80's

*J. Oscar McCloud**

> "I thank my God in all my remembrance of you, always in every prayer of mine for you all making my prayer with joy, thankful for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And I am sure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at the day of Jesus Christ. It is right for me to feel thus about you all, because I hold you in my heart, for you are all partakers with me of grace, both in my imprisonment and in the defense and confirmation of the gospel. For God is my witness, how I yearn for you all with the affection of Christ Jesus. And it is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with knowledge and all discernment, so that you may approve what is excellent, and may be pure and blameless for the day of Christ, filled with the fruits of righteousness which come through Jesus Christ, 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Philippians 1:3-11.*

Although your invitation to address you this evening suggested that I was to speak on the topic "Mission Directions

*(*This speech was delivered in 1982 before the reunion, but is still printed here because of the enduring value of its basic message. The Editor)*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I would like to subtitle my address, "Partakers in Grace," for that is certainly what you and I are. It is by the unqualified grace of God that you are gathered here in the 10th Annual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Conference. It is by that same grace that I stand here before you tonight.

I am flattered by your invitation. And I am very happy to speak about the Mission Directions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although admittedly what I shall say under this topic will be related primarily to Program Agency responsibilities.

I am happy to be here tonight becuause I believe that speaking to you from my particular perspective as a Black Presbyterian will have some relevance for the kinds of common concerns which you and I share. I am also pleased to be here becuase I believe as we look at whence we have come in Korean American ministries, we can rejoice for a good start—a good beginning.

And I am pleas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share with a group like you some of the tentative future directions which are beginning to evolve in the Program Agency about mission in the 80's. Let me begin first with what you and I share in common.

You and I share something of a common condition within the American society, and it is known as the status of being a racial/ethnic minority. I hope that you will agree with me that we share this in common. If you do not accept that conclusion, then obviously you will not accept what follows.

You and I are racial/ethnic minorities in a predominately white culture and society. Some may see our status as a disadvantage. But for others, it seems as a God-given opportunity. I am among those who see my minority status as an opportunity. This is so not because a minority provides some special privileges, but because of the peculiar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he responsibility of reminding this coun-

try and society of the unfinished task of establishing freedom and justice for all, and not just for some. Dr. Sang Hyun Lee of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describes this idea as "cultural marginality," speaking of Korean immigrants. "Korean Christians come to this country with a great religious tradition, but I choose to point to their life as aliens and sojourners because it is precisely in their cultural minority status that their greatest opportunity for service and witness may lie." He goes on to say, "Is it just possible that the alien status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American society is the singularly most important opportunity they have in their witness to their Lord?

In addition to sharing the status of being racial/ethnic minorities, we also share in common the instinct and the need to survive. Black Presbyterians have learned this from ancestors who lived under slavery, and although untold numbers of my people perished under the system of slavery, yet thousands survived and, therefore, some 25 to 30 million Blacks are in this country today. You, too, have sought to survive. Having left, for whatever reasons, your native country, you, too, seek to survive for surely you did not leave your motherland simply to perish by some other unknown cause of death. So, Korean Presbyterians and Black Presbyterians share in common the desire to survive—more than to survive—to live more abundant lives.

As a Black American whose ancestors were here before the Mayflower and one whose ancestors toiled in the fields, the mills, the factories and on the rivers to build America, and as one whose ancestors did not voluntarily chose these American shores, I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for Korean Americans to take some time and come to understand what the American experience has been like for Black Americans, for Hispanic Americans, and for Native Americans, and yes, Asian Americans, especially Japanese Americans. If you fail to become knowledgeable of the American experience of

these other minorities, you may very well find your own survival threatened. Your survival in this society cannot be at the expense of other minority groups, nor can it come about as a result of your ignoring what has and is happening to other minorities. I urge you not to trust anyone telling you what the minority experience is like if that person is not Black, nor Asian, nor Native American, nor Hispanic.

It is equally important that Korean Americans gain some understanding of the price which other minority groups in this country have paid which makes it possible for Korean Americans to be received and accepted without you having to deny your Korean heritage. Today it is possible in this society to affirm that "Korean is beautiful" because of the price which was paid in order to affirm that "Black is beautiful." As ironic as it might seem to some of you, merely two decades ago it was not possible to find very much positive support for affirming one's cultural heritage and identity if that identity was not white European.

And then, we must share in common—you and I as racial/ethnic people—a sense of the unfinished task of making America a nation where justice and equality for everyone are synonymous with the nam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important, more now than at any time during the past two decades, that people like us face up to the challenge of the continuing injustices in our society. I urge you not to be taken in by the massive materialism which oftentimes is used to cover up the poverty, injustice, discrimination and the moral decay within. There remain in our nation two rather distinct societies; that of the rich, the affluent, and that of the poor, the poverty stricken. And I am so afraid that the present political climate in this country will accentuate these differences. Nowhere in the world is there a nation with so much affluence and so much poverty. Probably the greatest threat to the long-term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this internal situation, which, by the way, neither

the Russians nor Marxism created for us. This country created its internal situation itself.

It is my hope that in the years ahead we shall find occasions when Korean Americans and Black Americans can meet together on a broader scale than just the Presbyterian Church in order to talk about mutual concerns, especially as these concerns affect Koreans and Blacks in their communities.

Turning now to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 can now confess to you that when I left the San Diego Assembly in 1978, I really did not know exactly what would happen with Korean American ministries. I personally owe a lot to *Joe Ryu* and others for their patience and counsel. I know that Joe was misunderstod at times. But because Joe was committed to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and because he understood the way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worked, h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erpreting to the larger Korean Presbyterian community what we were trying to do.

I want to express my personal appreciation to the four Korean staff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who have undertaken a most important task within this denomination. *Dr. Paul Hyun*, the Midwest Consultant, is serving within the Synods of the Covenant, Lincoln Trails, Lakes and Prairies and Mid-America, with his office located int he Presbytery of Chicago.

The Rev. Sung Kook Shin, the Northeast Consultant, is serving within the Synods of the Northeast, Piedmont and Trinity, with office in the Presbytery of New York City.

Dr. Chang Wook Choi, the Southeast Consultant, is serving within the Synods of the South and Sun an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 with his office in the PCUS headquarters in Atlanta.

The Rev. Yong Jun Kim, the Western Consultant, is serving within the Synods of the Pacific, Alaska/Northwest, Rocky Mountains, Southern California and the Southwest,

with his office in the Golden Gate Mission Area.

The work of the Consulting Committee on Korean American Ministries deserves a great deal of credit, especially the former chairperson, *Ray Bowden*, who gave freely of his time to move this denomination along in its ministry with Korean Americans. But the real work still lies ahead. The work of demonstrating to the thousands of Korean Presbyterians that there is a place and a role for them within the fellowship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and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tied States. If we fail to demonstrate this oportunity, then I am afraid that we all together might have failed not just each other, but our Lord as well. I am confident that *Bert Tom*, the new chairperson of the Consulting Committee, will lead this work well.

I believe that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and I know that the Program Agency, is committed to providing the maximum resources possible that Korean American Presbyterians might find nurture and opportunity for witness to Christ through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I hope that I shall hear some of your ideas on how we can continue the good start already begun.

The Program Agency has been engaged this year in several consultations with related churches overseas. One of these consultations was held with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In this consultation, participated in by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ing Church of Australia,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and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what became quite clear was the desire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that it exemplify and experience a greater sense of autonomy in its life as a national church. Although the Program Agency representatives went to Korea open to exploring all questions, we expected that there probably would be another three-year agreement among the four cooperating churches. Instead, what resulted was a one-year agreement while the

PCK establishes its own General Assembly Committe on World Mission to relate to churches like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The Program Agency welcomes this new approach of mission in Korea.

In the next consultation, which will take place some time during the Spring of 1982, the Program Agency expects to discuss with the Presbyterian churches in Korea how they might assist the UPC in miss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we move into a new stage of relations with the Presbyterian churches in Korea, the Program Agency is very fortunate to have among its staff *Dr. Syngman Rhee* as the Area Liaison for East Asia. In the places where Syngman has visited, he has been well receiv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Program Agency and the UPC. Syngman is one example of the kind of contribution which the Korean Presbyterians can make to the whole mission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addition to what I have already said, some of which will constitute some of the issues for the 80's, let me speak for a few minutes about some specific direction which the Program Agency would like to pursue in the 80's. These issues or directions will not describe all that the denomination or the Agency will be about, but some issues which will come in for special emphasis.

1. An issue for the Untied Presbyterian Church as it determines its life as a denomination and helps its members live as Christians is: *developing a global Christian perspective for living in an interdependent world.* In speaking about this issue, we are considering the self-understanding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its membership, its congregations, and its judicatories. The Program Agency believes that gaining such a perspective will affect United Presbyterian behavior as a part of the world Christian community as well as the attitude with which it approaches the problems of *racism, militarism, and increasing scarcity.*

One has only to go into the average United Presbyterian congregation to recognize the urgent need for greater attention to this issue in the 80's. Far too many Americans, and Presbyterians, continue to live by their own self-image and fail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image which peopl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have of us. You, as Korean Americans, will have much to contribute to this effort to develop a global Christian perspective for living in our interdependent world.

2. A second direction in mission for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as it shapes its life is: *developing a sense of personal wholeness in a world where new patterns of human relationships and community express the new life in Christ.* Here the issue is how the United Prebyterian Church ministers to individuals as they are a part of a community of faith which is experiencing many changes. If this denomination is to continue with a significant role in Christian witness at home and abroad, it is necessary that there be a renewed emphasis on the witness of the Christian community to the whole person in order that the whole person may be dedicated to God for Christ's service. There is clearly the need for an increased witness on the part of American Christians, starting with the structures and values of our own society, for there are people in many parts of the world who believe that their own lives are seriously affected by th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3. A third issue for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as it witnesses to the gospel in contemporary society is: *developing a mission approach which communicates the gospel for God's people to:*

a. *those who are alienated from God and from others about them;*

b. *the poor and oppressed as they seek justice, freedom and human rights.*

In this issue, the Program Agency is considering the way

in which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s reaching beyond the Christian community into the world. It involves ways in which the claims of the gospel are presented to all people, as well as ways in which the church fully identifies with the poor and the oppressed. *Matthew 25:31-46.*

God empowers and God's people act powerfully. This reality is symbolized by the resurrection and experienced first through suffering, and ultimately crucifixion. Because the church lives in confidence and expectation that God empowers the powerless to be part of His new world, the Church shares in the suffering of all people and makes their cause and empowerment its own. This mission direction should challeng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s. If Korean American Christians are to be taken seriously in your witness in this society, then you will have to find those appropriate places where you join the struggle for justice and peace in this nation and around the world.

4. A fourth direction in mission for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as it participates in mission as a part of the world Christian community is: *continuing its commitment to participate in mission with other churches.* In pursuing this direction in the future, the Program Agency will be faced with such questions as:

—what resources beyond the traditional personnel and funds we share with others?

—what channels of transferring funds will protect the integrity of other churches?

—how much of Program Agency resources can be used for personnel in a time of rapidly rising costs?

—at what level do we maintain our commitment to ecumenical organizations?

And the number one question for the Program Agency in the future pursuit of this mission direction will be, "How can the integrity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and of each partner church and organization be maintained as each

witnesses and participates with others in misson?"

This mission direction, as with the other three, is not optional for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They have to do with the very nature of the kind of church we are and wish to be.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s obedience to Jesus Christ demands that these directions form a major part of that which characterizes us as a Christian Church.

I close by returning to the emphasis with which I began—the common bonds of racial/ethnic people in America.

Korean American Presbyterians, like Black Presbyterians, are a pilgrim people. A people which left the origin of its roots and set its face steadfast for another place. For Korean American Presbyterians, this pilgrimage has geographical meaning while for Black Presbyterians, it has no geographical meaning, but great psychological and spiritual meaning. Black Presbyterians are searching for their roots—in the church, society and in history. Korean Presbyterians must make sure that you retain your roots, even while you become re-rooted in new soil. Black Presbyterians know that they cannot find the fullest meaning of their existence and their Christian witness outside of the streams of Presbyterian history and mission. Black Presbyterians have long since given up the luxury of being a part of an all Black Christian witness in America. This issue continues to be a part of the challenge facing Korean American Christians. Again, I turn to Dr. Lee, who has written, speaking of Korean American Christians:

"We must at least sometimes go out from our comfortable Korean ethnic communities and churches into the marginal wilderness of America. We must do this if we are going to be with Christ, for he is there 'outside the camp'. We must bear whatever abuse that Christ bears himself. And if we stand firmly by his cross, we shall also be with him in his power, in his resurrection.

"In the American wilderness, Christ and our children are

not the only ones we will find. We will also find many American followers of Jesus of Nazareth who are themselves in some ways marginalized and alienated. We must join with them as well as with our own children there, and experience and then go on to build a genuine human community on this American frontier."

So, your challenge and mine are here in America. For those of us who call ourselves United Presbyterians, our challenge is with and within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that that larger community of faith may more nearly resemble the Body of Christ in its every day existence.

Thank You O Lord

Thank you O Lord, for the time that is past
For all the values and thoughts that will last
May we all stagnant tradition ignore,
Leaving behind things that matter no more
Make us afraid of the thoughts that delay
Faithful in all the affairs of today
Keep us, our Creator, from playing it safe
Thank you that now is the time of our life.

제3부

PART THREE

교회의 구조와 목회

The Structure and Ministry of the Church

미국장로교회의 치리기구

신 성 국

미국장로교회의 한-미목회를 담당한 동부지역 총무로써 1981년이래 4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가장 신중히 그리고 긴급하게 취급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우리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장로교회의 헌장과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교인들에게 특히 교역자를 포함한 제직원들에게 바로 이해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각양각색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설립된 이민교회들이 미국교회와의 회원관계를 맺은 교회들 까지도 교인들의 과거 한국에서의 교단배경의 다양성과 신앙경험 및 교회운영경력의 다양성 그리고 해외 이민생활에서 가지는 다양한 교회봉사의 차이점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교회가 당회나 공동의회때마다 특히 제직원 선정과 교회예산안통과와 결산보고시 또는 새교역자의 청빙시에는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때로는 교회가 분쟁끝에 분리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까지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 개척기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들이 이땅에 한국교회

로서의 뿌리를 깊히 박고 견고한 터전을 닦고 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면서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다음의 몇가지 기본교육과 훈련이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하겠기에 그 내용을 열거하고 영문으로 출판된 서적과 재료들을 많이 있으나 한글로 번역출판된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여기에 몇가지 가장 시급히 필요한 헌법개정 조항등을 소개하는 바이다.

1. 장로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특히 미국장로교회역사와 한국장로교회 역사 이해
2. 장로교회의 신앙고백(한글번역판)의 이해
3. 개혁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운동의 기본정신과 오늘 현황이해
4. 미국장로교회 치리구조와 그 운영
5. 미국장로교회의 청소년 목회와 교육 프로그램의 이해 등등.

특히 1983년 양교단의 재연합의 내용(The Plan for Reunion)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과 재연합시에 변경한 헌법조항 등을 조속히 이해하고 개체교회에서 이에 따라 「개체교회부칙」을 정정 시행토록 하여야 함으로 여기에 필요한 조항들을 우선 간단히 소개하는 바이다. (이미 새로 변경된 헌법조항 즉 교회, 노회, 대회와 총회에 관한 조항을 전문한글로 번역하여 각 교회에 배부하였으므로 이것을 연구하고 사용하기 바란다).

여기에 다음의 네가지 부분만을 간단히 소개한다.

1. 재연합안(The Plan for Reunion)

2. 합의조항 (Articles of Agreement)

3. 미합중국 장로교회 헌장(The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U. S. A.)
제1부 신앙고백집(The Book of Confessions)
제2부 조례집(The Book of Order)

4. 한인장로교 목회위원회(Korean Presbyterian Ministries Committee)

1. 재연합안(The Plan for Reunion)

1983년 6월 미국남부 죠지아주의 수도 아트란타시에서 개최된 제123차 미국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U. S.) 총회와 제195차 미국연합장로교회(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U. S. A.) 총회는 각각 「재연합안」 ("The Plan for Reunion") 을 통과하고, 122년 동안 갈라졌던 두 개의 교단이 「미국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U. S. A.) 라는 새이름으로 하나의 거대한 교단으로 다시 연합하였다.

2. 합의 조항 (Articles of Agreement)

그동안 양교단의 대표로 구성한 장로교회 재연합위원회가 13년이란 긴세월 만난을 극복하고 재연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통과된 288페이지에 달하는 「재연합안」제1부에는 14개의 합의조항(Articles of Agreement)이

있고 제2부 에는 조례집(Book of Order) 으로써 치리기구(Form of Government) 와 권징조례(Rules of Discipline) 와 예배모범(Directory for the Service of God) 이 있고 부록으로 간략한 신조 (A Brief Statement of Belief) 를 첨부하였다.

여기에 재연합안 제1부 합의조항 중 특히 알아 두어야 할 몇조항만을 간단히 소개한다.

제 1 조: 미합중국장로교회는 「미국장로교회」와 「미연합장로교회」를 계승하는 교단임을 선언함… .

- 새로 연합된 장로교회의 역사는 위의 두개의 장로교단의 역사를 구체화 한다. (1) 미연합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의 회원 전원과 (2) 목사, 장로, 집사 전원과 (3) 회원교회 전원과, (4) 회원 목사, 부목사, 보조목사 전원과 그들이 맺은 교회와 교회기관과의 모든 계약관계와 (5) 모든 당회, 노회 및 대회들은 다 연합된 장로교회에 소속된 회원임을 선포 함. 동시에 (6) 두 교단총회 본부와, (7) 두 교단에 속한 모든 기관, 협의회, 위원회는 다 새 총회에 예속되며, (8) 두 교단에서 채택하고 사용해 오던 모든 정책 선언서는 앞으로 그것과 대치할 새로운 정책서가 발표되기 까지 동일한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라고 선포함.

제 2 조: 재단이사와 법인체의 기구와 거기에 속한 모든 기관과 재산(물적, 인적자원) 은 다 새교단에 소관되며 그 운영은 계속된다.

제 3 조: 두 교단의 「신앙고백집」은 연합한 새 교단의 「신앙고백집」이 된다. 새 교단의 임시총무는 조례집(G-I.0501) 에 제시한 고백서류를 준비한다. 새 교단은 잠정적으로 새 신앙고백서가 발표되기까지

1962년 남장로교회가 채택한 「간략한 신조」를 사용한다.

제 4 조: 총회사무소(본부)

1. 재연합총회 폐회후 1년간 양교단의 총무(Stated Clerk) 들은 임시총무 (Interim Stated Clerk) 의 직책으로 교단 최고기관의 모든 기록(공문서류) 의 이전과 질서있는 인계사무를 진행할 것이며, 총회협의회(General Assembly Council) 와 협의하여 총회행정을 위한 기구조직의 제안서를 준비 제출한다.
2. 총회협의회(G. A. C.) 는 재연합총회 후 9개월 이내에 총회총무를 공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명의 위원을(지역별 대표로) 선정하여 적임 후보자를(3명 미만) 다음 총회가 새로 임명하는 총무공천위원회에 직접 공천한다. 동 공천위원회는 총회 폐회 48시간 전에 2명의 후보자를 총회에 제출하여, (총회장선거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단 한명의 후보자 뿐일 경우에는 발성투표식(by Acclamation) 으로 선정한다.

제 5 조: 총회협의회 (The General Assembly Council = G. A. C.) 의 구성

1) 연합총회는 두 총회에서 선출한 48명(각 24 명씩) 의 위원들로써 총회협의회를 조직한다.
2) 협의회는 G-9.0104와 G-9.0105 항의 원칙대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5개년이다.

현 총회장 ······································ 1 명
직전 총회장(양교단의) ······················ 2 명
총회기관대표 ································ 8 명

대회대표(각 Synod 에서 1명씩) ········· 29명
교회대표 ····································· 15명

이상의 48명의 $\frac{1}{3}$은 목사(남·여), $\frac{1}{3}$은 남평신도, $\frac{1}{3}$은 여평신도의 비례로 선출되어야 한다.

3) 첫 5개년간에 총회협의회는 그들의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필요한 스탭을 선정할 수 있으며 총회 총무는 협의회의 기록서기 일을 담당한다.

총회협의회의 임무(G-13. 03201)

1. 전체교회의 영적사업을 개척하고 발전시킨다.
2. 인종—민족, 성, 연령 불구 회원들의 참여의 평등과, 기회균등의 고용원칙안을 전국교회적으로 설치토록 하며 이를 계속 조정한다.
3. 교회사업의 목적과 그 목표, 선교의 우선순위 등을 총회가 결정하도록 전국적인 계획을 착수한다.
4. 총회의 각 기관들과 대회와 노회가 위의 교회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향과 순위대로 실천하도록 이를 조정한다.
5. 총회 각 기구들의 업무진행 상항을 검토 평가한다.
6. 포괄적인 선교예산안을 준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7. 전국적인 계획과 재정예산의 발전과 교회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노회 및 대회와 협의 또는 통신연락을 취한다.
8. G-9.0701 과 9-9.0702 조에 있는대로 실무직원에 관계된 일을 대회협의회와 총회기구와 함께 실행한다.
9. 총회총무(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와 협의하에 총회본부의 행정사무 상태를 검토평

가 한다.

10. 총회를 위하여 전 총회에서 통과된 정책을 다음 총회 회의까지 실천하며 다음 총회에서 이를 통과하도록 보고한다.

제 6 조: 총회협의회는 곧 대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본부의 위치를 정하도록 한다. 총회본부의 기관들을 위하여 한장소 또는 그 이상의 장소가 가능하면 이전계획안(만일 이전이 필요할 경우)을 작성 제출한다.

제 7 조: 노회와 대회의 경계(Boundaries) 설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복된 노회들과 대회들의 경계선을 상호협의하에 재 설정한다. 만일 5개년 이내에 충분한 경계선 확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총회의 허락으로 10년 이내에 완성토록 한다.

제 7 조: —6 항: 인종—민족 또는 언어를 기반으로 조직된 노회의 경우(1984년 현재로는 한인노회를 지적함-필자 주) 10년 이내에 본 궤도에 들어오도록 한다. 만일 그 기간내에 성취 불가능할 경우 총회의 허락으로 15년 이내에 완성토록 한다.

제 8 조: 미합중국 장로교회는 당회이상의 치리기구(즉 노회, 대회, 총회)에 대표위원회(Committee on Representation)를 설치한다. 그구성회원의 비례는 남녀동수로 하되 과반수의 위원은 치리기구내의 인종—민족 그룹 중에서 선출하며 전체위원은 다음과 같은 범주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a. 다대수의 남회원
b. 다대수의 여회원

c. 인종-민족 그룹의 남회원

d. 인종-민족 그룹의 여회원

e. 청년 남녀회원

이 위원회의 주요임무는 각 치리기구들로 하여금 저들의 전체회원을 동등하게 존경하며, 치리 기구 내의 각 위원회와 각 부서들이 교회운영에 효과적인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전체 회원의 참여와 포함성의 원칙을 성취하도록 조정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이하 제9조 여성대표와 참여, 그리고 여성기관.

제10조: 신학교육 기관들

제11조: 은퇴보험 보상기관들

제12조: 에큐메니칼 관계

제13조: 재산을 동반하는 개체교회 설립 취소 진행과정

제14조: 재연합의 실현과정

등의 조항은 지면 사정으로 여기에 소개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나 「재연합안」-"The Plan for Reunion" 영문서적을 참조할 것으로 권고한다.

3. 미합중국 장로교회 헌장
(The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U. S. A.))

미합중국 장로교회 헌장은 치리기구(Form of Government) 제1장 제5항(G-1. 0500)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신앙고백집(Book of Confessions)과 조례집(Book of Order)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합중국 장로교회 총회본부에서는 총회 직후에(1983년7월) 헌장 제1부 신앙고백집과 제2부 조례집을 출판하여 전국회원교회에 배부하였나.

역사적인 전환기에 처한 미국장로교회가 1984년에 한국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책을 출판함에 있어서 재연합된 교회의 치리기구중 새로운 조항과 변경된 조항만을 간단히 추려서(지면사정으로) 소개한다.

제 1 부 신앙고백집(The Book of Confessions)은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던 미연합장로교회 신앙고백집에 수록된 9개의 신앙고백들 즉 1) 니케야신조, 2) 사도신조, 3) 스코트랜드 신앙고백, 4)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 제2 서서신앙고백, 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 소요리문답서, 8) 발멘신학 선언, 9) 1967년 신앙고백에다가 부록으로 「간략한 신조」를 첨부하였는데 그 이유는 재연합안(The Plan for Reunion) 제3조 3항에서 명시한바와 같이 앞으로 새로운 신앙고백집에 개혁된 신조가 포함되어 들어가기 까지는 1962년에 미장로교회(남) 제102차 총회에서 선언한 이 간략한 신조를 우리의 신앙고백서로 받아 들여서 각 교회마다 교인들의 입교시에와 제직원들의 안수 취임 및 목사고시와 타교단과 타노회에서 입회시청을 요청받았을 경우 등등에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 「간략한 신조」는 전체 4페이지 속에 1) 하나님과 계시, 2) 인간과 죄, 3) 그리스도와 구원, 4) 교회와 은총의 의미, 5)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활동, 6) 심판과 내세의 6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제2부: 조례집(The Book of Order) 은 1) 치리구조, 2) 권징조례, 3) 예배모범으로 되어있다. 그중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은 과거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제한된 시면관계로 여기서도 생략한다.

이제 치리구조에서 개체교회에 관한 새로운 조항과 변경된 조항에서도 우리에게 시급히 사용에 필요한 조항만을 추려서 소개한다.

1. 치리기구를(연합이전까지는)즉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을 Judicatories 혹은 Courts 라고 통칭하였으나 앞으로는 "Governing bodies"라고 통일하였고,

2. Ministers, Elders and Deacons(목사, 장로, 집사) 를 영어의 "Presbyters"로 사용하며 과거의 "Ruling Elders" 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3. "Moderator" 라는 단어는 총회장, 대회장, 노회장 및 당회장 이외에도 모든 Committee 나 Commission 의 Chairperson 대신에 다 "Moderator" 를 사용하기로 한다.

공천과 선거(Nomination and Election)

8.2 동상헌의조항: 교회의 치리기구는 다양한 교회회원들의 충분한 표현을 받아 들이기 위하여 이들을 참여시키고 포함시켜서 교회의 사명을 실천할 책임이 있다. 모든 치리기구들은 과거의 인종이나 민족차별의 형태를 시정하고 좀 더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G-4.0403: 미합중국 장로교회는 전체교회 회원들의 풍부한 다양성을 충분히 실명하며, 더욱 광범위한 포괄성으로 새로운 삶의 전체성에까지 다다를 것을 보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인종과 민족들, 연령, 성, 불구, 지방의 차이등과 개혁주의 전통에 일관성을 가진 신학적 견해의 차이등을 막론하고, 교회의 결정권을 가진 치리기구에 이들 그룹의 대표들이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G-14.0201: 모든 치리기구는 G-4 .0403 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는데 전체의 포함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공천위원회

G-14.0201, b: 공천은 반드시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가 매년 선출하며 각 위원의 임기는 3개년이다. 위원은 반드시 회원의 모든 인종, 민족, 연령층을 대표하는 남여가 공평하게 선출되어야 한다.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적어도 2명의 당회원(그중 1명은 회장으로 당회가 임명함)과 1명의 집사회 대표(그러한 집사회가 있을 경우)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회의 목사는 당연직 회원으로 삼

석하나 투표는 하지 않는다. (설명 조항인 G-14. 0200을 삼조할 것).

시무임기

G-14, 0200, a: 모든 장로 집사의 시무임기는 3년이며 2기이상(6년)을 계속 시무할 수 없다.

시무임기제도 면제 연장기간

G-14. 0202, a: 만일 어떤 교회가 G-14. 0200조항의 필수요건들을 확인하지 않고 공천을 하였을 경우 노회의 $\frac{3}{4}$의 투표결의 허가를 받아 면제될 수 있다. 면제시에 3년 이상을 한번 허락에서 받을 수 없으며, 다수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G-14. 0202, b: 어떤교회가 교단 재연합 이전에 G-14. 0201의 조항대로 남여가 장로 집사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시무기간을 제한해서 집사 장로를 선거하지 않을 경우 정기공동의회시 제직원 선거와 달리 비밀투표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가 반드시 공동의회 이전에 노회의 합의를 받고 공동의회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면세는 15년 이상 계속될 수는 없다.

G-10. 0301: 당회록에는 반드시 당회원의 구성내용을 인종별, 성별, 연령별 숫자를 표시하고 그것이 교회의 회원구성 내용과 어떻게 관련된 것을 설명해야 한다.

G-14. 0205: 당회는 장로, 혹은 집사로 선출된 사들에게

(선서후) 그들이 그 직분을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고 충실히 일할 여부를 묻는다. 다음으로 당회는 그들의 개인적 신앙과 교회 치리기구, 권징조례 및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G-6.0108: 교회의 건전한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직분을 맡은 자들이 신앙고백집과 조례집에서 가르친대로 개혁주의 신앙과 그 기구와 제도의 본질적인 정신과 원리대로 생활한다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G-10.032, c: 장로가 등록할때는 그가 안수받은 교회의 이름을 명기한다.

당회진행

G-10.0101: 목사, 동사목사, 부목사는 당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

G-9.0203: 당회 서기는 장로이어야 하며 당회에서 선출하되 그의 임기는 당회에서 정한다.

G-14.0201: 당회는 최소한 연 4회이상 개최한다.

G-9.0302: 당회 회의는 교회규칙에 제정된 케이스를제외하고는 최근에 출판된 "Robert's Rules of Order" 에 에 의한다.

G-10.0202: 당회의 정원은 목사와 혹은 사회위임을 맡은 다른 교직자와 해당회원 1/3의 출석으로 한다.

단 교인의 입회와 이명 결의를 위한 당회 성원은 목사와 장로 2명으로 한다.

G-9.0404: 장로교회 치리제도의 상호의존 정신을 살려 유지하기 위하여;

(a) 각 치리기구(당회, 노회, 대회, 총회)는 다음의 상부 치리기구의 기획과 행정에 대표를 파송함으로 적극 참여한다.

(b) 각 치리기구는 상하의 치리기구의 선교우선순위(Mission Priorities), 프로그램, 예산 및 상무직원 자리를 설치하는 모든일에 적당한 대표를 참여시켜서 서로 협의한다.

(c) 각 치리기구는 G-9.0104 항에 규정된 포괄성과 다양성의 원칙에 의하여 그 상무직원을 선정한다.

G-10.0102, h: 당회는 매년 재정예산의 책정, 교회구제비 분배의 결정 및 기독교 목적을 위한 헌금의 순서 등을 결정하며,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교회에 준비해 주어야 한다.

G-10.0401: 회계(혹은 회계들)의 사무는 당회나 혹은 당회가 특별히 지명한 집사회나 재단이사회가 감독하여야 한다.

G-10.0401, a: 교회의 모든 헌금의 계산과 기록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임명된 최소한 2명이나 혹은 충실하다고 보장된 교인이 해야한다.

집사회

G-6.0403: 목사, 동사목사, 부목사, 보조목사는 집사회의 고문회원이다. 집사회는 그들 자신이 회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G-6.0405: 집사회는 정기적으로 회집하며, 최소한 연 4회 회집한다. 정수는 집사회 자체가 결정한다.

당회와 집사회의 합동회의를 최소한 년 1회는 당회장 사회하에 개최한다. 중요한 안건의 의결은 할 수 없으나 각각 당회와 집사회에 돌아가서 관련된 안건들을 결의한다.

G-6.0406: 집사를 위원회나 재단이사회 이사로 당회가 임명할 수 있다.

G-6.0407. : 교회 공동의회 과반수의 결의로 집사직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에 소개한 조항 이외에도 교회회원, 공동의회, 재단법인체, 재산(교회건물) 처리, 개체교회내의 기관 등에 관한 23개의 조항이 있으나 과거의 것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지면사정상 여기에 소개를 생략한다.

4. 한인장로교 목회위원회
(Korean Presbyterian Ministries Committee)

「미국장로교회」라는 대교단 안에서 소수민족중의 소수민족인 한인들의 이민교회가 비록 그 역사는 옅을지라도 과거의 수많은 이민교회중 그 유례를 볼 수 없으리만큼 급성장해가는 교회로 등장하게 되자 1979년 미연합장로교회 총회(190회)의 결의에 의하여(The 1978 G.A. Minutes, Part I, pp. 117-118) 한인교회를 회원으로 소유한 전국 각 노회내에 한인장로교 목회위원회를 합법적 치리

기구의 하나로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따라 각지역(전국 4개 지역)에서 그 기구의 조직 요령을 작성하여 대회와 노회의 승락을 받고 노회내의 상임위원회의 조식에 포함된 한인목회위원회를 조식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간단하나나마 현재 동부지역에서 조직되고 있는 한인목회위원회(약칭 K. P. M. C. = Korean Presbyterian Ministries Co mmittee) 의 운영지침과 그 구소블 소개한다. (Synod of Northeast 에서는 K. P. M. N. (Network) 이라고 부름)

동부지역내의 3개 대회에서는 K. P. M. C. 의 지침요령을 1982년 6월에 한인목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통과하고 각대회 실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1982년 12월까지) 소속각 노회에 시달하여 2개 이상의 한국교회를 회원으로 소유한 노회마다 K. P. M. C. 를 조직케 하되, 1개의 한인교회밖에 없는 노회들은 인근노회와 연합하여 지역 K. P. M. C. 를 조직토록 하였다.

현재 K. P. M. C. 를 조식한 노회는 수도노회(Washington-Virginia), 필라델피아 노회, 뉴욕시구(뉴욕시, 롱아이랜드, 허드슨강 노회), 뉴욕북부시구(Buffalo, Rochester, Syracuse, Albany), 뉴잉그랜드 지구(Boston, New Haven, Hartford), 뉴져지 지구(뉴져지주내 6개 노회) 등인바 여기에 수도노회가 조식한 K. P. M. C. 의 규칙만을(지면관계로) 소개한다.

수도노회 한인장로교목회위원회 규칙

I. 위원

본 위원회는 14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적어도 목사 7명, 평신도 7명을 포함한 다음 기관의 대표자들로 한다.

1. 한인장로교 협의회
2. 노회에 소속된 한인목사 전원과, 같은 수의 평신도회원, 즉 한인장로교협의회가 선정한 각 조직교회의 평신도 1명을 포함.
3. 목회관계 위원회(2명)
4. 개척교회 위원회(2명)
5. 목사후보생 위원회(2명)
6. 교육위원회(1명)
7. 지도자 개발위원회(1명)
당연직 : 노회총무 · 노회 부서기

Ⅱ. 목적

잠정적 선교기구로써 봉사하기 위해(5년간), 한인의 필요성과 과제들을 판단하고 설명하기 위해, 한인교회들의 발전과 한인교역자와 평신도들의 최대한의 노회참여와 보다 넓은 의미의 교회 참여를 돕는다.

Ⅲ. 기금

위원회는 노회 조성협의회에 대표를 파견하며, 조성협의회의 예산에서 운영기금을 확보하고, 목회부분의 예산중 해당 사항에서의 입출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조정협의회에 회계보고를 할 책임이 있다.

Ⅳ. 임무

1. 한인목사와 교회가 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될 경우에, 목회 관계위원회와 개척교회위원회에 노회가입 절차에 관계되는 조언과 협조와 추천을 하며,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직접 노회에 추천한다.

2. 본 노회 안에서의 한인교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향상 시키는 일에 개척교회위원회와 협력한다.

3. 한인교회의 내부문제와 갈등을 파악하는데 목회관계 위원회와 개척교회위원회에 협조한다.

4. 한인교회내의 조직체들이 노회와 너 넓은 의미의 교회와의 관계를 가지도록 도우며, 이를 위하여 목사와 평신도 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제공한다.

5. 한인목사 후보생의 지도와 감독을 위해 노회의 목사 후보생 위원회와 협력한다.

6. 한인목회를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안을 추천한다.

7. 총회와 대회의 해당위원회와 관계를 가진다.

※동 위원회의 공식용어는 한국어나 영어로 한다.
(1983년 11월15일 통과)

평신도의 직책

김 선 배 목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I. 평신도도 교역자다

신약성서에서는 신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벧전2:9)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도안에서 목사니, 장로니,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그 밖의 신자들을 다 포함하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laos) 곧 신도들이다. 목사도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중에 포함된다. 초대교회, 즉 오순절 후에 시작된 교회에서는 사도들도 이 신도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이 지닌 특별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삼년동안 따라다니며 그리스도의 교역을 배우고 그의 임명을 받아 그의 후계자로 지명되어 그분이 하시던 교역을 계속한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역의 원천이다. 즉 사도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께서 하시던 교역을 했는데 그 교역은 설교자로서,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사제로서, 또 교회를 다스리는 행정인으로서, 그리고 섬기

는 자로서 교역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목사가 하는 교역이 되었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왔을때 그들은 후계자들을 임명하여 자기들의 일을 계승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교역을 사도들이 이어받고 다시 그 교역을 후계자들에게 이어주었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의 교역의 계승이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사무가 복잡해지고 세게 선교와 함께 박해가 심해지자 교회의 교역의 통일성과 효과를 위하여 평신도 가운데서 피택된 장로가 교회의 책임을 지게 했고 좀 했고 좀 더 지나서는 장로들 가운데 대표자를 뽑아 감독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교역은 사무적으로 제도화하여 갔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수받은 교역자(성직자)와 교역을 맡지 않은 교인(평신도)의 구별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교역은 감독과 신부와 목사들에게 넘어갔고 신도들은 그들의 교역의 대상이 되었다.

성직자가 교회와 사회에 있어서 특권을 누리고 신도들과는 계급적으로 달랐던 때는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였다. 이때 평신도는 신부의 지도에 전적으로 복종하였고 교회는 성직 계급제도로 변모하였다. 그런데 중세 말기부터는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심하여 신도들은 그들을 불신하게 되었고 교회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룬 큰 업적은 신약 성서의 초대 교회의 교역을 가능한 한 한도까지 복구시킨 것이었다. 요컨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곧 신도들의 모임이다. 이 말은 신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역을 이어받아서 교역하는 동시에 교회를 연속시키는 사람이란 말이다. 목사는 전문적인 교역을 위임받은 사람이며 신도들 각자는 여전히 그리스도로부터 이어받은 교역과 교회의 연속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조가 "목사의존 구조"에서 "전교인 참여 구조"로 변화 되어야 한다. 한인 이민 교회의 현편을 보며 교회 구조가 지나치게 목사중심으로 되어 있다. 여기

"목사중심"이란 표현은 특별히 다음 두가지 면에서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종교적 고용인으로서의 목사중심"이란 뜻이다. 목사는 전문적으로 교회 일을 하기 위해 훈련받고 또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풀타임 고용인이니 교회 청소에서 설교까지 교회의 모든 일은 목사가 책임지고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이 관점에서는 평신도의 임무는 가장 잘 수행해야 목사를 도와주는 역할뿐이며 대체로 목사가 얼마나 일을 잘 하는지 관람하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본다.

목사 의존적 교회구조의 또다른 잘못된 모습은 교역을 카리스마적 존재인 목사의 무대로 보는 점이다. 이와같은 경향은 소위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더욱 그 정도가 심하다. 기도에 능력이 있고 신유의 은사도 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영력이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교인들은 무조건 이와같은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 평신도의 역할은 가장 잘 해야 추종자이며 대체로 수퍼스타와 같은 목사의 연기를 관람하며 감정적 만족을 얻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한다. 이와같은 교회 구조에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교인들을 위해 모든 결정을 다 해준다.

이와같이 잘못된 "목사중심"교회구조는 피동적이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교인의식을 부식시키고 있다. 오늘한국교회는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키엘케골의 말대로 하나님은 대사를 읽어 주고 목사는 무대에서 연기하고 교인들은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교회의 병적인 구조가 변하여 무대 위에서는 교인들이 연기를 하고 목사는 대사를 읽어주고 하나님께서 감상하시는 참된 성서적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그 기능과 역할상의 것이지 결코 그 신분상의 차이가 아니다. 목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전을 거행하는 공적 목회를 위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마치고 안수받은 사람으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전적으로 바친

사람이며 따라서 전문적 신앙 지도자요 일꾼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영적 지도력과 그 전문성에 있어서 권위와 순수성을 가지고 평신도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평신도들은 이와 같이 "교회를 잘 인도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를 배나 존경하고 사랑하며 지원할 책임이 있다"(딤전5:17).

그러나 목사는 영적 은사나 리더쉽을 독점한 사람도 아니며 교인들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다. 목사는 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그들의 삶에서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반영하며 나누며 승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촉진하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장비를 갖추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도적 교회의 교역을 강조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다"고 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앞에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도우심과 화해를 전할 사명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는 다 교역자(ministers)들이다. 어느 미국교회의 주보를 보니까,

Ministers: All ot th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of

Pastor: Jack Oats

Organist: Jane Doe 라고 써 있는 것을 보았다. 참으로 성서적인 교역의 정신을 잘 표현한 주보라고 생각한다.

평신도는 먼저 목사의 목회와 신앙적 지도를 충실하게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교역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평신도의 교역을 훈련시키지 않거나 훈련시킬 힘이 없는 목사는 목회의 실패자다. 다음으로 평신도는 목사의 목회를 받는 대상만 아니라 나아가서 목사의 목회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목사와 같이 맡겨진 섬김의 직분을 수행하는 평신도 교역자가 되어야 한다. 평신도는 예수님으로 부터 신도들을 통하여 전승된 교역의 책임을 가지며 역사적인 교회의 교역의 연속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II. 교역의 본질

우리는 지금까지 평신도 교역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참된 교인이 참여하고 감당해야 할 교역의 본질은 무엇일까? 교역의 참 뜻과 임무를 알지 못하고서는 참된 교역자가 될 수 없다. 교역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가운데 세속적 가치관이나 불신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자신들의 세력을 나타내는 장소나 욕구불만을 터뜨리는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평신도 교역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록 교역의 참 뜻을 깨달아야 한다. 교역(ministry)에 대한 많은 신학적, 목회학적 이해와 서술이 있지만 여기서는 교역의 본질을 그 뿌리가 되는 신약성서에서 찾아 보려고 한다.

신약 성서는 여러 곳에서 교역의 참뜻이 무엇인지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에베소 4:1-14 에서는 교역의 다섯가지 직책으로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갈라디아 3:28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안에는 노예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이 다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6:4-10 말씀은 하나님의 교역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섬김의 삶을 사는 상황과 그들이 보여주어야할 교역의 참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며 고린도전서 12장은 교역의 역할과 은사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교역에 대한 가장 분명한 말씀은 바울 서신에서 보다 사도행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2:32 말씀은 복음(kerygma)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 준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2:42, 44-47에서 우리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사세히 살필 수 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

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몇절의 말씀이야말로 교회의 교역의 첫번째 초상화이자 가장 근원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 누가는 여기에서 교역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가르치는 일, 곧 교육(didache), 기도하고, 떡을 떼며,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곧 예배(leitourgia),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 곧 친교(koinonia),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 곧 복음선포(kerygma),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 곧 봉사(diakonia) 가 사도적 교역의 중심이었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교역의 결정적인 내용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교역의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교역의 의미를 정의해 볼 수 있다. 곧 "교역은 교회의 제사장적 및 예언자적 일이다."(Ministry is the priestly and prophetic work of the Church)

제사장적인 교회의 교역은 세가지가 있는데 곧 전통을 보존하는 일, 의식을 거행하는 공동체를 모으는 일 등으로 볼 수 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가지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교회는 가르쳤고(didache), 함께 모였고(koinonia), 함께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leitourgia).

이와같은 교회의 교역의 제사장적인 역할과 함께 우리는 또한 예언자적인 역할을 볼 수 있다. 초대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추구하는 복음의 멧세지를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였다. 이것이 케뤼그마(kerygma) 와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 곧 봉사(diakonia) 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교역의

바탕과 교역의 주체는 몇몇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몸된 교회 전체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교역은 어떤 개인에게 위임한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게 위탁하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적이며 예언자적인 교역의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고전 4:1).

Ⅲ.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평신도의 교역

교역의 근본적인 성격을 이루는 제사장적 요소와 예언자적 요소를 구성하는 다섯가지 교역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교회안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과 교회밖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모이는 교회" (Church gathered)를 중심으로 하는 교역들은 교육(didache)과 예배(leitourgia)와 친교(koinonia) 이며 "흩어지는 교회(Church scatterd)가 시종하는 교역들은 복음선포(kerygma)와 봉사(diakonia) 이다. 그러면 먼저 교회안에서의 평신도의 교역에 대해 잠시 고찰해 보기로 하자. 교회안에서의 평신도의 교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역이다.

1. 교육을 위한 평신도 교육

교회의 교역의 불가결한 요소인 교육은 우리 몸의 구조에 비교한다면 마치 골격구조와 같다. 교회는 이 가르치는 교역의 사명을 바로 해야 부흥하게 될 수 있다. 교회는 성서와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인격성장과 책임있는 신앙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교회의 교육적 교역은 전통적으로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가 주로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이 목사가 하는 교역의 중심인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교육적 교역의 사명은 어느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교육은 "전체 교회가 전체 교회를 가르치는 일" (The whole church teaching the whole church) 이다.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다 같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한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교육의 피대상자요 목사만 가르치는 자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된다. 목사도 부지런히 배워 가르치는 것이며 또한 가르치는 교역을 통해 배우는 것으로 결국 교회는 성령이 교사가 되시는 학교인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나 평신도나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제자란 계속 배우는 사람이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부르셨다. 모든 평신도는 성령의 학교에서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거나 무시하는 교인은 참 교인이 될 수 없다.

더나가 교인들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일이 목사의 일로만 끝날 수 없다. 성숙한 교회는 평신도 교사가 많은 교회다. 말씀을 가르치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사가 많은 교회는 언제나 활기에 차며 생동하는 것을 본다.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 이 가르치는 교사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직분자들만 아니라 모든 교인은 그들의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교회 교육의 중요한 장은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도 된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맡은 필수적인 교역의 사명이다.

2. 예배를 위한 평신도 교역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그의 은혜를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야 말로 교회의 교역의 중심이 된다. 예배는 우리 몸의 신경조직과 같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된다. 제사장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

배의 일은 모든 회중에게 속한 일이지 결코 목사의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의 예배에서 목사의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간주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다른순서들은 설교의 전주곡과 후주곡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근본의미와 성격을 무시하는 큰 오해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참여하여 드리는 것으로서 마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은 것이다. 연주자들은 전원이 각각 자기가 가진 악기로서 각자가 연주해야할 악보에 따라 연주해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을 연주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배의 모든 순서는 목사의 지휘를를 받으면서 예배를 예배답게 연주하는 평신도들의 교역적 임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목사의 설교는 목사의 중요한 교역적 임무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그의 독백이거나 독단적 주장이 될 수 없다. 그의 설교는 말씀을 듣는 평신도들과의 진리의 대화이며 또한 목사 자신도 그 설교된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설교자의 설교가 청중과의 대화가 되지 않을 때 그 설교는 실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실패의 원인은 지휘자인 설교자에게 있을 수 있고 또 청중 곧 연주자인 교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설교자는 기도와 깊은 성서연구와 영성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교인들은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밖에도 예배의 모든 순서와 준비에 있어서 평신도의 참여 없이 되는것이 하나도 없다. 예배 안내, 찬양, 찬송, 기도, 헌금등 모든 면에서 평신도들은 성심과 지혜와 성열을 모아서 예배가 예배답게 되도록 목사 못지않게 힘써야 한다.

3. 친교를 위한 평신도 교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친교는 우리 몸의 혈관

조직과 같다. 몸은 피가 통해야 사는것 처럼 교회도 이 성도의 교제가 원만해야 활기를 갖게 된다. 약한 지체를 돌보고 위로하며 상처를 치료하고 서로의 삶을 주안에서 축하하는 친교의 교역은 교회의 교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처럼 친교는 중요한 것인데 이 친교를 성공시키는 주체적 책임자는 역시 평신도들이다. 목사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한 교회에 있을 뿐이고 평신도가 교회 성원의 전부를 이루고 있으니 교회의 친교의 성패는 평신도의 교역적 책임에 달린 것이다.

교회의 친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일체의 계급의식이나 지위의식이나 차별의식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기 "백성"이란 말의 헬라원어는 laikos인데 이 말은 "평신도"란 뜻으로 평등한 시민, 또는 서민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앞에서 다 같은 서민이라는 동류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다음으로 교회의 친교는 인간적, 사회적 성질로 되어질 수 없다. 교회의 친교는 우리 구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것을 중심으로 서로 나누는 친교라야 한다. 신앙 중심이 아닌 세속적 친교는 교회의 친교의 가장 큰 적이다.

교회의 친교적 교역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교인들이 다른 형제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봉사하는 일이다(갈6:10).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맨 동역자들로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야 한다 (갈6:2).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노릇을 하는 것이다 (벧전4:10).

평신도의 친교적 교역의 중요한 무대가 구역제도이다. 구역제도는 교인들의 거주지를 중심해서 지역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므로 교양과, 사회적 신분의 차이나 또 교회 직분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서로 돕고 섬길 수 있는 조직이다. 이 구역 제도의 성패는 결정적으로 평신도들에게 달렸다.

Ⅳ. 상처받고 신음하는 세상을 향한 평신도의 교역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안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적인 교역의 요소들을 살펴 보았다. 물론 교역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교육, 예배, 친교, 선포, 봉사 모두가 다 제사장적이며 예언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세가지 교역들은 세상과 사회를 향한 교역의 면보다는 교회안의 삶에 관계되는 교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복음의 선포(kerygma)와 봉사(diakonia)는 교회 내적인 면보다 교회 밖 즉 세상을 위한 교역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교역의 촛점이 교회안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이 된다. 세속과 불신의 사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처받고 신음하는 이웃을 치료하고 돌보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예언자적 교역의 역할이 평신도의 중요한 교역적 책임이 된다.

신약성서가 보여주는 중요할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도우며 신앙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사신과 종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다(고후 5:20).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 증거와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막 10:45).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뿐만 아니라 또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요 20:21).

모이는 교회의 교역을 위한 평신도의 교역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의 교역은 거의 전적으로 평신도들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교역이다.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들을 설교단 뒤에나 성찬상 앞에 세우시지 않고 그들을 사람들이 일하고, 놀고, 먹고, 마시며 잠자며, 웃고 울며, 살고 죽는 세상 한 가운데 세워 놓으셨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평신도

라고 부르는 교회의 99퍼센트가 교역하는 곳이다. 이제 이처럼 중요한 평신도 교역의 중심이 되는 복음증거와 봉사의 교역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1. 복음증거를 위한 평신도 교역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파하고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다(행 1:8).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유일한 구주와 주로 전하고 증거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는 일이다. 물론 이와같은 전도에는 여러가지 방법과 전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봉사할때 우리는 건강하고 가진자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것은 그리스도인은 다만 어디에 음식이 있고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있는지를 알고 체험하고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동료 거지들에게 알리러 간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도덕적 성취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과 참 생명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평신도 교역자들은 복음 증거에 대한 자발성을 가지고 부끄러워 하지않고, 종교적이거나 독단적인 자세가 아니라 기쁨과 선한 의지와 심령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과 확신과 열성을 가지고 인내로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2. 봉사를 위한 평신도 교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선파하시는 일과 함께 병들고 압제당하고 외롭고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시며 먹을 것을 주시는 봉사의 일을 하셨다.

제사들도 이것을 본 받았으며 초대 교회는 말씀 전파와 봉사를 다 함께 힘썼다. 이 봉사의 교역은 다른 모든 교역보다 가장 예언자적인 교역으로 우리는 봉사의 교역(diakonia)을 증거, 선교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봉사의 교역은 최전선의 교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수행하는 교역이기 때문이다. 본 훼퍼는 "크리스챤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위해 당하는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웃과 지역사회 더 나가 세계속에서 고통과 고난속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주위와 환경과 지도와 법 때문에 억압받고 억울함과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와같은 불행과 고통을 만드는 요인을 시정하는 일까지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한다.

평신도의 봉사의 교역을 이야기 할 때 평신도가 직업과 관련하여 수행할 교역을 빠뜨릴 수 없다. 목사가 성직자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소명은 전문적인 목회자에게만 한정되는 말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의 직업에 있어서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각각 직업과 신분과 삶의 자리를 주셨으며 모든 사람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의 직업과 신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마틴 루터는 이 소명의 평등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루를 닦기 위해 무릎을 꿇고 일하는 하녀나 제단에서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사제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칼빈은 직업을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해석했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세상을 위한 교역은 그가 가진 구체적인 직업을 통해서 수행됨을 명심하자. 평신도가 그의 직업생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울때 그리고 그의 직업을 통한 생산과 결과를 이웃을 위해 바로

사용할때 그는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고 그의 교역의 중요한 몫을 감당하는 것이다. 반대로 교인들이 직업에 태만하고 불성실하여 실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업을 수행할 때 그의 소명과 교역은 실패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된다.

V. 끝맺는 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역은 예배, 교육, 친교, 전도, 봉사로 나누어지며 예언자적이며 제사장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예배와 교육과 친교는 교회의 내적 교역이며 전도와 봉사는 교회밖을 향한 교역이라고 하였다. 전자가 교회의 주체성 (identity) 을 살리는 교역이라면 후자는 교회의 활력 (vitality) 을 이루는 교역이라고 보겠다. 이 모든 교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평신도 교역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우리는 살펴 보았다. 그런데 교회의 교역의 성격상 교회의 주체성을 살리는 예배와 교육과 친교의 교역들은 전문적 교역자인 목사가 더 치충하여 수행하는 교역들이고 교회의 활력을 나타내는 전도와 봉사의 교역들은 평신도 교역자들이 중심이되어 수행해야할 교역의 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주체성과 함께 활력이 항상 있어야 한다. 교회의 교역의 파트너쉽 즉 복음의 복음의 본질과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용할 때 몸된 교회는 건강한 몸으로 일하게 된다. 이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이지 단순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몸의 각지체 사이에는 생명적 관계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는 상호 보충적 존재요 운명공동체다. 그러므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돌보는 일은 몸된 교회의 건강한 생명에 필수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하겠다.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교역을 위해 "제일 좋은길"이다.

〈토의 문제〉

1. 평신도도 교역자란 말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

2. 교역의 다섯가지 내용과 두가지 성격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느 교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받은 교역의 은사는 무엇인가?

3. 당신이 나가는 교회의 모든 교인이 다 교역자인가? 당신의 대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4. 당신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필요한 교역은 어떤 것인가?

5. 다음 성경말씀을 연구하라.
(그룹으로 나누어 할 수 있다.)
에베소 4:11-14, 고린도전서 12장, 갈라디아 3:26-28, 고린도후서 3:12-17, 골로세 3:12-17
   a) 본문에 나타난 교역은 무엇인가?
   b) 본문에 나오지 않은 교역은 무엇인가?
   c) 본문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교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한국이민교회의 분규

최 창 욱

"한국이민교회는 처음에는 열심히 모였다가 얼마 후에는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또 갈라진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또 싸우고 갈라지곤 하는데 그렇다면 뭣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이며 교회는 뭣 때문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하는 불신사회의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된다. 왜 한인 이민교회는 그렇게 모여 싸우고 갈라 지는가? 한국 이민교회의 분규는 한인교회만의 특유한 현상인가? 그 원인은 무엇이며 또 그 성질은 어떤것이며, 그 형태는 어떤것이며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것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한 실제적인 대답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 보려고 한다.

1. 분규의 불가피성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세가지 현실에 부닥치게 된다. 첫째, 개개인의 그 삶의 목표와 행동을 단독으로 선택하게 되며 둘째, 이 선택은 그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그가 옳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에서 하게 되며 셋째, 그 개인만이 그 선택의 결과가 좋았던 것인지 나빴던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1]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그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며 수단과 방법을 쓰고 그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계속하다가 중단하는 일들을 맴돌며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즉 무엇인가 목적을 추가하는 인간성 자체안에 갈등과 분규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분규란 인간의 사회생활에 불가피한 것이며 인간성 자체안에 기존하는 갈등의 표현인 것이다. 한 개인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며 그 다른 사람이 개인이건 집단이건 내가 원하는것과 똑같은 것을 원할 때,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거부할 때,또한 장애할 때 분규가 생기게 된다. 목적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인간은 그가 원하는 바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는 언제나 대인관계에서 그 목적한 것을 성취하게 된다. 이 타자의 무리를 사회라고 하는데 그 규모는 핵가족으로 부터 시작해서 국가에 이른다. 이 사회 단체도 개인과 같이 목적이 있고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다. 때로는 이 사회가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방편보다는 개인을 이용하여 그 사회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때 불가피하게 분규가 생긴다.

대체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규의 근원을 보면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교회에 속하고 있으면서도 교회와는 아무상관 없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경우. 둘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작건 크건간에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것은 개인의 목적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 교회는 이러한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든지 이런일을 계획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 저의는 개인의 가치 판단과 더불어 개인적인 욕구충족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 세째로, 교회는 교회자체의 뚜렷한 존립 목적이 있다. 이것을 흔들 수 없는 것이다. 교회의 분규는 그것이 대소를 막론하고 이 세가지 목적 즉, 개인의 목적과 교회에 대한 개인의 기대

하는 바와, 교회자체의 목적이 서로 충돌될 때 생긴다. 이 세가지 목적이 분명히 판명되어야 하며 또한 충족되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쉽게 일치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안에 분규가 생기는 것은 은혜가 없는 증거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악마적인 것으로 이해해 왔다.[2] 그 이유는 첫째 분규는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감정은 성숙치 못한것이거나 점잖치 않은것이므로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 하며, 둘째 분규를 내놓고 다루는데는 굉장한 용기와 정력이 소모되므로 자연히 멀리하게 되고, 세째로 분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데는 큰 위험이 따른다. 상처낼 각오와 그것을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요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원수로 맺게될 가능성도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세가지 이유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던지 분규를 없게 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3] 우리의 신앙은 분규를 반대하고 용납할 수 없는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결과로 대부분의 교회는 분규를 일으키는 제안이나 행동을 거부하고 분규 제압을 제창하는 것이 통례가 되어있다.[4] 그러나 인간의 개성이 다르고 사고와 가치판단과 문화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대인관계에서 자연히 대립과 충돌과 분규를 일으키게 되고 또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뚜렷한 목적과 전통과 교리가 있으므로 원칙상 타협할 수 없는 길을 갈 수 밖에 없으므로 자연히 분규는 생기게 마련이다.

2. 한국이민교회 분규의 특성

한국 이민교회가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분규의 특성을 예를 보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대체로 찾아볼 수 있다.

(1) 언어의 장애, 소수민족으로서의 핸디캡, 전혀다른 생

와환경, 훈련받지 않은 직업, 삶의 위협, 공포의식등으로 인해 이민자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열등의식, 좌절감, 허무감 때로는 절망감까지 깃들이게 된다. 엉클어진 실타래같은 이러한 억압 감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판단이나 행동을 벗어난 일들을 삶의 주변에서 자수 볼 수 있다. 특별히 교회안에 이러한 풍조가 밀려들어 지나친 자기 과장이나 고집이나 파당을 짓는 일들이 많은 것은 어떻게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교회의 분규는 인정을 받으려는 인간의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무서운 반발력으로 나타난다. 교회의 분규가 일어나는 주요 이유의 하나는 "내가 어느 누구보다 못해서 집사, 권사, 장로로 선출될 수 없느냐?" "어째서 교회가 나의 의견을 무시 하느냐? 목사가 누구의 말은 듣고 내말을 안 듣는다."하는 등의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밑바닥에는 인정욕구가 채워지지 않은데서 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재미있는 것은 교회분규가 일어나는 시기를 보면 대다수가 년초에 일어난다. 그것은 연초에 직원 선출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현상은 그러한 인정욕구가 불만일 때 흔히 교회에서 쓰는 상투어가 있다. 그것은 "이교회는 은혜가 없다." "이교회가 부흥이 안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하는 말들이 유포되기 시작한다. 어쨌든 한국 이민교회 분규의 원인은 이러한 이민정착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변화의 반응인 경우가 많다.

(2) 통계에 의하면 한국 이민교회 교인의 68%가 미국에 온지 4년만에 교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상식으로 짐작 할 수 있듯이 한국 이민교회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는 교회 행정면에서 훈련받지 못한 교인들의 행정 참여로 인해 여러가지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과 생각만을 가지고 교회 행정에 관여 하면서 고집을 함으로 인해 본래 교회 훈련과 전통에 익숙한 지도자나 교인들과 마찰을 가져오게 된다. 이로 인해 신구 교인의 대립이 생기고 미국식 한국식이 나와 싸움이 생기는 일을 종종 본다. 교회의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교인들은 그가 경험한 사회의 한 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것을 주장한다. 가령 "목사도 한 고용인으로서 매년 심사를 해서 계약을 연장하자고"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연말만 되면 그 교회는 굉장한 긴장이 생기고 그로인해 늘 교회가 소란하다.

(3) 한국 이민교회 자체가 그동안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밀려드는 교인들의 생활문제와 현상유지에 급급해 왔다. 따라서 새 교인 훈련과 직원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가지 혼란과 교회본질적인 이해부족, 직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름으로서 생기는 분규들이 있다. 교회의 신앙고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집사나 장로로 선출함으로 인해 교역자가 당하는 고초와 교인들의 실망과, 선출된 직원의 권한 남용과 행패로 인해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져 결국에는 분열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4) 보수신앙 – 진보신앙, 성령파 – 무성령파, 순복음 – 가짜복음, 우리에게만 구원 – 저들에게는 저주, 신비 – 세속, 불성령 – 물성령등의 양극 대립으로 인한 분류가 있다. 신학적인 근거에서 보다 신앙생활의 취향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개인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하는 문제도 대두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이러한 분규는 목사의 입장에 달려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대립이 있을 때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다.

(5) 한국 이민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은 계층 의식이 있다. 때로는 지방색도 곁들인다. 유식 – 무식, 있는자 – 없는자, 상류 – 하류, 전문업 – 노동업, 노년생 – 초년생등 우열의식을 은근히 드러내고 따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인해서 교회에는 같은류의 사람들이 모이고 동소 함으로써 오는 대립감성이 있다. 이러한 것이 평온할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단 무슨일이 생기면 곧 그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3. 분규에 대한 신앙적 이해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 하셨다. "자기형상"이란 자기의식과 선택의 자유와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이다.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어졌으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실락원의 주인이 된 것이다. 인간은 간단없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목적 추구와 선택을 계속하는 존재이다. 이 선택 과정에 있어서 상반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개인에게 주어져 있다. 그로인해 분규는 인간실존의 밑바닥에서 생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교인간의 대립이나 분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훈과 상반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가 좀더 철저한 신앙인이라면 교회 안에 분규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하면 할 수록 우리는 더욱 큰 분규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게된다. 예수께서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 하셨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해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 5 : 43-48)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그가 필요한 목적을 그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것과 그의 특유한 의지와 판단과 소망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는가?"고 물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적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일러 주셨지만 실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는 우리의 적수가 필요하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제한된 판단을 깨닫게 될 뿐아니라 또는 우리 스스로의 의도나 위치에 대한 관찰을 새롭게 비판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적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될 것이다.

관심과 사랑 그 자체가 갈등과 분규를 자아낸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대로를 상관 하시지 않고 사랑하시며 용납 하신다. 또한 동시에 우리를 판단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짐과 행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신다. 분규는 인간이 인간되는데 그리고 사회생활에 불가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분규는 마치 다이나마이트와 같다고 비교할 수 있다. 파괴를 위해 그것을 쓴다면 무서운 폭발력으로 많은 인명을 살해할 것이지만 그것을 건설사업에 쓰게되면 문명의 이기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된다. 분규는 적극적인 면으로 볼 때 새로운것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분규가 없이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의 부당함을 찾아낼 길이 없다. 또한편 분규가 없이는 다른 사람의 목적하는바가 참으로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예수의 생애도 개인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마침내는 당시의 전통에 대해 계속 분규를 일으키는 일을 하셨다. 매사건마다 새로운 진리가 드러났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선택이 제시되었으며 따라서 하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성장을 가져온 것이다.

4. 한국이민교회의 분규 처리 형태

분규에 관련된 쌍방이 상호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믿을때, 서로 협력하는 것이 대립해서

싸우기보다 낫다고 생각될 때, 서로의 상치되는 의견이 오히려 일을 더 잘되게 한다고 믿을때, 다른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과 의견과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시인할때, 다른 사람의 견해도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일때, 분규의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4] 이와 반대로 쌍방이 도저히 서로 타협할 수 없다고 여긴다던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하려고 하지않고 자기주장만 관철 하려고 할때 분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즉 분규를 피하거나, 대결하여 싸움을 하게 된다.

Jay Hall은 Conflict Management Survey에서 분국의 형태를 다섯가지로 구분했다. 그의 모델의 특이한 것은 두가지 중요한 요소를 관련시킨 것이다. 즉 각자의 목적과 쌍방의 관계를 살피는 것으로서 이 두가지 요소는 모든 분규에 개입하는 것이다. 분규에는 첫째 내가 또는 한 집단이 원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하는 중요성과, 둘째로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다음의 다섯가지 형태로 구분했다.[5]

(1) 이기고/지는 형

분규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이 내게 너무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과의 인간관계가 상하거나 두절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기어코 내가 원하는바를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결의에서 생기는 "지고 이기는" 형태가 있다. 이경우 분규는 독선적이고 타협의 여지가 없고 사납고, 비이성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하는바를 기필코 이루려는 데만 급급하여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던지 그런것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상관하지 않는다.

한국이민교회의 분규는 대부분 이 부류에 속하는것이 많다. 교회가 가르치는 바가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자는 교훈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의견의 대립이나 갈등

이 생길때 가르치고 배운 바는 아랑곳 없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목적 달성을 꿰한다. 때로는 불신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비열한 방법과 개인공격 스퀀달 조성, 인간 매장등 잔인한 수단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인간 관계는 완전히 두절되고 결과는 원수맺고 갈라지는 비극에 이른다. 막스베바의 그대로 "문화가 낮을수록 싸움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형태는 가장 문화수준이 낮은 부류에 속한 분규 형태라고 하겠다.

(2) 적응형

적응형은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경우일지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므로 분규 사태에 적응을 도모하는 스타일을 말한다. 결국 개인이나 어떤 그룹의 목적보다 인간관계와 그가 속한 단체의 기능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게 되는 형이다.

한국 교회안에도 이러한 적응형이 많이 있다. 개인이나, 몇몇이 생각하는 어떤 목적보다 교회를 평화스럽게 유지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이루려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에게는 이해와 인내가 필요하다.

(3) 회피형

분규에 대해 비관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이다. 결국 싸워봤자 원하는 목적은 달성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인간 관계를 해치게 된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이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사퇴하거나, 피하거나 가능한대로 분규에서 벗어 나도록 하는데 있다.

한국 교회에는 회피형의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한국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싸움은 피하는것이 좋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분규를 회피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으로 까지 여기는

사람이 태반이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 적으로 대부분의 교인들은 무사주의가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분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덮어 버리고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결과는 표면상 해결된것 같지만 암투가 계속되는 어려움을 자아낸다.

(4) 타협형

사람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이다. 조금 양보하고 그대신 조금 얻으면 피차 공평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타협형은 원만하여 분규에 있어서 일을 잘 처리하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결국 없느니보다 낫다는 철학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유형은 미국교회에서는 잘 진행되는 것을 본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보기드문 형인것 같다. 한국 교회에서의 타협은 극히 드물다. 타협에는 피차의 요구조건을 분명히 드러내고 얼마를 혹은 무엇을 양보한다는 것을 뚜렷히 해야되고 또 상대방은 그것을 수락하는 한편 내쪽에서도 그만큼 양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훈련을 아직 잘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5) 너도 이기고/나도 이기는 형

분규에 있어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타입은 개인의 목적 달성도 중요시하고 인간관계도 중요시하는 즉 다른 사람의 목적도 그대로 중요시하는 태도이다. 대체로 분규사태에서 제 3 의 방법을 모색해서 피차의 목적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피차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좀더 창의적인 제 3 의 방법을 공동으로 찾아 냄으로써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다. 피차 인내하고 특별히 신임하고 공개하여서 문제를 다루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아직 이러한 이상적인 분규 해결의 사례를 많이 보지 못한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도 흔한 예가 아니다. 너도 나도 만족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을 모색하여 피차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을 것이다.

이상 다섯가지 분규 형태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규처리형태	목적	인간관계
1.	이기고/지는형(The Win/lose)	+	−
2.	적응형 (The Accommodation)	−	+
3.	회피형(The Avoidance)	−	−
4.	타협형(The Compromise)	±	±
5.	너도 이기고/나도 이기는 형(The Win/win)	+	+

이러한 다섯가지 형태 가운데 어떤 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는 이미 말한대로 다섯번째의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것인데 모든 분규에 있어서 그렇게 이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이 다섯가지 형태를 분규의 내용과 처리와 형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가 있다. 어떤 사람은 1번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3번 혹은 4번만을 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대개는 형편에 따라서 그 태도를 바꾸는 것이 상례이다. 가장 효과적인 적절한 방도는 5번에서 시작하여 다음으로 4번, 2번, 1번, 마지막으로 3번의 순서를 따르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제에 있어서 한 형태가 언제나 계속해서 그 사람의 특성이 되어 버리기 쉽다. 한 사람의 독특한 스타일이 결국 다른 사람의 반응을 결정짓기도 한다. 가령 첫번째 형인 나만 이기고 상대방의 바라는 것을 무시하고 고집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상대하는 쪽에서는 으례히 그 사람도 양보나 타협이나 제3의 방법을 강구함이 없이 이쪽에서도 상대방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게 된다. 만일 내가 가장 이상적인 너도 나도 이기는 방법을 취하기를 바란다면 나 자신이 먼

저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 자연히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분규에 관여하게 되면 사람은 자연히 감정에 휘말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굳어지고 고집스럽게 된다. 우리는 생각을 심중히 해서 여러 의견을 잘 참작하는 가운데 반응을 보이고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도를 모색하기 보다 몹시 감정적이 되어 지각없는 행동을 한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내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 어떤 스타일을 따르는지를 아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향을 앎으로써만 자신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역사는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이다. 인간은 파괴하고 건설하고, 먹히고, 먹는 기복의 역사이고 발전하는 역사이다. 한국 이민교회의 분규가 많은 것은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교회가 언제나 불안하고, 불신사회의 비난을 자아내고 선교의 문을 막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 의욕적이고, 창의적이며 성장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바르게 관찰하고 지혜롭게 처리 함으로써 그 힘을 건설적인데 사용하여야만 한다. 우리안에 있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찾아내는 지혜와 기교가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크고 작은 분규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어왔다. 과거 선교 100주년 동안에 한국교회안에 일어났던 분열과 분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무지와 사욕과 권리와 지방색과 이권을 위한 저속한 동기에서 일어났던 시궁창 같은 싸움이 싸움으로 끝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분규 가운데서 성장했고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었다. 이제 미국에 이주해온 한국이민교회는 아직도 한국에서 배워온 구습과 잔재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부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교회가 어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

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겠다. 우리는 여전히 원수짓고, 싸우고, 가르고 한다. 창의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견디어 보자. 그러나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면 속히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분규를 파괴적인데서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데로 선용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겸허하게 구하며 지혜롭게 처리해야 한다. 선교 백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불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키워주신 하나님께 앞으로의 백년을 바라 보면서 한국 이민교회가 좀더 성숙하고 선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을 간구하며 확신한다.

NOTES

1. G. Douglass Lewis, Resolving Church Conflict(New York: Harper & Row, 1981), p. 11.
2. John Macquarrie, The Concept of Peace(Now York: Harper & Row, 1973).
3. Lewis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New York: Free Press, 1956), pp. 20-26.
4. James D. Anderson, To Come Alive(New York: Harper & Row, 1973), p. 91.
5. Jay Hall, Conflict Management Survey(1969) (Conroe, Tx.: Teleometrics, Inc.)

이민교회의 사회적 사명

신 현 정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핍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 : 5 -10

I. 교회의 사회적 사명의 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인 동시에 또한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와 이웃을 떠나서는 나라는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 날 때부터 사람은 가정에서 출생하고 가정에서 자라며 이웃과 어울리고 교회와 학교, 지역사

회의 단체,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원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체인 교회는 개인의 신앙과 경건을 배양하고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인격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개선을 가져오는데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여 이룩한 사회적인 집단인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므로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무관심 할 수가 없다.

교회의 사회적 사명은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계명들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 (마태 28 : 20) 이요,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이다(요한 1 서 3 : 11-18).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화평, 화해와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점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을 구속하시고 인격적인 성장을 꾀하시며 변화된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에 참여하여 변혁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교회의 사회적 사명은 교회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여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의 기도를 사회속에 구현하고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회의 사회적 사명은 교회가 마땅히 져야만 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성서적 신학의 근거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서에서 교회가 사회적 사명을 수행해야 할 정당한 이유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구약의 계약서, 신명기와 성결법들은 모두가 윤리적인 명령들로 되어있

나. 그중에도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2장과 23장인데 절도죄, 손해배상, 처녀를 범한 자를 다스리는 법, 과부와 고아 보호법, 사회 정의와 사회복지에 관한 법령을 기록하고 있다. 신명기 27장 19절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하였고 구약의 아모스,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도 거듭 거듭 위정자들에게 약자와 과부와 고아와 떠돌이를 보살피며 남을 억압하며 착취하지 말 것을 각별히 경고하고 있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들어 이사야 61장 1～2의 말씀을 찾아 읽으심으로써 그 분의 오신 목적과 사명을 뚜렷하게 하셨다. 눅 4 :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적 사명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도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보심은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눈 뜨임을 선포하며 눌린 자들을 놓아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관심은 대단하였다. 그는 생활 규범으로 이웃과의 관계, 남여관계,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 주인과 노예관계등 광범하게 다룸으로써 기독교인의 사회적 사명을 천명하였다.

화해를 주제로 한 1967년도 연합장로교의 신앙 고백은 2장의 "화해의 사명"중에서 교회가 고용, 주택, 교육, 여가, 결혼, 가정, 교회, 정치 각 분야에서 인종간의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빈곤 해결, 평화 유지, 성서적 성적 견해를 지속할 것을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각기 처한 특수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그 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동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찾아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Ⅲ. 최근의 동향

교회의 사명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하나의 교회를 중심한 교회 유지에 직결된 사명과 또 하나는 교회밖에서의 대 사회적인 신명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는 예배와 설교, 목회 상담, 기독교 교육, 평신도 운동과 교우간의 친교라고 할 수 있고, 대 사회적 사명으로는 사회 봉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의 참여, 정부의 정책수립및 시성에 대한 권고, 각종 사회 조직및 기구들의 이타주의적 활동을 추구를 꾀하는 것 등이다.

이 양자중 보수신앙 계열의 교회들은 완전히 개인 구령운동에만 치우쳐 전자에만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 목회자 자신도 세사장직만 수행하려 하지, 예언자적인 그리고 왕적인 사명은 하려들지 않는다. 그리고 보수 신학과 교회주의를 부르짖는 교회들이 사회적인 사명을 다 한다고 나설 때는 대개가 위정자의 편에 서서 권세를 옹호하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반면에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교회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룩해 나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이 땅에 세우고, 민중을 정치적, 경제적 속박에서 풀고 약자를 건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다면, 교회는 개인의 경건과 은혜받는 일에만 관심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에서 교회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적 사명을 네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회 봉사이다. 많은 교회들이 헌금의 일부나 특별헌금을 거두어 자선기관이나 사회 사업기관을 도와 가난한 이들에게 식료품과 옷을 사주도록 하고 주거문제, 교육, 상담, 건강보존, 신체 장애자들의 재활, 피난민들의 정착,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돕고 있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분석하여 사회의 재정적 인적자원이 인종차별이나 그릇된 제도로 인하여 잘못 분배가 안되도

록 힘쓰며, 자립·자결의 원칙에 근거하여 약자들의 권익을 최대한도로 찾을 수 있도록 변호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지역 사회 조직및 개발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민이나 약자편에 서서 부당한 압력세력에 항거하여 싸우는데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다. 일정한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의식화 시키고 조직화 하여 그들의 권익을 최대한도로 찾도록 도웁는 것이다. 약자편에 서서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사직 당국에 호소하고 그들을 대변하고 또 시나 군 정부관계자와 시민들 사이에서 중재도 하고 주민들의 유대를 공고히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교회는 그주변에서 부조리나 불의, 주민들을 해치는 요소들을 볼때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제거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개선, 올바른 시정, 공공 써비스의 원활화, 주민들의 복리를 도모하는 일들을 도와야 한다.

세째로 교회는 비인간화 하는 제도와 권세, 기구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릇된 정책이나 조직들을 바꾸어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와 자유를 누릴수 있게끔 하는 일이다. 일례로 모 기업체가 인류의 대량 학살을 목표로 세균전 혹은 핵전쟁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업체에 투자하거나 기술 같은 것을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회는 대기업체나 정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원을 선하게 쓰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쓰도록 선도해야만 한다. 정치제도나 경세기구, 사회제도, 교육기관등 모든 조직들이 인종적 평등과 경제적 정의와 사회복지와 평화를 위해서 모든 자원을 바로 쓰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지도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정부의 입법과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는 일이다. 시나 수정부, 연방정부가 시민,주민, 국민 전체의 이익과 평화와 정의를 목표로 하여 입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가를 항시 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그들이 인종차별, 불평등, 부조리, 불공평 또는 전쟁들을 도모하는 입법이나 정책을 제정 한다면 교회는 가장 먼저 그것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 전체의 복

지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려 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핵무기 생산을 목표로 배정하려 할때 교회는 세일 먼저 정부에 대하여 안된다고 발언하고 입법자나 위정자 또 국민들을 계몽 지도하여 반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한인 교회들의 사명

미주에 있는 한인 이민 교회는 이민자들의 특수성과 이민들이 실제로 처해있는 미국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이민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생각해야 한다.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고 교회를 이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신자)들이 딛고 서있는 사회를 무시하고서는 교회의 참된 사명을 생각할 수가 없다.

한인 이민교회들의 사명은 다섯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로 한인 교회들은 대부분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교회의 예배의식, 설교, 기독교 교육, 평신도 프로그램들에다가 사회적 관심사들을 집어 넣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설교의 주제가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기아, 전쟁 방지, 핵무기의 문제점, 인권 존중, 인종 차별 반대, 유산 문제, 여권 운동 등 광범위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포함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로 이민 교회는 이민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의 생활 풍습, 역사, 정치제도, 사회 경제 제도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 재훈련과 직업보도를 주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민자들로 하여금 이곳 미국 사회에 정착하게 하고 주류 사회와의 교류를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이민자들의 변두리 인간의식을 제거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이민자들로 하여금 귀화하여 시민권을 얻게하고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가지고 각급 선지에 참여케 하여 주인 의식을 길러주어야만 할 것이다. 이민 교회는 이민자들이 이 미국 주류사회에 신속히 접붙여서 주변성 의식을 갖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세째로 이민교회는 이곳 미국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하고있는 위에서 열거한 사회적 사명을 다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사회 봉사와 기본권 옹호운동, 지역사회 조직을 통한 권익보호와 불의 제거, 정치, 경제, 사회, 교육기구들의 책임적인 역할 도모, 입법 및 정책수립에의 참여등에 이민자들이 발언하고 가담하여 행동화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핵무기나 공해산업으로 많은 선량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 이민자들도 다른 시민들과 더불어 반대 시위나 시정운동에 참여하게끔 의식화 시키고 행동화 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한인 교포들이 책임시민이 되도록 교회가 선도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 교회들은 한인의 아이덴티티(Identity)나 주체성을 고양시켜 한인들이 타 종족보다 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종족으로 계속 보존되어 가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2천년 이상 나라없이 유랑하면서도 그 민족과 종족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한인들도 타인종에 못지않게 많은 인종중에서도 탁월한 종족으로 보존되도록 한인 교회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전개해야만 한다. 유태인 사회에서 회당(Synagogue)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듯이 우리 한인 교회들은 우리 이민들의 사회속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며 어느 인종 사회에 보다 우선 한인 사회에 대하여 사회적 사명을 다 해야만 할 것이다.

필자의 약력

신 현 정(미국명 Harold H. Shin)

현　　재 시카고 한인 사회봉사회 사무총장 맥코믹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 이수중

1972년 6월 일리노이 주립대학 사회사업석사(Msh)

1970년 6월 맥코믹신학대학원 졸업. 교회와 사회 전공(M)

1964년 2월 한국신학대학원 신학석사(Th.M.)

1962년 3월 한국신학대학졸업 신학사(B. Th)

목사 부인의 역활

Elizabeth L. Kwon

저는 본국을 떠난 지 32년이 지났읍니다. 미국서 사는 동안 한국교회 목사 부인들과 접촉한것 보다 미국 목사 부인들과 접촉한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쓴 것 보다 주관적으로 쓴 것도 있기에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목회의 경험도 하였고 그리고 목사 부인으로서 15년간 교회를 섬기기도 하였읍니다. 지금은 현재 미국 학교에서 교편을 삽고 있으면서 남편과 팀(team) 이 되어 parish associate 로서 목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백인교회 안에서 Korean Fellowship 을 시작하여 동사 목사의 직분을 맡고 있읍니다. 저를 여목사 되라고 기도하여 주신 할머님은 고인이 되셨으며, 그리고 저에게 종교(기독교) 의 유산을 남겨수신 아버님과 어머님께 감사드리며 그분들에게 이 글을 헌정코저 합니다.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의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은 진리를 앞으로 목사 부인 되고자 계획하시는 분들과 이미 목사 부인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부인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직분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느냐고 물어 온다면 한 마디로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읍니다. 이 직분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그 사람의 문화적, 종교적, 교육적, 가정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백사람 이면 백사람 만큼 여러모로 역할하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동양 목사 부인과 백인 목사 부인의 역할의 범위와 성질이 다양할 수 있읍니다. 목사 부인의 직책은 한 가정에 주부이면서 그의 남편이 목사라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제한된 직책입니다.

역할을 논하기 전에 먼저 목사 부인은 여성 입니다. 이 직책은 교회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사모님이라는 명칭도 교회 안에서 쓰는 명칭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로서 세상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신학)을 받고 교회에 초빙을 받아 교회를 섬기게 된 사람이어서 거기 따라오는 댓가로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 부인은 무보수이면서도 교회에서 기대를 하게되는 일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또 여러가지 일도 무보수로 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결혼전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목사인 남편이 교회를 섬기게 될때 여러모로 도울 수가 있읍니다. 음악을 한다면 풍금을 칠 수 있고 찬양대와 같이 찬양도 할 수 있고 성경 지식이 있으면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반도 가르칠 수 있고 지도력이 있으면 부인회도 도울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안에 분야에 따라 지도자가 있으면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능력이 있고 교회서 필요하게 된 경우는 돕는 일도 할 수 있읍니다. 목회자의 내조자인 입장에서 자기의 능력대로 섬길 수 있읍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목사 부인에 따라 역활하는 부분이 다를 것입니다. 목사이면서 교수하시는 이의 부인일때는 자기가 교회 밖에서 직장을 가질 수 있읍니다. 원목, 대학교 chaplain, prison chaplain, 목사이면서 social worker 인 경우, 직접 목회 아니하는 목사 부인과 직접 목회하고 있는 목사 부인의 입장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 부인들이 하여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목사 가정은 어항에 들어있

는 물고기 같이 그의 가성이 목사관에 살고 있으면 특히 교회 가까이 목사관이 있을 때는 privacy 가 거의 없읍니다. 목사관에서 사라나는 아이들은 pastor's kids 라고 하여 교인들의 비평의 상대가 되고 목사관은 교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관에서 15년 동안 사는 동안 편리한 점도 있었고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을 경험했읍니다. 집은 항상 치워져 있어야 하고 손님대접은 예약도 없이 늘 치러야 했읍니다. 오고 가는 손님을 모시는 여관 주인같은 역할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자유는 거의 없는 것을 경험했읍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목사관을 처리하고 housing allowance 를 주고 자유롭게 살게 합니다만 어디서 살던지간에 사모님은 목사 가정을 가장 평화롭게 모범이 되는 가정의 주모가 되어야 하고 목사가 아이들의 교육을 돌볼 시간을 교회에다 다 바칠 때 사모님은 자녀교육을 정성되게 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pastor's kids 가 교회에 모범적인 자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인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읍니다.

사모님이 직장을 가져야 하느냐 전적으로 교회만 섬겨야 하느냐에 대해 가하다 부하다(pro-con) 상반된 의견들이 있읍니다. 사모님이 딴 직장을 아니 가져도 생활할 수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사모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직장을 갖는것도 좋은일 입니다. 자기의 재능에 따라 공부한 professional ability 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재능을 발휘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도울수도 있읍니다. 직장을 가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인데 이것이 곧 생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사모님들은 목사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모님들 하나님의 servant 입니다. 사모님은 목사님과 같은 servant 된 직분을 아시고 같이 섬기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양 무리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든 양 무리들은 여러 모양의 인간들입니다. 다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다들 사랑에 굶주린 목마른 양무리들 입니다. 이 양무리들을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직분입니다. 어떻게 양무리를 돌보아 주느냐 어떻게 하면 가장 선한 목자의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것이 주어진 생의 숙제입니다. 주님의 종의 역할은 교인들 앉고있는 자리에 함께 앉아주고 괴로워할 때 어루만져 수고 그들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같이 져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동성하는 것입니다. 병 들었을 때 찾아 심방하며 같이 기도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민과 시험을 이해하고 동성하여 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니고 있는 어려운 짐을 들어주고 동정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종이기에 주님의 교회에 모인 양 무리들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읍니다.

목사는 만년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공부하여야 하고 계속 신학서적을 읽어야 합니다. 사모님들께서도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시고 원서를 읽으시면 좋지만, 학생같은 태도를 가지고 항상 공부를 계속하여야만 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져야 하겠고 교인의 가정의 되어지는 일, 자녀들이 자라는 형편을 알기 위하여 공부하여야 합니다. study 란 연구, 검토, 조사, 자세히 보다, 살피다, 유심히 본다, 남의 희망, 감성, 이익 따위를 고려한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교회식구들을 study 하라는 것입니다. study 를 하고나면 교인이 나의 식구가 되어 기도드리게 됩니다. 목회자는 또 peace-maker 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모님도 목사님과 함께 교회서는 모든것을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중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평화는 땅위에서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일 입니다. 사모님께서 목사와 같이 평화 사신이 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어머니와 자녀사이, 아버지와 자녀사이, 부부사이, 고부사이, 형제사이에 일어나는 오해, 분생, 시기, 분노 등을 평화롭게 해결하여 주는 사사

가 될 수 있읍니다. 항상 예민한 관찰을 가지고 돌보아야만 하는 peace-maker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계자 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인의 믿음이 약할 때 함께 기도해 주고, 사랑의 손길로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내어 대화해 주고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목회자와 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읍니다.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심방 다니세요. 가정을 심방하는 가운데서 좀 더 내용을 알게 되고 여러가지 형편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이기에 돌보아주고 싶은 심령으로 한다면 심방하는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 가정을 공부할 수도 있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격려를 해 주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을 위로해 주고 사고가 나서 애통하는 자는 심방가서 앉아 있기만해도 무언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떤때는 적당한 말이 없어도 침묵한 가운데서도 위로를 줄 수도 있게 됩니다.

목회자는 healing ministry를 하는 사람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는 화해와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온 교회가 고침을 받는 모임이 되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 고침 받았던 은사가 교회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는 없지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며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병든자를 위하여 교인이 모여서 기도하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정신을 가르치는 것도 healing ministry의 한 역할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자의 내조를 가장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목사 사모님은 이미 내조자로 또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읍니다. 이 직책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존엄성을 느끼면서 역할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대한 최선을 다 할 수 있읍니다. 우리 한 개인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선택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가장 귀중한 인물 입니다. 우리의 배경과 학식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내조자는 첫째로 목사라는 한 사람의 존엄성과 그의 직책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남편되는 이가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고 목회자가 자기의 정성껏 주님을 섬길 수 있게 격려하여 주는 이가 바로 사모님 입니다. ·그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 주어야 하고 지혜로운 격려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남편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비평하고 지적하는 것 보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할 것이 있을때 는 집에서 조용하게 두 사람이 있을 때 만이 얘기를 하여야만 합니다. 두 사람이 뜻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가 비평을 나눌 수 있는 목회자의 부부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자연히 여러가지 단점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내조자로서 또 가장 예민하게 관찰하여야 할 문제는 두 사람의 정신건강, 영적성장, 육체의 건강을 잘 살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이 세가지를 항상 주의하시면 가정생활의 방식, 식사하는 행습, 서로 서로가 대하는 태도들이 다 다를 것 입니다. 목사 부부는 항상 그의 생이 거울과 같이 남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즐거운 가정이고 두 사람의 사이가 좋으면 평화스런 가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불만과 불평이 있으면 어디든지 나타나게 됩니다. 내조를 잘 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건강하고 기뻐야 하고 평화가 넘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세들끼리 우애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가정 처리도 원만하

게 하는 사모님이라야 참 내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의 어머님께서는 목사 부인 17년, 선교사의 부인으로 33년간 50년간 섬기신 분인데, 교회에서 목사 부인이라는 직책을 가지게 되면 많은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 같이 생각하고 성성껏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읍니다. 머리 빗는 것과 옷 입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고 항상 말에 조심하고 듣기만 하고 옮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잘못 전달될 때 대인 관계서 오해도 생기게 되고 고의적인 아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 사모님은 말도 잘 안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말 많이 한다고 소문나는것 보다는 훨씬 좋은 일 입니다. 사모님은 대화의 대상자가 되기 전 먼저 남의 얘기를 잘 듣고자 하는 태도가 되어 있으면 교인들이 얘기를 쉽게 하게 되고 안심하며 믿고 얘기하게 됩니다. 혼자만 아시라고 전한 얘기는 절대적으로 침묵을 지켜줄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의 내조자라는 입장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교인에게서 전화를 받게 될 때 자기 남편에게 먼저 교인이 알리고자 하는 심정을 이해하시고 늘 먼저 직접 대화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사모님 되신 분이 자기의 mental stability를 유지하려고 하면 내가 항상 기쁘고 나의 생에서 뜻깊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자기의 정성을 다하였지만 가다가 공연히 낙망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하여지고 자존심을 잃게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 호소도 하시고 자기가 믿는 친구를 찾아 대화 하세요. 그리고 남이 비평하는 것, 모욕하는 것 등은 염두에 두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왕으로 모셔졌다가 죄인으로 취급되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아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의 생도 십자가의 길인 것을 잊지 마세요. 사모님이 되면 걱정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걱정이란 정신의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가르치셨읍니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 말씀)

현대 사람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병에 걸리지 않게 주의 하시고 이것은 걸리기 쉬운 병이라고 인식하세요. 우리가 걱정 한다고 해결이 아니될 일들은 기도하는 중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 나가야 합니다. 내조자인 사모님은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전 먼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피곤을 느낄 때는 평소에 입었던 옷을 벗고 편안한 house coat 를 입고 음악을 들으며 가벼운 체조를 한 20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장 즐길 수 있는 일을 10분 20분을 하게 되면 완전히 recreation 이 되어 다시 계속하여 생을 즐기며 살게 됩니다. 화초를 기른다든지 과실나무를 기른다든지 채소밭 같은 것을 가꾸기도 하고 고양이나 개를 기르는 것도 다른 취미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수시로 피곤을 풀기 위해 spa sauna 에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기진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친절을 베품으로 평안함과 기쁨이 생겨 남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9년 전에 cancer 유방암을 수술하고 난 후에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워서 남에게 내가 배운 것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친절을 베풀게 되었읍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여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까지 받았읍니다. 우리 내조자된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는 내가 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 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어 우리가 꿈꾼 만큼 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이것이 곧

기적입니다. 사람에게만이 이 우주 안에서 꿈을 가지게 하시고 계획하고 자라고 훈련하여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읍니다. 꿈을 꾸고 목적을 세워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모님들이 목사님의 내조자로 역할할 수 있는 이모저모를 말씀드렸읍니다. 훌륭한 사모님 되는 분은 부르심 받은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음을 믿고 헌신하는 분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분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땅위에 세우신 주님 교회임을 믿고 자기 처지에 따라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여자로서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부인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분이면서 내조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의 정성과 능력을 다하여 하려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훌륭한 사모님의 역활을 다하는 사모님들일 것입니다.

사모님들이 숨은 곳에서 자기를 훈련할 수 있는 도장이 있읍니다. 그것은 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아이들을 기르고 빨래하고 집치우고 설겆이하고 부엌 바닥을 소제할 때마다 이런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할 때마다 본인의 태도가 달라지고 능률이 나게 됩니다.

특별히 성직자의 내조자로서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면 있는 충성을 다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정성껏 하게 됩니다. 목사 사모님들은 다 다른 그릇들입니다. 땅위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의 처지대로 몸을 바치고 살고자 결심을 하고 목사가 하는 목회 (ministry) 에 참여한 사람들 입니다. 여기서 오는 시련과 도전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고 우리가 가장 부족하고 힘이 모자라고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병난 일도 있었고 의사에게 3년 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선언도 받았읍업니다. 어떤때는 한 문이 닫히게 된 때 하나님께서 문 열어 주실때 까지 기다려야 했읍니다. 하

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동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세요(로마 8장28절).

사모님께서 하실 역할 중 제일 큰 세가지가 있읍니다. 그것은 목사로 하여금 여성에 시험들지 말게, 명예욕에 빠지지 말게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돈에 욕심나지 않게 항상 경고를 하여야 할 일입니다. 목사들이 질보다 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충고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참되고 충성스럽게 섬기었는가 중심 보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내조를 하여 드려야 합니다. 남편되는 사람을 위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디서 이 글을 읽고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 독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하루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읍니다. 그는 바닷가로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꿈을 꾸었읍니다. 바다 저편 지평선에는 자기의 생애의 그림자가 지나는 것을 보는 중에 그는 두 사람의 발자취를 발견했읍니다.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취였읍니다. 그런데 자기 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올 때 보니 두사람의 발자취가 없어지고 여러번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타나 있었읍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장 괴로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제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긴 때였었읍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그것이 자기를 무척 괴롭게 해 주었기에 주님께 물었읍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작정 하였을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같이 걸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의 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내가 제일 괴롭고 외롭고 아플때 거기는 단 한 사람의 발자국뿐이었읍니다. 내가 제일 괴로운 지경에 있을 때 왜 나를 혼자 두시었나이까 하고 물었읍니다.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사랑하고 귀한 아들아 나는 너를 극진히 사랑하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 네가 고생하며 시련

을 당하고 괴로워 할 때 너는 한 사람의 발자취를 보았지.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고 대답하셨읍니다.

목사의 내조자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중에서야만 걸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전도하는 일을 하는 목사의 내조자로서 살면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사랑의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어떻게 역할을 하여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만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에 넘치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모범적인 부인이며 내조자의 직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연구도 없이 생각이 나는대로 서투른 말로 이 글을 썼읍니다. 수고스러우시지만 저에게 기탄없이 독후감을 기록하여 보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주소 : Elizabeth L. Kwon
1517 4 th Ave.
Los Angeles, CA. 90019

장로교회 여성의 역활

그레이스 김 (Grace Kim)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남성의 위치를 높이고 여성을 낮추는 남성 우위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다.

근대에와서, 특히 미국에서는 남녀동등권 운동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 남성우위의 차별대우 문제는 사회적으로 여러면에서 많은 개선을 요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성서는 우리에게 "남자나 여자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의 남녀 차별은 계속되고 있고, 동등점의 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우리 한국 교회로부터는 강한 반대의견에 봉착하게 되곤한다.

이제 한국 선교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장로교 내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장로교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미국여성들이 어떻게 선교에 참여해 왔으며 또한 오늘과 같은 발전을 가져왔는가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앞으로 한국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800년대 초기의 미국장로교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여성들의 활동으로 선교사업에 미친 영향과 공헌은 막대하다. 그당시 백만불 이상의 큰 자금을 여성들의 힘으로 조달하고, 국내 선교사업만해도 78개의 개척교회에 451명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24개의 학교, 8개의 병원등을 운영했다. 이러한 모든 기관들을 통한 전도사업이 여전도회(Women's Board)의 사업의 하나로써 활발히 운영 되었었다.

그 다음으로 주목될 일은 여성들이 기독교 교육에 공헌한 점이다. 주일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맡은것도 여성들이었으며, 많은 교사를 양성하고, 또한 주일학교 교재를 만든것도 여성들이었다.

1840년—1850년 사이를 돌아보면, 노예 해방운동에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또한 여성들의 주권을 찾기 위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이다. 대표적인 지도자들로써는 Elizabeth Cady Stanton, Susan B. Anthony, 그리고 Matilda Joslyn Gage 등을 들 수 있다. 여성들에 의하여 모금된 많은 헌금과 선교자금들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어 교회사업과 전도사업에 사용되었지만, 여성들의 의견이나 기본 권리는 인정되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여성이 교회내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거나 연설하는 것 까지도 금지되었다. 예를 든다면 1880년, New York 노회는 Issac See 목사가 한 여성을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게 했다고 해서 그 목사를 처벌하였다. Kansas 시의 George Hayes 목사는 "May women speak?"라는 책자를 내고, 여성도 교회내에서 공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80년도에 Sheldon Jackson 목사는 여성들의 선교사업을 장려하고, 여성들의 권한과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으로만 구성된 여선교회 실행위원 (Women's Executive Committee of Gome Mission)을 조직하게 하고, 여성들의 선교 사업에 더욱 독립적인 권한과 자치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 여선교회 실행위원이 더욱 강화되어 각

대회(synod) 마다 지방 실행위원이 조직되었으며, 선교사업에 있어서 여성의 권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후에 실행위원이 국내 선교 여성본부(Women's Board of Home Missions) 로 승격되고 총회에 직접 소속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던 지방 여전도회들이 전국적으로 한 산하에 조직되어 더욱더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 1923년에 장로교 구조를 대조직하면서 국내 선교여성본부를 없애고 Board of National Missions에 통합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독립적인 권한이나 자치권이 줄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1915년 처음으로 여성집사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의 권한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주일학교 교육과 선교사업의 자금을 도달하는 등의 역할뿐, 교회안에서의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후 점차로 여성 지도자들도 남성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일 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성 지도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1930년 여장로 안수문제가 142회 총회에서 토론되었으며 많은 노력끝에 158 대 118로 여장로 안수문제가 통과되어 미국장로교 역사에 새로운 지표가 되었다. 다음해인 1931년에는 처음으로 5인의 여장로가 노회대표로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여성들도 장로안수를 받고 교회 살림에 참여하게 되고 투표권을 가짐으로써 중요한 교회 방침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남성과 동등히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목사안수가 허락되기 까지는 빠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걸렸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박차를 가했던 주일학교를 비롯한 기독교 교육운동은 좋았으나, 여성의 역할을 주로 이 방면에만 제한시킴으로써 여성의 목회를 절대 금지시켰다. 신학교 교육제도를 이중구조로 만들어 남성에게는 정규 신학교(대학원 과정)의 입학을 가능케하고 수료후 목사안수를 주었으나 반면에 여성에게는 4년제 종교교육대학, 또는 기독교 교육과(학사과정) 등

에만 입학을 허락하고 수료후 대부분 교회의 교육자가 되었다. 이후에 기독교 교육과도 석사과정이 생겼으나 이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에도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에 비해 보수면에서도 퍽 적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에 비해 노회에서의 투표권도 갖지 못했다.

교회의 교육자 자격을 공식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1937년 총회를 통하여 정식으로 "Commissioned Church Worker" 교역자 임명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성 교역자들은 목사에 비해 많은 차별대우를 받는 점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1929년 이후로 여성의 목사안수 문제가 총회에서 논의되어왔으나, 여러번 기각당한 후 1953년 다시 이 문제가 상의 되었다. 총회는 여성의 목사 안수 문제를 더 깊이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특별위원 보고가 2년후 총회에 제출되었고 1956년 드디어 여목사 안수건이 통과되어 최초로 여목사가 인정되었다. 제일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여성은 31세의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을 졸업한 Margaret Towner 였다. 1956년 여목사 안수건이 총회에서 비교적 무난히 통과된 이유의 하나로써 그 당시 2차대전 후 경제가 부흥되고, 많은 수의 교회가 새로 설립됨에 따라, 많은 목사직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따라서 여목사의 진출이 남성들에게 경쟁을 주지않는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교회 신학자는 지적하고 있다. 그후 장로교 교단에서 여성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계속 활발한 진보를 보이게 됐고, 1971년에는 Mrs. Lois Stair 가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실정은 어떠한가?

지난 백년간 한국교회의 발전과 부흥은 참으로 자랑할 만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큰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남녀 동등권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백년 동안 세 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미국교회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여성들이

대다수이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들이며, 그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봉사하고 있다. 부인회나 여선교회의 활동도 역시 활발하며, 상당수의 여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공부하며 선교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들이 바치는 헌금 또한 막대하여, 선교사를 곳곳에 파견하고, 개척교회를 세우며, 또 고아원이나 양로원등을 설립하는 등 여러 방면에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교회 살림에 관한 투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아직도 한국 교회내에서는 여장로의 안수가 허락되지않고 있다. 한국 장로교 총회에 여장로제도를 제출하면, 토의될 여지도 없이 부가되고 만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신학교에서 남성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았으나, 목사안수를 받을수 없음으로 전도사로써 일하고 있다.

여성들이 능력이 있고,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남성과 함께 동격자로써 동등권을 지니고 일할 기회가 주워지지 않았다.

이제 미국 장로교도 여장로와 여목사 안수제도가 채택된지 이미 오래 되었고, 또한 다른 교파에서는 장로교 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여성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구라파 교회에서는 많은 여성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다수의 한국 교회들은 아직도 여장로 선출을 꺼려하며 오히려 문제화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집사나 권사 등의 제직으로써, 또는 전도사로써 혹은 주일학교 선생등으로 얼마던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꼭 장로가 되어야 하고, 목사가 되어야 하느냐고 어떤이는 묻는다. 여성들에게 교회살림에 대한 충고나 권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지만, 교회내의 중요한 방침이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나 결정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

조하셨으며, 함께 멍에를 메고 서로 협조하며 일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남성이나 여성이나 또는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크게 사용된 예들을 보게된다.

철저한 남성 우위 제도와 여성을 지극히 멸시하던 유대사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화적 제도를 무시하시고 많은 여성들을 인격자로 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참 친구로써, 복음사역자로서 쓰심을 우리는 신약 성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수명의 여성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음을 성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로써 일한 사실도 성서를 통하여 우리들은 알고 있다.

우리는 성서를 문화적인 제도와 관습에 얽매인 눈으로 볼때, 자칫하면 편협한 해석을 하게되기 쉽고, 잘못 해석하기도 쉬운 줄 안다.

과연 남녀를 차별 대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나, 경쟁이나, 교만에 의해 편리하게 만들어진 제도와 관습인지를 구별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전통이나 문화적인 관습을 초월한 자세로, 성서를 재 검토연구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남녀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올바로 깨달아야 할 시기라고 본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힘을 다하여 남성과 여성이 서로가 경쟁자로서가 아닌, 함께 멍에를 나누어지고 서로 돕고, 서로 보충하며 일하는 동역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다고 본다.

이러한 것이 여성과 남성이 육체적, 감정적 면에서 동일

함으로 동등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여성과 남성은 출생시 부터 육체적인 힘으로나 다른 여러면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이야말로 남성과 여성이 더욱 함께 힘을 합하여 협조하며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하며 도와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며, 이러한 차이점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이유가 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겠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대로 불러 쓰기를 원하실 때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든지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갈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관습적인 남녀 차별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나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크게 거역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남성의 이해, 협조와 더불어 먼저 여성 자신들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들에게 권리가 주어진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필요로 하실때는 주저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름에 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동양적인 '겸손'과 혼돈하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함은 여성들의 권리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여성들의 의무라고 생각된다.

주안에서 남녀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믿으며 또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존경하며 협조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써 함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기대해 본다.

제4부

PART FOUR

교육적 목회

The Educational Ministry

이중문화 병용

배　　영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이하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하여 재미한인이라고 약함.) 다변적인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에 사고하고 행동하고 사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영향을 받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 개개인의 기호에 상관 없이 우리의 삶은 주도적(북미주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와 행위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 규범에 대해서는 일반적 합의가 없다. 어떤 이는 우리가 한국사람이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한국문화의 표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주도적 문화의 방식에만 동화되어야 한다고 논리를 펴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두 가지 전혀 상치되는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모든 시점에서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이상적 규범이란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똑같이 반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 나는 이중문화 병용을 주창하고자 한다. 곧 우리는 주도적 문화의 규범도 따르고 한국문화의 규범에도 따라 기능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곧 우리

의 목적과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상황의 성격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문화적 표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문화든지 미국문화든지) 한 문화가 불변의 가치, 태도와 실상의 체계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문화는 특정사회에서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의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세워진 성공적 생활실습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문화상의 차이가 결여나 열등의 문제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문화란 본질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고하고 행동하고 또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는 여러가지 다른 방법이 있으며 우리의 문제 해결방식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효율적이며 비옥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이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는 여러 집단과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단합하고 또 개인간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석이 될 만한 근본적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재미 한인의 핵심적 문제는 한국문화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미국문화를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중문화를 병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1)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열등한 것은 아니라는 점, (2) 어떤 차이점은 단순한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 (3) 재미 한인에 대하여 (1)과 (2)가 가지는 몇 가지 의의 등에 대하여 간단히 다루어 보겠다.

I.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열등한 것은 아니다

클리포오드 기어쯔(Clifford Geertz)의 말에 의하면,

문화란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생각된대로 구체적 행동

> 유형 내지 관습, 용법, 전통, 습관의 축적 등의 복합체로 보다는, 행위를 주관하는 통제구조 내지 기획, 처리, 규제,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프로그램" 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지시 등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다.[1]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란 그 구성원이 사물과 사건과 행위에 의미와 가치와 의의를 부여하는 기준과 통제구조로 구성된다. 이 기준과 규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데서 일어나는 필요와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란 근본적으로 비슷한 문제와 필요에 대처하는 여러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세워진 다양한 사회의 성공적 생활실습을 나타낸다. 인간은 "문화적 유형, 곧 우리가 우리의 삶에 형태와 질서와 목표와 방향을 부여해 주는, 역사적으로 창조된 의미체계의 인도 하에서" 개체 인간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는 그 개인의 주체성의 뿌리가 된다. 따라서 한 인간의 문화적 전통을 거부하거나 격하시키는 것은 그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심리적, 도덕적 폭력행위이다.

만일 우리가 문화란 갖가지 사회의 성공적 생활실습이라고 결론지운다면 우리는 갖가지 사회에서 발견되는 신앙과 행위의 유형은 각 사회에 속한 독특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투영이므로 그러한 신앙과 행위의 유형은 그 문화적 상황을 떠나서는 아무런 본질적 의미가 없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똑같이 타당한 생활유형이며 문화적 규범의 집합은 모두 그 문화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한 형태의 문화방식이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거나 다른 모든 문화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일 것이다.

앞서 제시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통하여 개체 인

간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는 너무나 우리 [illegible]에 행동방식의 한 부분이 되게 우리는 종종 그 문화가 [illegible] 거나 모든 개인의 삶의 사실이 되어야 [illegible] 여긴다. 이와같이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적 규범의 견지에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또 이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문화들도 각기 사회의 필요와 문제에 대처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것을 보기 어렵게 된다. 결국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어리석거나 타락했거나 무책임하거나 정신착란증이 있거나 열등하거나 또는 어떤 구속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죄악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많은 재미 한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모든 시점에서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한국 문화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은연중 이러한 결여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재미 한인사회의 어른과 자녀들 사이의 세대간 갈등의 중대한 부분이 이러한 종류의 민족 중심적 요구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아시아인이나 태평양 연안의 원주민을 "미국에 있는 아시아인"으로 볼 때가 많다는 사실이나, 우리는 비단독적이고 과묵하기 때문에 실무나 행정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미국인은 백인이라는 생각에서, 또 전형적 앵글로 아메리칸의 특징의 견지에서 능력을 측정하는 결여된 견해의 한 예에 불과하다. 많은 소수민·개개인의 자기의 민족성과 문화적 전통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압박하는 것은 바로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결여된 견해이다.

인간의 삶은 각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세계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을 때 훨씬 더 흥미롭고 고무적이며 활력있는 삶이 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의 종류와 복합성의 범위를 고려해 볼 때 문제해결 방식에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근본적으로 비슷

한 문제를 처리하는 대안책으로서의 문화적 차이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광범위한 선택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그 어떤 이의 삶도 다른 관점과 접하여 더욱더 비옥하게 되지 않을 만큼 풍요하지는 않다.

> 아무도 훌륭한 삶에 대한 진리를 독점하지 못하므로 다양성은 우리를 풍성게 해 준다고 확신한다. 길은 많다. 다양성은 어느 사회에게나 위기의 시기에 끌어 올 수 있는, 보다 풍성한 지도력의 저수지를 제공해 주므로 더욱더 귀히 여겨진다. [2]

미국 내의 여러 문화적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사고와 배움과 의사 전달과 행위의 방식은 우리 사회의 생활 유형을 더 풍요롭게 하여 주는 요소이기에, 제거되어야 하는 결여점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지금까지 말한 바에 의하면 소수 문화를 결여로 보는 견해는 인간 잠재 능력과 그 계발에 대한 오도된 판단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올바른 문화적 민주주의를 저지시키기 때문에 집단과 개인에 대하여 부당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은연중 담겨진 함축적 의미는 우리의(한국) 문화의 가치는 그것이 한국의 것이라는 사실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유형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II. 어떤 차이점은 단순한 차이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서 한 말에 기초하여 우리는 모든 문화는 그나름의 유용성이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행위나 신앙 유형은 그 문화에서 그 문화가 겪게 되는 제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여러 유형

이 반드시 그 사회에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능한 최선의 길이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된다. 또한 한 문화상황에서 잘 기능을 발휘한 어떤 특정한 관습이 다른 문화적 상황에서도 똑같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여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학교와 가정에서 명령과 요구를 통하여 자녀들의 행위가 통제되어 왔다는 사실은 똑같은 방식의 사용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증하지 않는다. 반대로 명령과 요구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의의는 그 행위가 일어나는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기대했던 효과와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의 경영체재가 일본에서 잘 기능을 발휘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똑같은 체재가 미국에서도 똑같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본의 경영체재의 효율성은 아마도 그 체재의 독특한 행정구조와 절차보다는 그 체재가 일본의 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회조직과 위계적 대인관계의 성격을 반영하고 그에 합치 된다는 사실에 그 요인이 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사회에서 특정한 시간에 한 세대에 타당하던 것이 다른 시대와 또 다른 세대에게는 유용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는 세대마다 계속해서 온갖 종류의 변화하는 조건에 마땅할 만한 새 방식을 배우고 발견해서 그 행위와 사고방식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도로 기계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 어떤 문화적 관습은 당장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반면 비생산적인 장기적 결과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대한 증거가 있다. 주로 당장의 실용의 견지에서 문제 해결의 방식을 선택한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근본적 목표에 대하여 자멸적일지도 모르는 복합적이고 생각치 못했던 여러 결과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문화·유형은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그들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제안하겠다. 이는 어떤 문화는 다른 문화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어떤 문화는 다른 문화보다 더 적응력이 없으며 자멸적일지 모르며, 자멸적 경향이 있는 문화적 관습은 고치거나 버리거나 또는 심지어 금지까지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한인 이민들이 주도적 문화에서 독립심과 자기 주장과 개인적 참여의 중요성을 배워온 자녀들에게 불문의 순종을 요구한다. 한국문화의 규범에 기초한 이러한 형태의 자녀 양육방식을 지속해서 실시할 때 어른과 자녀 사이의 적대적 대결과 파괴적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게 될 때가 너무도 많다. 전혀 다른 문화 상황에서 자기자신의 문화적 관습을 이런 식으로 완고하고 배타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자멸적인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유연성이 없는 자멸적 유형의 사용을 단순히 다르지만 똑같이 유효한 문화규범의 적용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이 미국 땅에 최근에 도착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자신의 문화적 선통에 긍지를 갖기 위하여는 꼭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문화적 관습의 전부를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 또한 이민 가정의 자녀들에게 미국인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기 주체의 근본적 기반이 되는 민족적 특징 전부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서 주도적 사회에서 "무언가 이루어 보겠다" 고 하는 소수민 각자는 자기의 문화방식이 그들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의 문화방식을 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사회조직은 각양각색의 차원에서의 상호의존을 필요로 한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려는 목적 때문에 야기되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의 행위의 진가는 우리의 개인적 목표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져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 목표 또한 미국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근본적 원칙들, 곧

만민을 위한 자유와 평등한 기회, 정의와 권리의 원칙에 따라 검토되어져야 한다. 궁극에 있어서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에 위배되는 개인적, 문화적 관습은 모든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이의 그 나름대로의 문화적 규범이 다른 이들을 착취하게 하고 그들의 자유와 평등을 제한한다면 그러한 관습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차원에서 자멸적인 것이므로 문화적 복수주의의 구실로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실로 우리의 행위가 다른 이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 자신의 자유와 권리도 위축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체 환경적 조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낚시나 사냥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자연 자원을 마구 사용한다면 이러한 행위는는 단지 자기자신의 문화적 규범이 허락한다고 해서 문화적 복수주의의 구실로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 문화적 집단의 어떤 관습이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만 간주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이다.

이에 관련하여 볼 때, 모든 종류의 문화적 규범은 참여 민주주의의 기본적 신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중문화 병용주의나 혹은,

> 문화적 복수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신념과 정당의 요강을 증진시키는 요인들에 의하여 그 성격이 규정되어 진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 간접적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에 있어서 문화적 소집단의 가치에 대한 지지를 초월하는 것이다.[3]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개인적 필요와 이해관계, 또 다양한 면에서의 공동관심사 등을 강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회통제의 한 방법으로 상호이해의 인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민주사회는 개인과 집단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교류와 아울러 사회관습의 변화, 즉 다른 이들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상호교류하면서 야기되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 하면서 계속 적응하여 나갈 것을 장려하기도 한다. 민주사회의 구

성원들은 그들에게 자기자신의 필요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필요도 그 다른 이들 자신에게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러한 깨달음이란 개인과 집단 사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Ⅲ. 재미한인에 대하여 Ⅰ과 Ⅱ가 가지는 몇가지 의의

효과적으로 그리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유형뿐 아니라 새롭고 독특한 생활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각양의 유형을 조화시키는 길에 대하여도 알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가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여기에 다른 개개인의 몇 가지 색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개인적 문화 내에서 이러한 문화적 이해는 다른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고하고 예견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표준에 기초하여 그들의 경험을 체계화하는 방법에 대한 그 개인의 인식을 나타낸다.[4] 우리가 함께 협력함으로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목표를 성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의 개인적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 사람의 개인적 문화란 몇 가지 다른 언어유형, 행동 규범과 가치관, 그리고 과제를 완수하는 과정 등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것이다. 자신의 목적과 그 상황의 성격에 따라서 그 개인은 종종 자기 능력의 한도내에서 한 가지 문화적 사고방식에서 다른 종류의 문화적 사고방식으로 옮겨가곤 한다. 따라서 주도적 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하여 양쪽 다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른 한인들과 잘 교류하면서 동시에 미국인들과 평이하게 대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예를 들어 다민족적 사회에서 오직 한국 관습만을 따른다든지 융통성없이 한 가지 문화에 준해서만 행동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곧 우리의 문화 이해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한 문화적 상황에서 다른 문화적 상황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유연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공리에 바라는 결과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보통 한 사람이 자기의 능력껏 사용하는 문화적 태도의 수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만일 주도적 문화가 다른 문화유형을 결함으로 여긴다면 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문화적 태도의 수는 주류의 문화가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몇개에 제한될 것이다. 예를 들어, 소수민족의 어린이들은 은연중 자기 자신의 말을 배척하고 오직 표준 영어만 쓰도록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의 언어를 열등형으로 배척하게 될 때 소수민족의 어린이들이 자기자신의 문화와 개인적 주체성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부정적 생각이 강화된다. 이러한 견해가 갖는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주도적 ("올바른") 규범에 전적으로 동화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긍지와 자기자신의 주체성에 대한 긍지가 깨어진다는 점이다. 자기민족 중심주의는(결함을 내세우는 견해는) 주도적 문화와 소수민족의 문화에서 다 윤기를 빼앗고 소외와 사회심리적 갈등을 증진시킨다.

우리가 다른 문화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 내용이 우리 마음 속에 각양의 문화범주로 착착 정돈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특정한 행동방식에 대한 상황의 요구에 따라 올바른 유형에 제자리에서 척척 뽑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다른 문화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개인적 문화나 인간의 복합적 심층에 흡수된다. 따라서 각기 다른 상황에서 올바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유형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평가하고 자기의 목표에 관하여 주어지는 가능한 선택의 여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나서 앞날의

목적을 성취할 수단으로 현재의 목표를 성취하기에 가장 알맞을 반향 길을 선택하는 냉철한 사리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한인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은 한인들이 문화적 견문을 넓히고 새롭고 독특한 생활태도가 형성되도록 상이한 유형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계발할 수 있도록 기회와 교육적 체험을 제공해 주는 일이다. 이러한 조화의 과정은 상이한 문화들을 하나의 세칭 우등품으로 "소물"하는 일로 보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다른 문화적 요소를 함께 엮어서 새롭고 독특한 (개인적,사회적) 문화와 새로운 개인적 주체성을 개발하는 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실로 평생의 과업이 되어야 한다.

미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들 사물을 보는 관점이 상반되는 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문화는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여기고 개인적 주체성은 개인적 성취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평등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고의 가치가 각 개인의 권리에 부여된다. 그러므로 자기주장, 자의표시, 개인적 참여와 경쟁이 중요한 덕목이 된다. 그러나 권위에 대한 존경과 순종, 배우고자 하는 마음, 가족이나 교회나 어떤 사회단체 등 집단에 대한 협동과 신의는 한국인에게 바람직한 덕목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문화가 위계적 사회관과 그에 따른 인간 상호간의 책임에 대한 강조에 기초하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면 한 사람의 개인적 주체성은 개인 자신의 성취보다는 그 개인의 집단과의 관계라는 면에서 정의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화적 상이점은 상반된 세계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하여 깊이 숙고해 보면 이를 조화시킬 수 없는 상호모순의 가치관과 태도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반대로 우리는 이를 상호 보완적인 면으로 보아 우리 삶이 이러한 추구에 더욱 풍요로와 질 수 있는 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 앞에 만민이

* 영어 본문 뒤에 있는 "문화적 상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평등하다는 개념은 어느 사회에나 불가피한 조건인 사회 위계의 존재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간을 법앞에 평등(동일이 아니라) 하다는 것을 명심할 때 우리는 평등주의와 사회 위계를 둘 다 가질 수 있다(이는·영국에서 잘 수행되고 있다).

이미 주지한 대로 개인의 권리와 책임에는 미국문화와 한국문화에서 각기 다른 정도의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 다시, 이는 상호 모순되는 개념으로 보다는 표리상응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다른 이들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없다면 개인의 권리나 사유권은 의미가 전혀 없다.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준수할 때만 우리의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개인이란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다. 곧 우리의 개인적 주체성은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발전된다. 그래서 개인의 성취는 자기자신의 주체성의 확립에 도움이 되는 반면 개개인이 각자 속해 있는 집단과 가지는 관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그 반대도 또한 사실이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의 주체성은 다각적인 것이며 집단 안에서의 우리 자신의 성취나 지위만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단정하는 것은(건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잘못이다. 이중문화적이 된다는 것은 일면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상이점들을 조화시키고 새롭고 독특한 생활태도를 계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재미 한인 청소년들은 웃어른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기주장을 펴면서도 다른 문화와 같이 자기중심적이지 아니한, 다른 이들을 생각해 줄 것을 장려하는 한국문화의 일면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그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아니며 백인 미국인의 모방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코리안-아메리칸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결론

아주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지닌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이해와 가치의 상충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 우리 나름대로의 규범과 신조의 체계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상호 교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믿을 만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우리 자신의 문화적 방식에만 의존할 수는 없게 되었다. 미국의 단일문화의 기관과 제도를 다문화적이 되도록 협력하기 위하여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덧붙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존이 다른 이들의 사고, 가치판단, 행동방식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같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그 모든 구성원이 자기나름대로의 문화를 넘어서서 자신의 방식을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참여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상과 일치되는 새롭고 독특한 문화유형이 형성되도록 주도적 문화에 아울러 다른 소수문화들에 대하여 이들이 우리 자신의 규범과 일치, 배치, 심지어 상충되는 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문화의 숨겨진 주요원칙과—생활방식과 인생관, 그리고 삶을 분석하고 토의하고 묘사하고 변화시키는 방법 등—인생의 진로에 대한 불문의 가성을 먼저 찾아내지"[5] 않고는 자기 자신의 문화를 초월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우리 자신의 문화에 대하여 이러한 면에서 분석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민족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 속에서 또한 그들의 자녀와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이유와 원인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외에 이 일에 보다 더 적절한 분들이 또 누가 있겠는가?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대조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I

	AMERICAN CULTURE (Individual Centered) 개인중심	KOREAN CULTURE (Relationship Centered) 상호관계 중심
1. Relationship 대인관계	Egalitarianism 평등한 관계 1.1: See others as equals. 1.2: Inform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1.3: Less complex rules for speech and conduct.	Hierarchical Relationship 상하 관계 1.1: See others in hierarchical terms 1.2: Form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1.3: Very complex rules for speech and conduct.
2. Values 가치관	Individual's Rights 인권중심 2.1: Premium attached to the individual's rights. 2.2: Self-reliance and self-determinatio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책임과 의무 2.1: Emphasis on roles assigned to different hierarchical positions. 2. 2: Emphasis on performing appropriate functions.
3. Attitudes 태 도	Assertiveness and Self Expression 개인권리 주장 3.1: Standing up for (demanding) personal rights. 3.2: Expression of personal thoughts and feelings.	Respect for Authority 권위존중과 순종 3.1: Emphasis on docility 3.2: Conformity to assigned roles.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II

	AMERICAN CULTURE	KOREAN CULTURE
4. Identity 주체관	Personal Ability and Achievement 개인능력과 성공 4.1: The individual's competence, achievements success. 4.2: Development of a person's unique qualities. 4.3: Self initiated activities for personal success.	Status (position) in a Group 그룹내의 지위 4.1: The individual's position in a group (e.g., family, church, corporation, etc.). 4.2: Self-development related to group expectations. 4.3: Ascriptive motivation (succeeding for the group).
5. Socialization 성장과정	Active Involvement 적극적 참여와 공헌 5.1: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5.2: Frequent exchange of ideas and feelings.	Observation and Emulation 관찰과 모방 5.1: Watch, listen and do. 5.2: Communication by commands and demands.
6. Thinking Style 사고방식	Analytic and Detail Specific 분석적·구체적 6.1: Separating the cognitive from the affective as well the objective from the subjective. 6.2: Serial exchange among communicants. 6.3: Relatively loosely structured teaching learning situations.	Global and Impressionistic 전체적·인상적 6.1: The cognitive and the affective as well as the objective from the subjective are often combined. 6.2: Spontaneous and/or simultaneous exchanges among communicants. 6.3: Highly structured teaching learning situations.

A CASE FOR BICULTURALISM

Young Pai

There is no disputing the fact that Koreans in America (heretofore referred as K-A's to include Americans of Korean descent) live in a culturally diverse society wherein a wide range of socio-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ffect the ways in which we think, act and get things done. Regardless of our personal preferences, our lives are influenced by both the dominant (Anglo-American) and Korean cultures. Yet, there is no general agreement about the norms by which our thinking and conduct ought to be guided. Some insist that because we are Koreans we should follow the standards of Korean culture in all aspects of our life. Others argue that since we live in the United States we ought to conform exclusively to the ways of the dominant culture. While these views seem to represent two disparate perspectives, they reflect the same belief that there is only one set of idealized norms to which all people must conform at all times.

In this paper I wish to make a case for biculturalism, that is, we should learn to function according to the norms of both the dominant and Korean cultures. The nature of our pur-

poses and the contexts in which they are to be achieved should determine the cultural standards we ought to follow. This means a culture (Korean or American) should not be seen as an unchangeable set of values, attitudes and practices. Rather, it should be viewed as a successful experiment in living which has been built up over time by a group of people in a particular society. Hence, the differences among cultures should not be regarded as deficits or inferiorities, because cultures are neither inherently good nor inherently bad.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of thinking, acting and accomplishing our goals and that the more varied our problem solving approaches are the more effective and enriching our life becomes. But, notwithstanding the importance of cultural diversity, we should remember that in a democratic society various group and individuals need to commit themselves to certain fundamental principles which become the basis of social unity and resolution of conflicts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In view of what has been said, a central question for K-A's is not whether we should follow Korean or American culture, but rather how we can become bicultural so that our goals can be realized successfully.

In the following pages, I shall briefly discuss the following: (1) Cultural differences are not deficits, (2) Some differences are not mere differences and (3) Some implications of (1) and (2) for K-A's.

Cultural Differences Are Not Deficits

According to Clifford Geertz

> Culture is best seen not as complexes of concrete behavior patterns—customs, usages, traditions, habit clusters, as has, by and large, been the case up to now, but as a set of control mechanisms-plans, recipes, rules, instructions (what computer engineers call "programs")—for governing of behavior.[1]

Hence, the culture of a society consists of the standards and control mechanisms, with which its members assign meanings, values and significance to things, events and behaviors. These standards and controls have been established because they enable the members of that society to deal with the needs and problems which arise out of their environment and associations with others. Cultures then can be seen as different ways of dealing with essentially similar problems and needs. They represent various societies' successful experiments in living which have been built up over time. Human beings become individuals "under the guidance of cultural patterns, historically created systems of meaning in terms of which we give form, order, point and direction to our lives[2]." The culture to which one belongs, then, becomes the root of the individual's identity. Hence, to reject or demean a person's cultural heritage is to do psychological and moral violence to the dignity and worth of that individual.

If we conclude that cultures are various societies' successful experiments in living, then we can argue that the patterns of beliefs and behaviors found in various societies have no intrinsic meanings apart from their cultural context, for such patterns are reflections of unique world views and value orientations belonging to individual societies. In this sense cultures are equally valid patterns of life and every set of cultural norms is valid only for the people who have them. Hence, it would be unreasonable to argue that any one set of cultural practices is universally good for all societies or inherently superior to all other cultures.

As was suggested earlier, we become individuals through our culture. And because our culture is so much a part of what we are and what we do, we often view it as if it were innate, or an absolute by which all individuals must guide their life. Thus ethnocentrism leads us to judge others in terms of our own cultural norms,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us to see that other cultures are also effective means of dealing with

the needs and problems of the respective societies. This attitude, of course, inclines us to conclude that those who do not conform to our norms must be stupid, depraved, irresponsible, psychopathic, inferior or sinful to a point beyond all redemption. It is this implicit deficit view held by many K-A's which lead to the demands that their children must conform to the norms of Korean culture at all times and in all places. A significant part of the intergenerational conflicts between K-A adults and children may be attributable to this sort of ethnocentric demand. Further, the fact that Asian and Pacific Americans are often seen as "Asians in America" or that we are non-assertive and reserved therefore unsuitable for executive or administrative posts are only some examples of the deficit view which defines American in terms of being white and compentence in terms of the stereotype Anglo-American traits. It is this pervasive deficit view in the American culture which forces many minority individuals to be ashamed of their ethnicity and cultural heritage.

Human life becomes much more interesting, stimulating and exciting when there are many varied ways of thinking, feeling, expressing, acting and viewing the world. But more importantly, given the range in kinds and complexity of human needs and wants, the more alternative problem solving approaches there are the more we are likely to find solutions which may enable us to live our lives in an increasingly effective way. Cultural differences as alternative ways of dealing with essentially similar problems present us with a wide variety of options from which we can learn and grow. No man's way of life is so rich that it may not be further enriched by contact with other points of view.

> The conviction is that diversity is enriching because no man has a monopoly on the truth about the good life. There are many ways. Diversity is further valued because it provides any society with a richer pool of

leadership from which to draw in times of crisis[3].

The different styles of thinking, learning, communicating and acting which various cultural groups in America have ought not to be considered as deficits to be eliminated, for they are the elements which enrich the life patterns of our society. On the basis of what has been said, the deficit model of viewing minority cultures is unfair to the groups and individuals for it not only leads to erroneous judgments about human potentialities and their realizations but it impedes the development of a just cultural democracy. What is tacitly implied in all this is the view that the worth of our (Korean) culture is not based solely on the fact that it is Korean, but that our cultural patterns have enabled us to achieve our purposes.

Differences Are Not Mere Differences

On the basis of the foregoing, we may conclude that all cultures do their job. However, from the fact that particular behaviors and belief patterns have been worked out by a given culture as a means of dealing with its problems, we should not conclude that such patterns are necessarily the best possible ways of meeting the human needs in that society. Nor should we even insist that a particular practice which has worked well in one cultural setting will be equally effective in a different cultural setting. For example, the fact that children's behavior has been controlled in schools and homes in Korea through the use of commands and demands does not guarantee that the use of the same measures will bring about the same result. On the contrary, the results may be quite the opposite of the anticipated effect, for the meanings and significance of the acts of commanding and demanding vary with the cultural contexts in which they occur.

Similarly, the fact that Japanese management system

works well in Japan does not necessarily suggest that the same system will be equally effective in the United States. Effectiveness of the Japanese management system is probably due more to the fact that the system reflects and is consonant with the nature of social organizations and the hierarchica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eeply rooted in the culture of Japan than the system's unique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procedures. In a similar vein, what has worked for one generation in a given society at a particular time may not be useful to another generation at a different time. This means that every generation should continuously modify its ways of acting and thinking by learning and discovering new means which may be more appropriate for changing conditions of all sorts.

Ample evidence exists to suggest that some cultural practices (particularly in highly technological societites), while fulfilling immediate needs, often have long-term consequences which are counter productive. The culture of a society that selects its means of problem solving chiefly in terms of its immediate utility may face many complex and unsuspected outcomes which may be self-defeating to the fundamental goals of that society. I am then suggesting that cultural patterns can be judged in terms of their effectiveness with which they enable the members of that society to deal with their problems. This implies that some cultures may be more effective than others. On the other hand, some cultures may be more maladaptive and self-defeating than others and that those cultural practices which tend to be self-defeating need to be modified, abandoned or even prohibited. For example, many Korean immigrants demand unquestioning obedience from their children who have been taught the importance of self-reliance, self-assertiveness and personal involvement by the dominant culture. Persistent practice of this type of child rearing approach based on the Korean cultural norms, more often than not, leads to hostile confron-

tations between adults and children and destructive intergenerational conflicts. Clearly, this kind of tenacious and exclusive adherence to one's own cultural practice in a radically different cultural context is self-defeating. We should no longer consider the use of such maladaptive and self-defeating patterns as merely a matter of applying different but equally valid cultural norms.

Much work needs to be done to convince the multitude of recent arrivals to these American shores that having a pride in one's own cultural heritage does not and should not entail the preservations of all of their cultural practices at all cost. Also, the children of the immigrants should be helped to understand that becoming an America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y should divest themselves of all traits of their ethnicity which are the basic fabric of their self identity. Further, minority individuals who want to "make it" in the dominant society must examine and modify their own cultural ways to see how well such patterns will help them achieve their purposes.

Social organization necessitates varying degrees of interdependence. As members of a democratic society we must be concerned about the consequences of our action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personal objectives. The merit of our actions should be tested in terms of our personal goals, which in turn should be examined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upon which American democracy is founded, i.e.,the principle of freedom and equal opportunity, justice and rights for all. In the final analysis, personal or cultural practices which are contradictory to these ideals of participatory democracy will affect everyone's life. If one's own cultural norms sanction exploitation of others, limit their freedom and equality, such practices can no longer be justified in the name of cultural pluralism, because they are self-defeating both at the personal and societal levels. Indeed, the degree to which our actions violate the rights and

freedom of others, to that degree our own freedom and rights are diminished. For example, if we fish or hunt or otherwise exploit the natural resources without regard to their consequences o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t large, these actions could not be justified in the name of cultural pluralism just because one's own cultural norms may permit them. It is in this sense that certain practices of various cultural groups may not be viewed as simply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ntext of our discussion, all sorts of cultural norms are permissible in so far as they do not violate the basic tenets of participatory democracy, because biculturalism or

> cultural pluralism is characterized by a commitment to the worth of cultural diversity and factions promoting an agenda of politics, but it goes beyond the promotion of the values of cultural subgroups to the situations having direct and indirect consequences.[4]

Democracy requires not only an emphasis on personal needs and interests and on various points of shared common interest, but also a recognition of mutual interest as a means of social control. In other words, a democratic society should not only encourage free interactions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but also changes in social habits, that is, continuous readjustments through meeting new situations produced by a wide varity of interactions with others. It is essential that the members of a democratic society recognize that the needs of others are as important to those people as their own are to them. This recognition is a necessary prerequiste for effective handling of conflicts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Some Implications

In order to live effectively and in an enriching way one not only needs to know about other cultural patterns but also a

way of reconciling the diverse patterns so that a new and unique approach to life may emerge.

As every society has a culture so may we speak of each person as having his/her own private "culture", which may include awareness of several distinct "cultures" of other individuals. These cultural awarenesses within a person's private culture represent the individual's perceptions of how other human beings have organized their experiences based on the standards by which others perceive, predict, judge, and act.[5] It is through our own knowledge of the private cultures of our associates that we learn to accomplish those goals that are best achieved through working together. Hence, a person's private culture may include knowledge of several different language patterns, norms of conduct and valuation, and procedures for getting things done. Depending upon the nature of one's purpose and its context, the individual often moves from one set of cultural concepts to another within one's repertoire. Hence, an individual who has knowledge of and experiences in both the dominant and Korean cultures can interact informally with Anglo-Americans while relating appropriately with other K-As. If we operate rigidly in terms of a single culture, e.g., following only Korean customs on a multi-ethnic community, we will be less effective in accomplishing our purposes. This suggests that the greater our breadth of cultural awareness and the more flexible we are in shifting from one cultural context to another, the more successful we will be in achieving our desired outcomes.

Typically, a person uses only a limited number of cultural orientations in his/her repertoire. If the dominant culture views other cultural patterns as deficits, the number of alternative cultural orientations that an individual could use would be limited to those the mainstream culture regards as legitimate. Minority children, for example, may be pressured, implicitly or explicitly, to reject their own

language and use only standard English. Rejection of their language patterns as a low-status form reinforces the negative image minority children have of their own culture and personal identity. One of the problems of the deficit view is that the more one conforms exclusively to the dominant (the "right") norm, the more one crushes self-esteem and pride in one's own identity. Ethnocentrism (the deficit view) not only robs richness from the dominant and minority cultures but also increases alienation and socio-psychological conflicts.

What we learn about other cultures are not classified neatly into different cultural categories in our mind and that a right pattern is pulled out of an appropriate category when a situation calls for a particular way of acting. But our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other cultures become integrated into the complext terrains of a private culture or a person. Hence, acting appropriately in different situations requires not only knowledge of divergent patterns but also an ability to evaluate the situation, formulate possible options available in relation to one's goals and then to make a critical judgement of choosing that option which will most likely accomplish the present objective as a means of accomplishing further goals. What the Korean communities in America need to do is to provide opportunities and learning experiences through which K-A's may increase their cultural repertoire and develop the skills with which they can reconcile divergent patterns so that a new and unique approach to life may emerge. This process of reconciliation should not be seen as the "melting" of distinctive cultures into one allegedly superior one. Rather, it should be seen as the development of a new and unique culture (personal or societal) and a new personal identity by interweaving different cultural elements together. This should indeed be a life long proces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and Korean cultures and many view them to be rooted in opposite

ways of seeing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More specifically, American culture is believed to be founded on egalitarianism, according to which human beings are to be seen as equals and their personal identity to have been determined by individual achievements. Accordingly, a high premium is attached to the rights of each person. Hence, self-assertiveness, self-expression, personal involvement and competitiveness become important qualities. However, respect for and conformity to authority, docility and cooperative working for and loyalty to a group, e.g., family, a church, or a social organization, are considered as desirable traits by Koreans, for their culture is said to rest on a hierarchical view of man with corresponding emphasis on the responsibilities people have toward each other. It is not surprising then that the personal identity of a person is defined more in terms of his/her relationship to a group than the individual's own achievements.

While these cultural differences may appear to represent contradictory worldviews, a thoughtful reflection about them will reveal that they need not be understood as irreconcilable or mutually exclusive values and attitudes. On the contrary, we can interpret them in such a way that they complement each other and that our life may be enriched by such an effort. For example, the concept of equality of man before law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existence of social hierarcy, an inescapable condition in any society. Once we keep in mind that human beings are equal (not the same) before law we can have both egalitarianism and social hierarchy (this is done well in England).

As has already been suggested, the individual'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re assigned varying degrees of importance

---

*See "Cultural Differences" at the end of this article.

in American and Korean cultures, respectively. Again, these ought not to be considered as mutually exclusive notions but rather they should be treated as two sides of a coin. For one's right to privacy or property has very little meaning unless others believe that they have the responsibility of respecting the rights of others. Only by observing our responsibility to others can we enhance our own personal rights, because there cannot be individuals apart from the society in which they live.

In a similar vein, we become human beings, that is, our personal identity develops through social processes. Thus, while a person's achievements contribute to the building of his/her identity, they are no more important than the relationships a person has with groups of which he/she is a member. The reverse is also true. In brief, a person's identity is multidimensional and it is a serious mistake (as well as being unhealthy) to assume that either our own achievement or our status in a group alone determines what or who we are. Being bicultural in part requires that we develop an ability to reconcile various cultural differences like these and develop a new and unique approach to life. In this way a Korean-American youth may discard the unquestioning obedience to elders and become more self-assertive, but may retain that part of Korean culture which encourages one to be less egocentric and be more thoughtful of others. This person is neither a Korean in America nor an imitation of the white American, for he/she has emerged as a new Korean-American.

Concluding Comments

Conflicts in interest and values are bound to arise in a society like America that has many diverse cultural elements. Hence, we are constantly in a postion of having to interact with individuals who do not share our own system of norms and beliefs. Thus we can no longer depend on our own

cultural ways to gain reliable reading of what others are going to do next or how we can deal effectively with our own life problems. Over and beyond the work we are doing to help make monocultural institutions in America become multicultural, we need to educate the members of our own Korean communities to understand that their life is inextricably related to the ways in which other people think, value and act.

In a culturally diverse society like America, all of its members may need to modify some of their ways by going beyond their own culture. To do this we need to understand the dominant as well as other minority cultures in terms of their points of agreements, disagreements and even conflicts with our own norms so that there may emerge new and unique cultural patterns consonant with the fundamental ideals of participatory democracy. But we cannot normally go beyond our own culture without "first exposing its major hidden axioms, and unstated assumptions concerning what life is all about—how it is lived, viewed and analyzed, talked about, described and changed.[6]" only by doing this kind of analysis of our own cultures, the members of our ethnic communities may begin to understand the reasons and causes of the difficulties they may encounter in the larger society and with their children. And who but all of you in this room could be better qualified to do this work?

Cultural Differences*

A. The Person

Anglo-American Culture

a: The rights of each person are considered to be of the highest importance. Hence, Self-expression and self-assertiveness in exercising one's rights are encouraged and cultivated.

b: In consonance with the above, each person's identity (i.e., one's status and worth) is defined according to his or her personal achievement. Self-motivation, competitiveness and active involvement in relevant activities are expected and rewarded.

Korean Culture

a: A high premium is attached to the person'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o the groups to which he/she belongs. Conformity to the group expectations and subordination of personal goals to those of the group's are expected and reinforced.

b: The individual's identity is defined more in terms of the person's group. His or her achievement is evaluated in terms of its impact on the status of the group. A person's motivation to work and achieve often come from the groups goals and expectations.

---

*Y. Pai, "Cultural Influences on the Education of Korean American Children," *Korean-American Ministry,* The Korean Presbyterian Council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 Vol. I, Nov. 2, May, 1983, pp. 4-6.

B.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glo-American Culture

a: All persons are viewed as equals. H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end to be informal without many complex rules about manner, language and behavior based on a hierarchical order. Accordingly relatively recent acquaintances can call each other by their first names without social disapproval.

b: Active involvement in communication is encouraged. Parents communicate information about and explanation of rules to children. Active exchange of ideas about the rules affecting the children's conduct is encouraged.

Korean Culture

a: Individuals are viewed in terms of a social hierarchy. H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end to be highly formal according to an elaborate set of rules regarding social, linguistic and behavioral patterns.

b: Deferential (respectful) attitude toward persons in higher positions is expected and emphasized. E.g., children are not supposed to lie down or sit with their legs crossed in front of elderly persons. Communication is more directive and moves from a higher position to a lower position. Children are expected to observe and emulate adults. "Children should be seen but not heard."

C. Decision Making Process

Anglo-American Culture

a: Because individuals are considered as equals. par-

ticipatory decision making is viewed as essential in democracy. Self-expression, self-assertiveness and personal involvement are encouraged.

b: Self-determination is considered as the quintessence of democratic life. Teaching, learning and decision making situations are loosely structured. Teachers and parents frequently act as "friends" and "counselors" to children.

Korean Culture

a: Since individuals are seen in terms of a hierarchical order with appropriat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s generally directive in nature. The process flows from a higher to a lower position with little participation by the latter.

b: Conformity (often unquestioning obedience) to the commands and demands of the person of a higher status is expected. Teaching, learning and decision making situations are highly structured with explicit directives (instructions).

D. Cognitive and Communication Styles

Anglo-American Culture

a: Analytic and objective thinking is emphasized. Subjective and objective as well as cognitive and affective matters are expected to be clearly delineated. Hence, factual information and personal feelings are to be carefully separated. Detail-specific thinking and learning are cultivated.

b: Communication with others is usually direct and to the

point. A clear cut response in the negative or in the affirmative is expected.

Korean Culture

a: Subjective and objective as well as cognitive and affective elements are often combined together. Personal feelings are often tied up with objective and public matters. For example, a vote against a person's position is often seen as a vote against the person. Cognitive and learning styles tend to be global, descriptive, impressionistic or even aesthetic. In thinking about or undertaking a project, the primary concern is focused on the overall and gross aspects of the enterprise. Even in report writing affective or aesthetic expressions are frequently used.

b: Communication with others is often indirect and contextual. Responses to questions are often indirect or appear to be ambiguous. Hence, "Nuhnchi" (the "eye-measure") becomes important.

FOOTNOTES

[1]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Inc., 1973), p.44

[2]Melville J. Herskovitz, *Cultural Relativ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3), p.31

[3]Thomas Green, "Education and Pluralism: Ideal and Reality," School of Education, Syracuse University Twenty Sixth Annual, J. Richard Street Lecture (1966), p.10

[4]Richard Pratte, *Pluralism in Education*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s, 1979), p.229

[5]Ward Hunt Goodenough, *Cooperation in chang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s, 1963), pp. 259-60.

[6]Edward T. Hall, *Beyond Culture* (Garden City: Doubleday, 1976), p.195.

이민교회의 기독교 교육적 이론과 실제

김 득 렬

이민으로 하여금 실민(失民)이 되지 않게 하려면 순례자가 되어야 하고, 순례자적 소명을 자각하며 계속 나아가게 하려면 순례자가 되게 하는 교육, 즉 기독교 교육이 가정과 교회에서 항상 행해져야 한다. 이민 되기는 용이하나 순례자 되기는 용이치 않다.

루이스 죠셉 쉐릴(Lewis Joshep Sherrill)은 출애급하여 언약의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12지파중에서 역사의 지평(地平)으로 부터 행방불명된 10지파가 있게 된 까닭은 그들이 순례자 되게하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순례자적 믿음과 사명을 상실하고 새로 처한 이민상황중에서 필경은 자기를 상실하게 된 연고이라고 지적하였다.

언약의 땅에 이민하여 들어가는 백성에게 있어서 순례자적 교육이 필수불가결함으로 "이는 곧 너희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

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명하셨다.

출애굽하여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이민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위에 있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잘못을 범치않게 되기 위하여 순례자적 교육이 선행요건이였듯이, 20세기의 순례자적 믿음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미주에 이민하여온 재미 한인 이민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도 이민으로 하여금 순례자 되게하는 기독교 교육이 가정과 교회에서 충실히 행해져야 하는 일이다.

필자는 본 소고(小考)를 통해 재미한인 기독교 가정과 교회에서 시행할 수 있는 순례자적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약술코저 한다.

I. 순례자적 삶과 교육

루이스 죠셉 쉐릴은 "순례자"적인 삶의 자세를 인생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특히 사람들로하여금 성장하고 학습케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때에 순례자적인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로하여금 이미 있는 현재 상태로부터 아직 있지 않는 미래상태를 향해 나아가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만 약속으로 주어진 미래에 대한 확신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확보한 안전상태를 뒤에 두고 보다 가치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각 개인에게 있어서 학습동기의 유발과 학습활동의 지속, 그리고 각 성장단계에 있어서 요청되는 성장과제들을 수행하면서, 그 다음 성장단계와 또 다음 성장과제를 향해 계속 성장하여 원숙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례자적 믿음과 순례자적 삶의 태세가 먼저 있어야만 한다.

"순례자"란 현실생활의 답보상태를 탈피하여, 보다 높은 이상과 보다 깊은 종교적인 의미를 사모하고 추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있던 상태를 뒤에 두고 새 목표를 향해 길을 떠난이를 의미한다.

이들중에는 종교와 정치의 이상사회 구현을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이민하여 온 청교도들이 있고, 미국 동부의 정착지를 뒤에 두고 서부의 미개척지를 향하여 광막한 대륙을 횡단했던 포장마차의 이민대열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며 20세기의 청교도적인 자각을 가지고 미수대륙에 이민하여 가는 곳마다 이민교회의 제단을 쌓는 재미한인기독교인이 있다.

순례자는 현재 있을 곳이 없어서 길을 찾아 헤매는 유랑자가 아니요 정착하고 있던 곳에서부터 보다 뜻있고 보람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구도자(求道者)이다. 그러므로 순례자적 마음의 자세가 형성되기만 하면, 그의 삶의 모든 정황중에서 순례자적 의미를 경험하며 전진할 수 있다.

비록 그의 몸은 공간적으로 같은 곳에 머물러 있다 하여도 순례자적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 순례자적 의미는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요 환경을 초월하고, 의미를 창조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사도 바울은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순례자적 삶을 계속하였으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 가노라"고 하였다.

비록 좁은 감방이 사도 바울의 몸을 가두었으나 그의 영혼의 순례의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옥중의 사도 바울은 옥밖의 형제들에게 오히려 격려

하기를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II. 순례자적 삶과 예배

진실로, 순례자적 삶은 수평적인 시간의 연속중에서 수직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삶이니 권태와 피곤을 모르는 삶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성서에 기록된 순례자적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이민생활에서 찾아보면, 그는 수평적인 이동의 지점 지점에서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이룩하는 제단쌓는 일을 잊지 않았으니 창세기 12장에서 13장까지의 38절중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지명이 넷이나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순례자적 삶에 있어서 예배가 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는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는 예배가 항상 시행되어야 한다.

III. 순례자적 삶과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란 약속의 성취가 이미 그 약속중에 내포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이니,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신 약속이시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생활의 보이는 것보다도 약속된 보이지 않는 것의 더 소중함을 바라보며 살아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를 보는것 같이 하여 참고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줄 앎이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고 하셨으니,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순례자적 삶의 승리를 가능케 하였다.

라헬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는 야곱에게는 라헬을 취하기 위하여 거듭되고 지루한 고역이 힘든 줄을 몰랐으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고 기록한 창세기의 말씀은 약속을 믿고 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Ⅳ. 순례자적 믿음과 가능적 자아

아브라함의 이민은 하나님의 소명과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으니 75세의 고령이나 갈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아가야하는 사회 문화적인 장벽이나 건강과 경제적 불안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현실적 자아로 하여금 가능적 자아를 구현케하는 관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믿음이 없이는 좁은 문으로 못들어 가고 믿음이 없이는 약속된 가능적 자아의 구현을 보지 못하며, 믿음이 없이는 정착안정 위주의 이민으로 하여금 순례자 되게 할 수 없다.

순례자적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보존적 본능을 극복하고 이해득실의 계산을 전폐하고 나아가는 일이 용이한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던지 제 목숨을 구원코저 하면 잃을것이요 누구던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신앙적 결단을 내리는 행위가 인간적으로는 하기 어려움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고 왔노라" 고 하시었다.

이민으로 하여금 순례자 되게하고 현실적 자아로 하여금 가능적 자아되게 하는 믿음이 소중한 것이기에 이를 인간들에게 얻게하고 이를 생활속에서 성장케 하려함이 최대 과업이로되, 원죄 밑에 놓여진 타락한 인생으로서는 불가능한 과업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만 허락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시였다.

V. 순례자적 믿음과 신앙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땅에 들어 가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고 명하셨고, 예수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어디 있을까?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고 "두 세 사람이 내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중에 있느니라"고 확약하심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신앙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을 가르치셨다.

믿음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시범에 접하게 됨으로서 일깨워지는 것이다. 믿음은 일깨워지는 것이요 믿음에로 사로 잡혀지는 것이기에 언어로 전달되기 어렵다.

이민 1세로서의 아브라함의 순례자적 믿음,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순례자적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민2세인 이삭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생각해 보라. 이삭에게 "여호와 이레"즉,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일깨워지게 한것은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요 "모리아"산상 제단위에서 본 아버지 아브라함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수풀에 걸린 양을 통해 보여주신 "여호와 이레"의 구체적인 내용을 깨닫게 됨으로서였다.

이삭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순례자적 믿음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서 체득케 되었으니, 순례자적 기독교 교육의 현장은 순례자적 기독교 신앙을 생활하는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교회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출애급하여 광야를 거처 언약의 땅에 들어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교육적 사명을 부모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길에 행할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순례자적 신앙을 실행하며 강론하라고 하시였다.

"루우엘 하워(Ruel Howe)"는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책에서 강조하기를 신앙은 부모의 신앙의 시범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일깨워지고 그 다음에 말로서 그 뜻을 정리한다고 하였다. 즉 그는 "언어의 말"이 자동적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말"을 통하여 그 "언어의 말"의 의미가 어떠한 것임이 알려지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앙을 전달하려고 할때에도 "관계의 말"로서 실천하고 이에 병행하여 "언어의 말"로서 그 경험의 의미를 부여받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Ⅵ. 순례자적 믿음과 교육과정

일상 반복되는 가정생활속에서 순례자적 자각이 망각되기 쉽기 때문에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의 절기와 십계명의 생활원칙을 주셨다.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생활을 하면서 현지 생활양식에 동화되어 출애굽의 배경과 광야생활의 역사를 망각하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아상실증에 걸려서 역사의 지평선에서 소멸되고 말까봐 "초막절"과 "오순절"의 규례를 정하여 주셨다.

특히 각 절기마다 "극적"인 요소로서 그 경험의 강도를 극대화하여 자녀들도 그 부모에게 그 뜻을 질문하게끔 하고 이에 대한 부모들의 책임있는 응답을 하게 하여 이민 1세와 이민 2세 사이에 믿음의 전달이 이루어지게 하고, 역사적인 공동경험에 참여케 하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들이 함께 신앙을 새롭게 하게 하였으니 신명기 6장20절부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

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급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같은 순례자적 삶에 대한 질문과 순례자적 신앙에 입각한 응답을 자녀와 부모사이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의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게 하셨고 "초막절"의 천막생활을 극적으로 재연케 하였다. 이는 특정한 내용을 암기케 하는 구두전달적인 교육방법이 아니고 생활속에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극적인 방법으로 역사적 경험을 재생시키고 그 가운데 참여케 하여 그 의미를 대대손손히 재음미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출애급의 원초적인 경험위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고 전진케 하였으니 실로 놀라운 순례자적 교육원리이다. 이같은 교육이 망각되어 버린 결과는 출애급을 하고 언약의 땅까지 발을 들여 놓았던 "잃어버린 10지파"로서 나타났으며, 이같은 순례자적 교육이 이행된 결과는 바벨론 포로이후 나라도 없이 최근까지 살아온 유대인과 유대교도들의 현존으로서 확증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 한인 이민교회의 급선무가 순례자적 믿음을 2세뿐 아니라 1세에게까지 항상 새롭게 환기시키는 교육이 시행되게 하는 것이요! 그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건전한 기독교가정생활운동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도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

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급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 하노라"고 경계하신 말씀을 명심하며, 순례자적 사아를 확립하고 주변문화에 동화되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순례자석 문화를 창조하여 가야한다.

Ⅶ. 순례자적 삶과 성서교육

그러기 위해서는 성서에 기록된 순례자적 이민의 모습을 찾고 그때 그곳에서 그들이 처한 이민적 상황중에서 순례자적 응답을 한 뜻을 해석할 뿐만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한국계 이민이 처한 상황중에서 순례자적 응답이 어떠하여야 할 바를 깨닫게 하여야 한다.

이는 성서는 그때 그곳에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계시적 사건의 기록뿐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서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계시적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례자적 성서해석학의 발전과 보급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특정한 전문 성서 학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하셨다.

부모와 자녀들이 연령의 고하에 구애되지 않고 성서에 기록된 순례자적 삶의 "역사"(History) 속에 참여하고 그 이야

기의 주인공과 그가 처하였던 상황이 바로 자기가 지금 처한 정황의 의미임을 해석하고 그때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약속을 이룩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성서연구와 신앙간증이 계속되어야 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광야의 만나와 반석에서 솟는 생수로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순례자적 이민생활의 일기책에 매일 기록하여 가는 삶 자체가 순례자적 믿음을 깨우쳐 주는 매개가 되고 도장이 된다.

Ⅷ. 순례자적 삶과 문화교육

순례자에게 있어서 두가지 거점이 항상 명심 자각되어야 하니 하나는 그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다른 하나는 그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서는 출애굽하여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이에게 애굽땅 종되었던 데서부터 나와서 언약의 땅을 향해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명하시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인 순례자에게도 뒤에 두고 온 문화와 앞으로 지향하여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청사진을 간식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 본국을 떠나 신대륙에 도착한 날을 기념하고 그때 그곳의 정황을 회상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성취될 약속을 믿음으로 확인하며 나아가게 하는 특별한 날을 각 가정마다 가져야 한다. "유월절"과 "초막절"을 겸한 각 가정의 이민 기념일이 필요하다.

같은 의미에서 이민교회의 창립기념일도 순례자적 이민공동체에게 필요하니 이날을 기념하고 창립 당시를 회고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누릴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단합 전진키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개체교회의 역사편찬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전통의 형성은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 전체 교우로 하여금 순례사적 공동경험위에 서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선신케 함에 힘이 된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더 높고 넓게 가지를 치며 가뭄을 이기고 바람을 견디어 내듯이 믿음의 뿌리의 깊이가 순례자적 이민 생활의 기초가 됨은 재언을 필요치 않는다.

아울러서 민족적인 문화의 뿌리도 깊을수록 자기 이해를 더 깊이하고 복수 문화적인 신대륙에 있어서 순례자적 신앙의 새문화를 창조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순례자적 신앙으로 해석하는 한국적 문화와 전통의 유지가 필요하며, 재미 한인 이민교회에 있어서도 일반 교육기관을 통하여 받을 수 없는 한국문화교육이 성장하는 세대들에게 필요하다.

사실 오늘의 교회학교 교육의 선구자인 "로버트 레이크"는 그의 주일학교에서 성서만이 아니고 일반교과도 가르쳤으니 이는 그의 학생들이 일반교육기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의미에 있어서 재미한인 이민교회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과 함께 일반교육기관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한인의 문화적 뿌리를 배우게 한다면 이또한 중요한 교육적 의의가 될 것이다.

끝으로, 순례자적 기독교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본성과 목표에 일치하는 것이니 "기독교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어 보이시며 찾으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가운데, 저들이 누구이며, 저들이 처한 인간적 상황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

도인의 공동체에 뿌리를 박고 자라나며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성령안에서 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저들의 공동적인 제자직을 다하며, 그리스도인의 소망중에 거하도록 도와 주려는 것이다"라고 규명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순례자적 기독교교육의 목표이요 재미한인이민교회의 기독교교육적 과제이다.

한인 청소년 기독교교육

최 훈 진

I. 청소년 이해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란 10대의 연령층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춘기라고 불리우는 이 시기는 변화와 갈등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변화란 성장과정에서 오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뜻하며, 갈등이란 사회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아형성에 관한 위기의식이다.

청소년들을 얼마간이라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곧 느끼는 것이 이들이 서로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다르다는 것이다. 즉 전혀 다른 과거의 경험과 환경, 다양한 취미, 특징있는 성품, 독특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청소년이라는 하나의 문화 집단을 이루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다양성을 십분 인정하면서 청소년들의 공통점을 찾아 이해해 보려고 한다.

1. 성장과정에서 오는 변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육체적 성장이다. 청소년 초기에는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더 빨리 자라 같은 나이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몸집이 크거나 여성적 특징이 빨리 나타나는 것도 전혀 비정상적이 아니다. 그러나 1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남자도 곧 육체적으로는 성년의 모습을 취하게 된다. 마치 불에 연단되지 못한 실그릇과 같이 그들은 외모로는 완전한 구조를 갖추었으나 내면적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세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어른과 같이 큰 몸집을 갖고 때로는 어린이와 같이 짓궂은 상난을 좋아하여 피로가 속히 오나 정력이 속히 회복되고 왕성한 신진대사로 인해 오랜 집중력이 없다.

감정적으로는 매우 민감하여 외부에서부터의 자극에 대해 빠른 반응을 나타내며 잘 웃으며 잘 우는 감상적인 특징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세상이 장미꽃밭과 같이 아름답게 보이며 희망을 갖다가도 실망되는 일이 닥쳐오면 즉시로 자포자기하여 버리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사춘기의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라고도 한다. 감정의 폭이 큰만큼 우월감과 열등감을 쉽게 느끼며 스스로 자신을 억제하는 능력이 성인과 같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모험심이 활발하고 상상력이 풍부하여 이상적이 되기 쉽고 창조적인 반면 성장한 육체를 확인하기 위해 어른흉내를 내며 담배와 술과 이성에 호기심을 가지고 어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2. 자아형성에 따르는 위기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의 정신적 성장단계를 분석하면서 정상적인 청소년 시기의 특징을 "정체감의 위기(Identity Crisis)"란 단어로 표현했다.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을 통해

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자아형성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위기의식을 뜻하는 것이다. 청소년 스스로가 이러한 위기를 호소하는 것은 아니며 어른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자아형성에 관한 위기는 청소년들의 내면적 갈등이고 때로는 엉뚱하게 외면화되기도 한다. 그들 스스로가 뜻하지 않게 저지르게 된 일에 대해 원인을 모르고 방황하게 될 때 청소년 지도자는 자아형성의 과정에서 오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겪는 공통된 내면적 갈등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한다.

그 내면적 갈등을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해 보자.

첫째, 그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는 질문들로 대표되는데 비록 다른 상황에서 다른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 심중의 내용은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이것을 인간 실존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발돋움하는 청소년의 외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아형성의 위기에서 나오는 질문은 "도덕에 관한 질문"이다. 누구나가 느끼듯이 우리는 성해방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성에 대해 눈을 뜨고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이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자제하는 힘을 배우기 위해 갈등을 가지게 되며 도덕적 지침을 필요로 하게 된다. 선악을 구분하며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기준을 발견하지 못할때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흔히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도덕의 기준을 충분히 가르쳤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는데는 시간과 시행착오가 따르며 이때 갈등이 오게되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그들에게 도덕의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더욱 혼돈시켜 놓을때 그들의 갈등은 지대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세째, 자아형성에 따른 위기는 "역할의 혼돈"이다. 어른과

같은 크기의 몸을 가진 청소년은 어른과 같이 행동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아직 어른들이 하는 그 역할을 배우지 못했으며 어른만큼의 책임적인 존재도 되지 못한다.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역할은 서서히 배워지는 것이며 때로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진다. 청소년의 위기가 여기에서 오는 것이지만 결코 없어야할 위기가 아니라 극복해야할 위기인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청소년들에게 영어나 수학보다 훨씬 실제적으로 청소년의 시기에 배워야 되는 것이다.

3. 갈등과 위기에 대한 반응

청소년들은 그들 특유의 사고방식과 행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흔히 그들의 갈등과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게 된다.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는 청소년 사이에서 어렵지않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첫째, 그들은 "소그룹의식"을 강하게 느낀다. 청소년들은 자기가 어떤 집단에 속했느냐 하는 소속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기의 집단의식의 표현으로 그들만 아는 언어를쓰며 특성있는 몸짓과 옷차림을 통해서 동질화(Identification)를 시도하며 다른 집단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배타적인 면도 보인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성체감 (Identity) ─ 자아의식 ─을 확인하며 같은 갈등과 위기의식을 가진 집단속에서 안정감을 찾게된다.

둘째, 청소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적 행동" 또한 청소년들의 특징이다. 담배나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즐기기 위해서 보다는 호기심 때문에 시도해 보는 것이다.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이므로 이러한 시도적 행동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인격이 형성될수도 있는 중요한 일들을 시도해 보기도 한다. 그들의 잘못된 시도를 시정해주되 결코 정죄해 버리지는 말아야할 것이다.

세째, 청소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내면화"하며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수시로 변화하는 감정을 스스로 수용하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내면적 갈등을 말로 표현하기란 무척 어려운 것이다. 흔히 문제의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채 혼돈되어 있으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감추는데 더 신경을 쓰세된다. 때로는 자신만만함을 보임으로써 또는 자학으로서 문제의 내면화를 시도하며 뜻하지않게 폭력이나 자신을 해치는 행위를 노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지도자는 나타나는 사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 문제를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II. 한인 청소년 교육

이상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그들을 관찰했다. 그러나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은 미주에 사는 한인(Korean-American) 청소년이며 교육의 주체는 한인교회라는 독특한 교육적 상황에 처해있다. 이제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1. 한인 2세들의 현주소

청소년시기가 인간성장의 중요한 시기이며 환경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시기인데, 이질문화체제 속에 처해있는 우리들의 이민 2세는 앞서 논한 청소년들의 성장과제에 겹쳐서 2중고를 겪고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2세란 누구인가? 넓은 의미에서 이민 2세란 1세들의 모든 자녀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속에도 뚜렷이 차이가 나는 두개의 다른 집단이 있다. 한 집단은 미국에서 출생한 2세로서 영어를 쓰며 한국문화에 이질감을 느끼는 좁은 의미로서의 2세들이다. 다른 한 집단은 최근 10여년 동안 부모들과 함께 이민온 한국에서 태어난 1세들의 자녀들이다. 엄격히 말하면 1세도 2

세도 아닌 그 중간세대인 1.5세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들 1.5세들은 1세들이 겪는 문화적인 충격을 겪어나가야하는 한편 1세들이 기대하는 한국계 미국인 2세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들은 1세들에게는 2세로 통하고 진짜 2세들에게는 1세로("Korean") 통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응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나, 한인사회와 미국사회의 효과적인 교량역할을 할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이기도 하다.

1980년도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한인계 미국거주자 수는 40만으로 되어있고 그중 약 35%가 19세 이하인 청소년 및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다. 스스로 한인사회를 구성해서 그 속에서 안주하려는 이민 1세와는 달리 이 35%는 미국 속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많은 2세들이 각급 학교에서 부모의 기대대로 잘 지내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 그 중에는 우수한 한국인 임을 나타내어 주는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자주 한인계 신문에 실린다. 주로 명문대학 입학, 우수한 성적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로서 한국학생은 우수하다는 증명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는 문제점들을 알아 처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많은 문제점들이 각 가정에서, 교회 목사님에게, 때로는 청소년 담당 지도자들에게 조용히 맡겨져서 씨름하고 있다.

대뉴욕지구 청소년 특별지도위원회가 뉴욕시내의 50개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약 2,200명과 30개 대학 약 300명 등 약 2,500명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조사대상 학생의 약 20%에 해당하는 500여명이 가출 및 학업중단을 하였는데 이들을 좀더 세분하면 퇴학(100명), 무단가출(300명), 불량써클가입(100명) 등이고 그중 60%가 11, 12학년 학생들이다. 한인 청소년들의 한수소가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님을 증명하는 한 사료이다.

한인 청소년들은 언어의 고충, 용모와 신체로부터 오는 소외감, 학업성적의 부진 등을통해서 자신감과 자아확립에 심한 지장을 느끼고 있으며 이질문화권 속에서 허덕이는 부모들

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에는 너무나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때로는 본의아닌 부모들의 방관적 태도, 지나친 간섭 등이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상실하는데까지 이르러 부모가 원하는 가치관과는 먼 미국사회 특유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풍조에 휩쓸려 가정과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

2. 한인교회와 청소년 교육

일반적으로 교육의 도장은 가정과 학교이다. 그러나 한인 청소년들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교육의 도장이 있다. 두개의 다른 문화가 충돌하는 가정에서 효과적인 교육의 열매를 못 거둘 때, 미국 시민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감추인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학교에서 한인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낄 때 의지할 곳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신앙으로 해결해 볼려고 하는 한인교회이다. 한인교회가 청소년 교육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보자.

한인교회란 두가지 복합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인이라는 사회학적 개념과 교회라는 신학적 개념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인사회란 문화집단을 바탕으로 존재해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는 문화와 신앙의 두가지를 보지만 이것을 서로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아니라 이 두요소가 하나가 되어야만 그 가치와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있다. 문화를 간단히 정의해서 "한 사회집단이 가지는 삶의 방식"이라고 볼 때 한인교회는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진 한인들이 모인 문화집단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삶의 방식으로 택한 신앙집단이다. 조국을 떠나 이민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는 신앙집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생활의 제문제들이 여기에서 신앙적인 해결을 받으며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삶의 방식을 배움을 목적으로 한다.

한인 청소년들은 이 속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그들의 소속감

을 확인하게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좌표를 설정하므로 정체감의 위기(Identity Crisis)를 극복할 수가 있다. 그들은 짜여진 교과과정에서 보다 오히려 "한인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을 통해서 이민생활의 가치와 신앙을 전수받으며 이질문화의 적응을 위한 부모들의 갈등과 노력의 현장에 동참하여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한인교회가 그들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잘 짜여진 교회학교의 교과과정 이전에 그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 자체인 것이다.

3. 한인 청소년 교육의 당면과제

이상에서 우리는 한인교회가 1세들의 전유물에서 2세들에게까지 그 공동체의 영역을 확장하므로 1세들의 믿음이 2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수됨을 논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Believing Community)로서 한인교회는 시급히 달성해야할 당면 과제가 있다. 그것은 언어사용문제와 지도자의 문제이다.

첫째로, 언어사용문제는 한인교회가 2세교육에서 첫번째로 대면하는 실제적인 문제이다. 한인교회이니까 한국말을 쓴다는 원칙을 고수할 경우 소위 1.5세들에게는 효과를 볼지 몰라도 영어만을 쓰는 세대에는 효과가 없고 그들에게 말을 가르쳐서 신앙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늦은 일이다. 그중 언어사용도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의 언어문제와 관계되어 생각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청소년 예배 모델이 있다. (1) 동시통역 :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한사람이 기계를 통해 동시통역하고 그것을 청소년들이 수신기(Ear Phone)으로 듣는다. 시설은 교회확성기를 이용

하면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단점은 예배내용이 2세를 목표로하지 못하므로 2세들의 관심을 잃어버리기 쉽다. 장점은 전교인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있다. (2) 영어예배 : 청소년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을경우 미국인이 등장하기도 한다. 단점은 청소년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면 예배분위기 보다는 성경공부의 연장이 되기쉽다. 장점은 부모들과의 신앙의 유대를 유지하면서 청소년들의 요구를 살릴 수 있다. (3) 2세교회 : 2세 목회자에 의해 2세를 위한 목회형태이다. 여기에는 언어사용 문제가 초월되며 앞으로 한인사회가 오래될수록 나타나게 될 필연적인 목회형태이다. 단점은 1세와의 유대관계의 어려움이고 장점은 2세들의 신앙관심과 요구가 적절히 다뤄질 수 있다. 이상의 3가지 모델은 어느 것이 좋다기 보다는 환경에 알맞게 변형되고 적응되어질 일이다.

둘째, 한인교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도자 양성문제이다. 1세 지도자들이 2세를 지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1세 지도자들은 2세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양성에 촛점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소위 1.5세라고 부르는 중간세대 (Bridging Generation)를 훈련시키므로 이들이 1세 지도자들에게 훈련받고 그들의 것으로 소화된 신앙으로 무장하여 2세 청소년들에게 임한다면 한인교회에 존재하는 세대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인교회의 가까운 장래를 청소년기에 접어든 많은 1.5세즉 중간세대에 기대를 걸어야 하겠다. 그들이 안고있는 2중의 어려움이 2세들에게는 치유의 지도력으로 나타남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수이다.

Ⅲ. 한인 청소년 교육의 실재

1. 한인 청소년 교육의 목표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는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하는 질문에서 나오는 자기이해(Self-Development)이다. 둘째, "나는 무슨 가치가 있는가?"하는 질문에서 나오는 자기긍지(Self-Esteem)이다. 세째,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하는 질문에서 나오는 자기발전(Self-Development)이다. 이러한 삶의 과제에 신앙적인 해답을 제공하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체감(Identity)를 심어주는 것이 청소년 교육의 목표라 하겠다. 그러나 소수민족으로서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의 한인 2세(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들에게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들이 삶의 상황에서 뼈저리게 부딪쳐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미국인의 주류에 끼어들지 못하고 주변두리의 삶을 살아야하는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부여해주는 삶의 의미에서 그 해답을 찾을수 있다. 그러므로 이민이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고 체험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삶의 경험에 따라 그 의미를 직실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민으로서의 자기이해를 "순례자"의 모습으로, 소수민족으로서의 자기긍지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개척자로서의 자기발전을 "고난의 종"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서적 상징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2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형성에 있어 그 모형들(models)을 찾을 수 있다. 이민자들을 위한 2세교육의 모형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인 청소년 교육모형

Educational Model for Korean-American Youth

모 형 Models	삶의과제 Life Task	성서적상징 Biblical Image	삶의 경험 Life Experience
신앙모형 Faith Model	자기이해 Self-Understa-nding	순례자 Pilgrims (Heb. 11 : 13-16)	이 민 Immigration
전도모형 Evangelism Mo-del	자기긍지 Self-Esteem	그리스도의대사 Ambassadors for Christ (II Cor. 5 : 20 – 21)	외국인 / 주변성 Foreigner/Mar-ginality
친교모형 Fellowship Mo-del	자기발전 Self-Develop-ment	고난의 종 Suffering Ser-vant (Is. 53 : 3 - 5)	개척자 Pioneer

2. 청소년 교육의 조직과 활동

흔히 중고등부 또는 학생회가 청소년 교육을 위한 조직의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있다. 중고등부란 주일학교의 한 부서로 주일에 진행되는 학교와 같은 선입관이 있고, 학생회란 청소년들의 친교조직이라는 선입관이 있다. 이 두조직중 하나만을 가진 교회도 있고 둘을 다 갖춘 교회도 있다. 어느 조직을 운용하든 우리는 청소년 활동의 고정관념 중 지워버릴 것이 있다. 그것은 청소년 활동의 필수조건이 매주 정해진 시간과 교재와 장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필수조건은 학교와 같은 조직에서 필요한 것이지, 믿음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에서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고안된 경험(학습)을 통해서만 교육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신앙교육의 무대를 삶의 한가운데로 옮길 필요가 있다.

청소년 목회조직이란 책(Jones & Potts, Organizing A Youth Ministry to Fit Your Needs, Judson Press, Valley Forge, 1983)에서 다음의 3가지 유형의 청소년 조직과 활동을 소개한다. 즉 모임중심의 접근(Meeting-Centered Approach), 사건중심의 접근(Event-Centered Approach), 개인중심의 접근(Individual-Centered Approach)이다.
모임중심의 접근은 매주 정기적 모임을 통해서 각종 활동을 진행하는 형태인데, 토요집회, 주일학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좋으나 청소년의 수가 적으면 힘이 들고 지도자와 참가자에게 시간적 부담을 준다. 사건 중심의 접근은 수양회, 절기행사 등이며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에 좋고 운영에 부담이 적게들고 계획에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일수 있다. 그러나 그 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청소년들의 출석이 일정치 않는 것이 흠이다. 개인중심의 접근은 청소년들의 예배순서 참여, 상담, 심방, 의형제(Big Brother) 등의 형태로서 청소년을 조직화 할만한 수가 없을때 많이 활용된다. 개인의 필요에 부응하므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나 청소년들 만의 친교가 적은 것이 흠이다.

이상의 3형태는 골고루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지 어느 하나만을 택하여 고정하면 청소년 활동이 정체되어 버린다. 예를들면 교회가 모임중심의 방법을 택한다면 개인의 관심을 잃게되고, 숫적으로 작은 교회에서는 만족이 없다. 물량적인 발전만을 생각해서 청소년 집회의 출석수만을 헤아려 성공과 실패를 겨냥한다면 한인교회와 같은 제한된 인원을 가진 교회에서는 성공적 청소년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다. 수가 많든 적든 청소년 교육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모임중심, 사건중심, 개인중심의 접근을 잘 섞어 이용한다면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인 청소년 교육을 위한 자료

미국에 산재해 있는 기독교 서점에는 청소년 교육의 각종 자료들이 많이 있다. 문제는 많은 것 중에 실정에 알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며, 자료를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더욱 문제이다. 교과과정(Curriculum)을 위해서는 Joint Educational Development가 발행한 *Guide to Curriculum Choice*(The Brethern Press, Elgin, IL, 1981)에 현재 애용되는 주일학교 교재들의 장단점이 잘 분석되어 있다. 그외의 각종 자료들은 미국 장로교 본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Alert*에 매번 약20 페이지에 달해 소개해 주고 있다. 이 잡지는 교단 소속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배부되고 있다. 또한 각 교단마다 청소년 담당부서에서는 청소년교육자료 목록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중복을 피할려고 한다. 특히 1984년과 1985년의 선교교육의 촛점이 한국이며 따라서 각종 한국과 그 신앙을 소개하는 교재가 발간되었다. 우리의 2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수가 없다. 이상의 자료들은 소속 교단 출판부에 주문하면 된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훈련되고 헌신적인 지도자들에 의해 기존의 자료들이 한인교회의 실정에 알맞게 다듬어져야 하는데 있다. 미국의 각 교단에서는 한인목회의 자료개발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 침례교와 연합감리교 등이 앞장서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사용되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각 교회에서는 미국의 기존자료를 한인교회를 위해 응용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길러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료에 얽매이지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전수하도록 인적자원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교육 자료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좋은 인적자료를 통해 이 성경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중요한 교육과정들의 배경과 성격

도 병 일

한국교회의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의 큰 발전 부흥은 참으로 우리민족의 자랑이요 감사한 일이다.

중국 사람들이 세계무대에 나아갈때는 음식점을 앞세우고, 일본인들은 각종 전기제품들을 앞세우고 시장개척을 하고 우리 한국사람은 교회를 앞세우고 나아가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그 수도 지나칠 정도로 많다고 하는 말이 있다. 나는 한국에서 기독교교육에 앞장서서 특히 교회학교 교육과 교사훈련 그리고 교재집필등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의 교육도 질적으로 많이 발전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미주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이세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이다. 일세는 우리말로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고 있으나 이세는 대다수가 한국말을 잘못하거나 아주 안쓰는 실정에 있고 일세 교사로서 이세를 사유롭고 가르칠만한 교사의 부족으로 이세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한다는 부모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에 놓여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선택해 쓰는데도 그 내용과 성격을 알아야 각 성장단계에 요구되는 아동들의 영적성장을 지도하는

네 도움이 되는것이다. 아직까지 이민교회 교육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교제를 선택해서 쓰는데 그것도 교육과정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아무런 계획없이 사용하는 형편에 있다.

"The Guide to Curriculum Choice"에 나타난 미국에 있는 중요한 몇가지 교회교육과정의 배경과 성격을 소개하므로 교회학교에 관련된 목회자 교사들이나 부모에게 교과과정과 그 선택에 있어서 요구되는 도움을 드리고져 한다.

첫째로 소개하고져 하는 것은 Christian Education : Shared Approaches로써 Joint Educational Development(JED)에서 발전시킨것이다. 대개 이들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검토하기 위해서는 각권의 sample은 무료로 주기 때문에 주문해서 볼 수 있다. JED에 참가한 교단들은 다음과 같다.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Church of Brethren
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
The Evangelical Covenant Church
The Episcopal Church
The Moravian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United Church in Canada
United Church of Christ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67년 상기 신교 교단들이 함께 교회 교육발전을 위하여 "미래를 향한 자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두세기 동

안의 사회와 문화를 내다보며 교회의 건전한 존재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CE:SA구입처 : JED. Room302. 341Ponce de Leon Aue. NE Atlanta, Georgia 30365, (404)873-4319〉

이 교육 과성의 내용은 "Doing the Word" "Interpreting the word", "Knowing the word", "Living the word"로 구분되어 있다.

"Doing the word"의 목표는 ①사람들로 하여금 결단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며 경험하도록 한다. ②선교에 충성하는데는 기쁨도 있으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하고(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③문화적 위기, 사회구조와 체제등에서 억압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치유하고 화해하며 자유를 가져오는 사명을 나타내게 하며, ④모든 하나님의 창조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질을 높이도록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교육 과정의 기본 요소는 Awareness/Analysis/Action/Reflection(AAAR)의 과정을 밟게 하는데 있다. 이 내용을 진행함에는 Study/Action 양면이 필요하며 주로 사회개조가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교육 과성은 신앙의 증인으로써 사회적 활동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데 강조점이 있다.

둘째는 "Interpreting the World"이다.

이과정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경말씀에 응답하는 능력과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책임감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해석하는데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①역사적 상관성을 가지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②문자적 비평 기술, ③해석학적 기술을 발달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내용은 상황 갈등, 선택, 해결, 적용의 순서를 따르고 있으며 성서해석의 일반적 원칙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과정의 중요한 가치는 ①융통성 있는 형태, 대화적인 접근, 우수한 자료를 동원했으며, ②폭넓고 창의적 이야기들을 선택했고 특별히 강한 여성의 성격을 포함시켰다. ③사회정의를 강조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과정은 새 신자들에게는 적합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는 "Knowing the Word"로써 이과정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의 내용과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성경의 메시지에 비취어 그 관련성을 깨닫게 한다. 이 과정의 중심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교육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완성시키는 교회목회이며 ②교육은 삶의 과정 전체를 통해 계속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개인과 세상의 삶의 과정을 통해 계속일하시며, 생을 통해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계속하며, 누구도 절대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행위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야 한다. ③교회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계획적인 방법으로 돕는 일이다. ④교육은 다음의 세가지 요소를 다룬다. 즉, 지식과 이해, 태도와 감정, 그리고 행위와 활동이다.

⑤이 교육적 사명은 교회 교인 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모든 교인을 다 잠정적인 지도자로 보아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학생으로 하여금 ①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깨닫도록하며, ②이세상과 그 안에있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위대함을깨닫도록 하며, ③교회의 사명을 이해토록하고, ④그들의 협동적인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갖도록 한다. ⑤그들의 삶의 의미를 알도록 하고 ⑥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알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전체 공동체의 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⑦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삶을 살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세상에 평화와 정의를 증진도록 한다.

이 교과 내용을 공부할 때 특히 부모가 함께 하며 교사와 가르치는 팀이 되므로 효과적인 학습을 전개할 수 있다.

네째로 "Living The Word"이며 이 과정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공동체의 선교와 삶에 참여하게 하므로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하는데 있다.

설정된 목적들은 (1) 공동체에 환영하고 환영받으며 친교를 형성토록 한다. (2) 교회의 행정절차를 이해하고 결정과정에 참여토록한다. ③ 이웃과 국가와 세상에서 교회의 선교에 활동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4) 인간관계를 탐구하고 신학대로 살고, 가치를 밝히며 윤리 사회적인 진퇴양난을 다룬다. (5) 세대, 가족, 동료 그리고 집단들의 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상호 증진을 도모하고, (6)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인지 알며, ⑦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통과 신앙의 경험과 지식을 알게 한다. ⑧ 예배와 의식에 있어서 계획한 것을 실행할 때 예배의식, 실재, 상징, 전통을 이해도록 한다. (9) 교회의 중요한 행사, 즉 세례식, 교인으로서의 입교식, 안수식등의 의미를 알고 참여토록한다. ⑩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뜻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하며, ⑪ 말씀과 행위를 통한 그들의 신앙을 교회 공동체안에서와 그밖에 사람들에게 증거 하도록 한다.

이 교육 과정의 특색은 모든 년령층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공동체에서 성장하도록 하며 부모의 역할을 돕고 아동들로 하여금 교회와 다른 사람들과 관련을 맺도록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의 뿌리를 탐색하므로써 아동들로 하여금 교회의 역사에 참여토록 한다.

이 과정은 인간 발달에 관련된 교육적 사회과학적인 발견들을 신중히 유용하게 이용하는 장점이 있다.

Christian Education: Share Approaches의 과정은 JED에서 발전시켰으며 많은 교회가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은 "Doing the Word(결단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가 중점) "Interpreting the Word"(성경을 이해하고 응답하도록 하는일에 중점), "Knowing the word" (성경 내용과 아동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그 관련성에 중점), "Living the word" (기독교 공동체의 삶과 선교에 참여하므로 신앙적 성숙을 하도록 함) 이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 과정으로서 장래 2세기 동안의 교회 교육의 미래를 내다보며 작성한 내용이다.

이 교과 과정을 주일학교 각급 년령층에 사용해 보도록 추천하고 싶다.

둘째는 The Bible Way Curriculum인데 1974년 처음으로 개혁교회에서 교회 교육적 사명을 수행키 위해 출판한것이다. 이 교과 주문처 :The Bible way Curriculum, Board of Publication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2850Kalamazoo SE Grand Rapids, Michigan, 49560 , (616)241-1691.

주일학교와 세례문답을 위한 교육을 겸한 통일교재로 역사적인것와 교리것인것, 신앙과 지식, 결단을 위한 성서교육과 지식을 위한 성서교육들을 결코 분리하지 않는다. 이 교육과정은 개혁교회에서 약속의 자녀들에 대한 교리문답 교육을 통한 양육과 교회학교의 복음적인 요소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의 해결책으로써 출판된 것이다.

중요 목표는 모든 사람은 교회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가족의 일원이며 각 사람은 특별한 능력과 선물을 받은 유일한 개체임을 전제로 한다. 교육과정을 계획함에는 그 사람의 발달단계를 고려하며 배우는 사람의 능력과 필요를 고려해서 만든 것이다.

내용은 네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 교회(Church), 고백(Confession), 그리고 사람(Man)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도성

인신(예수), 성경과 창조에 나타난 질서(일반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이 세상과 교회에서 오늘날 그들에게 직면하는 이 말씀에 응답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것이다.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신자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깨어신 세계에서 치유하는 공동체이며 생명을 소생시키는 곳이다.

〈고백〉: 제도화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자들의고백하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도록 복음에 응답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자들의 모임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게하며 세상에서 이를 증거 하도록 하는곳이다.

〈사람〉: 사람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청지기이며 또한 이웃에 대하여는 형제들을 돌보는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새 사람을 만든다.

이 교육과정의 목적은 예수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지식과 양육아래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를 나누어 주고, 신앙과 복종의 산 생활을 하도록 하며 성령을 통하여 능력주시는 자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은 ①신앙의 의미있는 고백과 교회의 삶과 사역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며 ②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봉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폭넓은 표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삶의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선인적인 표현을 하도록 한다.

이 교과 과정은 사회는 치유가 필요한 깨어신 세계임을 전제하고 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기본 요구가 해결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세째로는 D. C. Cook Bible-in-Life 교육 과정을 들수있다.

이 출판사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The Bible-in-Life Curriculum
David C. Cook Publishing Co.
850 North Grove Ave.
Elgin, Illinois, 60120 (312) 741-2400
In CANADA. Unit 5, 90 Signet Drive Weston Ontario

이 과정은 어떠한 교파에도 관련되지 않았으며 역사가 100년 이상 된다.

이 교육과정의 원리와 목표는 세가지로 나타나 있다. 즉 ① 성경중심의 원리, ② 삶의 관련성에 대한 원리 ③ 인간성장 발달의 원리이다.

성경중심의 원리는 내용선정에 있어서 교과와 지도의 중심이된다. 영적인 사실, 개념, 이해 그리고 일반화는 연역과 귀납적 방법을 통해 학습자에게 학습하도록 한다.

삶의 관련성의 원리는 각학습자의 삶속에 성서의 진리를 최대한 스며들게 하는 실정이다. 성서적 진리를 현재와 잠재적 삶의 요구와 흥미에 적용시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 이원리이다.

인간성장 발달의 원리는 성서적 지식은 삶의 요구와 흥미에 관련시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며, 인간발달의 연구들은 발달단계에 각개인에게는 영적, 정신적, 육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은 삶의 각단계에서 성서적 지식과 발달성장단계의 과제들과 통합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교과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전체를 통해 알고자 하는것, 적용하고자 하는것을 성서의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도와주려는데 있다.

이 교과과정은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장점은 교사

들에게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 방향제시를 하는데 있으며 성서의 분명한 출발점과 사상에 세배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약점은 교회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성례, 정치, 역사, 그리고 성서해석의 도구, 기도에 대한 이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응답등에 대한것이 부족한 점이다.

독특하게 공헌한 장점은 교사들을 위한 보충자료이며 교실에서 사용할 매일의 명상자료와 성장발달의 요구들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있는 점이다.

네째로는 Gospel Light Living Word교육과정을 들 수 있다.

주소 : Living Word Curriculum
Gospel Light Publications
2300 Knoll Drive
Ventura, CA. 93003(805) 644-9721

이교육과정은 Dr. H. C. Mears 가 Hollywood 제일장로교회 기독교 교육주임으로 있을때 나름 만족할만한 교재가 없으므로 쓴것이다. 1933년 이교과가 널리 보급되었고 오늘날 수입하고 성경교재를 출판하는 가장큰 독립출판사로 발전되었다.

기본원리와 목적은 다음 여섯가지로 구분해서 나타나있다.

① 성경중심의 학습 —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책이며 학습진행은 성서인물의 기본적 이야기로부터 장소, 사건책, 주제별 공부로 되어있다.

② 성서적 복음주의 — 성서를 배우는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응답하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드리고 그를 통해 새생명을 갖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③ 삶의 관련된 가르침과 배움 — 각교과공과는 분명한 성서적 학습목적이 있고 말씀이 학생들의 현재 경험에 관련을 지어주도록 되어있다.

④ 시도와 성장을 위한 사료를 삽입해 놓았다. 교사와 지도자 향상을 위한 내용을 삽입하여 교과내용계획과 나뉘서 세를 가르치는 준비를 나게적으로 잘하도록 하였다.

⑤ 기독교 가정 : 모든 과정에 성서적 진리와 가정에 적용 관련되도록 실재적 도움을 마련했다.

⑥ 교회성장 : 성서적인 성격은 근본적으로 믿는자들의 몸 즉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데 있다.

이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개인신앙 성상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각아동의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활동과 방법을 쓰도록 고려하고 있다. 단계적 학습계획을 실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교사들이 준비하는데 용이하게 되어있다.

이과정은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약하게 나루어져 있다. 교사회, 예배에 관한 자료가 준비되어 편리하고 독특한 공헌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표현하도록 시도한 점이다.

다섯째로는 Joy Series, Winston Press교육과정을 들수 있다.

주소 : Joy Series, Winston Press
430 Oak Grove
Minneapolis, MN. 55403
(612) 871-7000

이 교과는 모든 교단의 공통적인 부분을 가르치려고 목표하고 교의, 신조, 또한 기도에 대한것은 포함하지 않았다. 기본원리와 목표는 종교를 삶의 한부분으로 보고 개인적이고 기쁨을 수는 경험으로 본다. 따라서 이교과의 내용은 기독교인의 전생애를 통한 과정을 이해하고 성장의 단계를 실질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된 소식을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살도록 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교회 공동체에 관련하고 참여토록 하는데 있다. 학습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것, 활동 기도, 성상 예배 드린다는것이 무슨뜻을 가지는지 알도록 하며 주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이 교과내용에는 성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학습아동들의 삶의 경험과 관련시키는것은 매우 효과적인 면이 있으며 사회활동과 복음적 증거에 관하여는 약한 점이 있다.

이 교과의 독특한 공헌은 첫째, 학년전 아동으로부터 고등학생 년령층까지 일관적으로 성장발달면에서 섭근한 점이며 Piaget, Erikson, Kohlberg 등의 이론을 잘 활용하고 있는 점이나. 둘째 공헌은 다양한 내용과 눈에 선명하게 뛰도록 내용을 전개시킨 점이라 하겠다.

여섯째로 Scripture Press교육과정을 들수 있다.

주소 : Scruipture Press
1825 College Aue
Wheaton, IL. 60187
(312) 668-6000

Scripture Press는 주일학교, 아동교회, 방학학교 기독교학교등의 교육자료를 발간하는 복음적인 출판사다.

이 교과의 의도는 성서적 기초,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삶의 관련성을 가진 건전한 교재로 볼 수 있다.

이 교과의 확실한 것은 교회학교의 교과내용이 성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방법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학생들의 삶에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성서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에 관련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되는 변화의 경험을 하도록 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신자가 되도록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 즉 이교과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으로 제자되 도리를 하도록 도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자들을 일으키며, 그리스도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는 직분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 사람는 사람들의 생활

에 그리스도를 첫째로 하도록 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교과는 성서중심이고 각과는 특별한 목적과 요구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문제나 가치에 대한 재료가 약하며 현대사회의 중요 관심사인 직업, 핵전쟁, 에너지, 인종문제 등에 대한것은 거의 없다.

특별한 강조점은 개인과 가정적 성장과 성서, 신앙공동체에서 개인적인 성장과 지체로서의 생활에 있다.

일곱째 Standard Publishing 교육과정을 살펴보자.

주소 : Standard Publishing
8121 Hamnilton Ahenke
Cincinnati, OH, 45231
(800) 543-1301

이교과의 원리와 목표는 학생으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뜻을 알며 그에게 기쁘게 순종하는데 있다. 이교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가르치며, 전체 성서를 조직적으로 가르치고 각과에 특수학습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며, 가장 효율적인 교수방법의 다양성을 활용하고,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의 적극석인 참여를 하게 하며, 학생들의 생활을 변화하게 하고, 기본교의들 즉 세상과 인간의 창조, 예수의 신성, 처녀탄생, 육신부활 그리고 재림등에 강조점을 누었고 기독교 가성을 세우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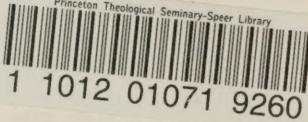
장점은 내용이 잘조직화되어 있어 학생들이 성경내용에 익숙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며 암송요절, 각과의 요절, 강조할 수세의 반복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단점이라면 에큐메니칼 관련성, 지역사회와의 관련, 교회의 물질, 다양한 가정생활양식, 중류백인 계층을 중심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등에 약한 점이 있는 것이다.

성서를 문제에 대한 해답집으로 보는 접근방법을 씀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의심과 문제의식을 일으키도록 허용치 않는점은 신앙의 탐구과정이나 문제의식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과는 다른점이다. 따라서 "Open-ended"나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독특한 성장을 자극하도록 하는 방법보다는 전수의 방법으로 전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장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개인적인 신앙, 복음적인 증거와 노력, 성서적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라는 면이라 하겠다.

이상 일곱가지 우리 장로교에서 쓸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간단히 그러나 매우 중요한 요점을 요약, 소개했다. 여기서는 교육과정의 이론이나 철학적원리를 제시하기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교육에서 쓸수있는 교과가 무엇이며 또 그교과들의 배경과 성격이 어떤 것이라는 개괄적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의도하였다. 따라서 각교과내용에 관심이 있으면 해당 주소로 연락하여 본보기(sample) 과목 등을 얻어 볼 수 있다. 필자가 추천하고 싶은 교과 과정은 Christian Education (SA) 와 David C Cook 을 들 수 있다. 각 교회와 교회 교육지도자들의 성향과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줄로 안다. 한국선교 100주년을 맞아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이행함에 있어서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와 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민교회들에 적합한 교육자료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 일을 위해 필자는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Speer Library
1 1012 01071 9260